

요한계시록 1 장

1. 요한 계시록은 누구의 계시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가? 요한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이다. 당시에 계시록이라고 불릴만한 비슷한 글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것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교회가 이름을 붙였다. 요한 자신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한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1절)과 예수의 이야기이다. 사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했고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지 강조하는 류의 자세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그들이 잘못된 것을 예외라고 가르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잘못이 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마찬가지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신 책이다.

좀 심하다싶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성경과 찬송가를 합본하는 것을 나는 용납할 수 없다. 성경이 어떻게 찬송가와 동급이 될 수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변할 수 없지만 찬송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말이며 수시로 변하는 것이다. 찬송가를 펴내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단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뜻이다.

2. 우리말이나, 영어, 헬라어 할 것 없이 속격(소유격)은 의미가 다양하다. 단순한 소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의 매 라고 말할 때는 동격을 의미하는 소유격이다. 그러면 1절의 '의'는 주격인가? 목적격인가? 그것도 아니면?

양쪽을 다 의미한다. 주격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계시'가 되고 목적격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계시'가 된다. 양쪽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책이다.

3. 이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면(1)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기획, 총괄하셨고, 예수님은 성취하셨다. 일반적으로 계획을 입안하는 사람과 그것을 성취하는 사람이 다를 경우에 그 공은 계획자가 차지하는 법이다. 그럼에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하나님의 종속자인 관계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사람의 경우와 비교하면 차이가 나는 일이다.

4. 속히 될 일(1)이 실제로는 오랜 후에 될 일 아닌가? 실제로 속히 될 일인가?

'예기치 못한 때에 갑작스럽게 성취되는 것'이란 점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때가 가까움(3)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일반적인 단어가 쓰이지 않고 결정적인 시기를 뜻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다(c:결정적인 시기 s)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이 어느 때,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볼 일이 아니다. 모든 성도는 내일이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 그 날과 그 시를 자신도 모른다는 것은 재림의 때를 우리가 알기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5. 하나님께서 그의 종 요한에게 장래에 일어날 내용을 미리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자기 백성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것을 전하는 설교나 성경공부의 내용을 감추려고 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단들이 뿔뿔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실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종이려면 감추지 말고 널리 전해야 한다. 계시란 말도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6.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 증거하였단다(2).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세상이라도 책을 보관하기에는 부족하다(요 21:25)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이 다른가?

요한복음에서 기록하는 것과 계시록에서 기록하는 대상이 다르다. 계시록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바로 '자기의 본 것(2)'을 의미한다. 즉 그가 받은 계시를 이 책에 다 기록하였다는 말이다.

7. 말씀과 관련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3).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유심히 보면 뭔가 차이가 있다. 무엇이며 왜 그럴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수다(개정은 이것을 단수로 고쳤다.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읽는 자는 단수이다.

당시에는 성경이 귀해서 회당에 가야 들을 수 있었다. 랍비가 읽으면 듣고 배울 수밖에 없었던 시절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다.

8. 말씀과 관련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음(3)을 참고로 해서 어떻게 말씀을 잘 배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성경을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다.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지키는 것: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으면 제대로 배울 수 없다.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만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말씀대로 실천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2:7).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가르치는 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 다 배워서 가르칠 자격이 생긴 다음에 가르치려는 것은 너무나 이상적이다. 남을 가르치려고 애쓰면 그로 인해 배우는 것이 더 많다. 집을 사려면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것보다는 용자를 받아서 집을 사고 매월 빚을 갚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이 뛰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고, 빚은 억지로라도 갚지만 돈을 모으는 일은 그렇게 답답한 일이 아니라서 다른 곳에 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남을 가르친다는 것은 마치 빚을 얻어두고 억지로라도 갚아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때문에 자신이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9.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자신의 이름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신을 가리켜 요한이라고 말한 것(1, 2) 때문에 사도 요한이 아닌 다른 요한이라고 의심을 받기도 했다.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이름을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계시록에서는 이름을 언급한 것이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어떻게?

굳이 밝히려고 하지 않는 점에서: 요한복음에서 굳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고 한다면 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이라고 해야 할 것을 그냥 요한이라고만 한 것도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급적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점에서 일관성이 있다고 해야겠다. 마지막 남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자 요한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권위에 넘치는 표현일까? 자신을 요한이라고 표현한 것은 전혀 과장이 아니다. 수식어를 하나도 붙이지 않은 점이 그렇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다른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유일하게 남은 그가 굳이 사도 요한이라고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잘 아는 사람에게는 전화해서 그냥 '홍순관입니다' 하면 된다. 좀 거리가 있으면 '홍순관 전도사입니다' 하고 더 멀면 '효자제일교회 전도사 홍순관입니다' 하는 법이다.

10. 편지의 서두에는 문안인사가 있게 마련인데 요한의 문안인사는 꽤 길다. 옛날 우리 조상들의 한자어를 동원한 격식을 차린 인사말보다 훨씬 더 길어 보인다. 왜 그렇게 길어졌는가? 누구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받고 있는가? 내용이 변하지 않게 가장 짧게 표현을 고쳐 보자(4절 '이제 도...'부터 5절의 '원하노라'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4:6)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성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성령),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신 분(성자)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설명하기 가장 어려운 신비이다. 하나님을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셈이다. 그 분의 만드신 창조세계도 우리가 다 볼 수 없거늘 그 분 자체를 어떻게 완전히 이해할 수 있으랴! 그 분의 존재하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수수께끼요 신비일 수밖에 없다. '동시에 세 분(삼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신 하나님을 물이 변하여 기체가 되고 얼음이 되는 것에 비유하면 양태론이라는 이단이 된다. '삼위로 동시에 존재하심'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비유가 아니다. 하나님에 관한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것이 있는 것이 정상 아닐까? 그런 것이 부지기수가 아닌 것이 감사할 뿐이다.

일곱 영은 성령을 뜻한다. 완전수가 붙은 것은 성령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다(계 1:4, 3:1, 4:5, 5:6)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현대인들이 어디서 평강을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나 자신의 평강이 안정된 직장, 남보다 우월한 지위, 더 많은 재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11. 어떻게 보면 성경은 피칠갑(피범벅)이 된 책이다. 구약에 나오는 수 많은 짐승들의 피, 신약에는 곳곳에 예수의 피, 심지어 식인종이라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모일 때마다 예수의 피를 기념하기도 했다. 피는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등장한다. 첫 유월절 사건 때 죽음의 천사가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간 것은 귀신이 붉은 색을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우리 조상들의 생각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데에 꼭 그의 피가 있어야만 하는가(5:6) 도대체 이 피의 의미가 무엇일까?

피는 생명을 가리킨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선언하신 말씀을

어겼으므로 정녕 죽어야 한다. 죽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자신이 죽어도 구원의 능력은 없다. 그냥 찢값을 치른 것 일뿐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시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는 말이다. 구약의 모든 피도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 마치 지폐가 효력이 있는 것은 중앙은행에 보관된 금 때문인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잘못하면 내가 죽게 된다는 말씀에 다름 아니다. 이유는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인간을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실수인가? 더 자세한 것은 설교란의 '사랑에 눈먼 하나님'을 참고하세요.

12.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만들기 위함인가?

그의 나라, 제사장(6) 우리가 바로 그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며 우리 속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역할과 동시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제사장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제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는 선언으로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

13. 예수님께서 구름타고 오신다니까 '자기가 무슨 손오공이냐?'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니란 뜻이다. 믿지 않는 눈으로 보면 우스운 이야기이며 그리스도인들은 미신에 빠져있는 사람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이걸 묘하게 풀이해서 '구름은 물이다. 사람은 90% 이상 물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뜻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이비도 있었다.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억지를 쓴 것이다. 도대체 구름타고 오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같은 내용을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 7:13, 마 16:27, 행 1:9-11>

영광스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말이다: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법, 두려움에 떨든지, 기쁨으로 환영하든지 분명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말이다. 요한이 본 환상은 구약에 근거한 것이다. 기록된 성경을 아는 자가 그 말씀에 근거하여 환상을 받은 것이다. 전혀 성경과는 관계없는 자의적인 환상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위험하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여 그 말씀에게로 나아가야 한다.

14. 각인이 그를 보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그를 찢은 자도 본다니? 재림의 어떤 성격을 말하고 있는가?

심판에 예외가 없음: 죽은 자가 다 일어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 심판과 영생을 위해서.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멸망하는(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벌을 받게 된다. 죽어서 없어진 사람이 어떻게? 지구는 둥근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오실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우리 선조들이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해서 밤에도 정장차림으로 지낸 것은 어떨까? 그 마음만 이해하면 될 것이다. 주님 오시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난다. 입과 영생을 얻을 자와 영벌을 받을 자는 순간적으로 스스로 안다. 평소에 입린 옷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된다.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옷 말이다.

15.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을 문자적으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

처음이요 나중, 시작과 끝(2:8, 21:6, 22:13): 영어나 헬라어는 자음 모음이 한데 섞인 채 있으니 이런 표현이 가능한데 우리는 자, 모음이 분리되어 있으니 다소 어색하다. 나는 '기억'이요 '히용'이라? 혹은 '기억'이요 '이'라? (알파)는 헬라어 문자의 첫 글자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이다.

16.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1:8) 라는 표현에 가장 어울리는 구약의 표현은 무엇일까?

스스로 있는 자(출 3:14): 시간 개념을 초월하신 분이 라는 뜻이다. 시간만 초월한다면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순식간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시간을 초월하신다는 말 속에는 무소부재, 전지전능의 개념이 다 들어있다. 시간의 구애를 전혀 받지 않는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라. 장차 올 자는 누구인가(4, 8, 4:22)?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아니다. 성부 하나님이 장차 오신다고 말한다! 예수님께서 오시겠지만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

17. 요한의 감정 변화를 찾아보자(1-8). 어디에서 가장 민감하게 감정의 변화가 드러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에서(5-7)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감격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 우리의 진정한 양은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 분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일종의 영광송을 부르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셈이다.

18. 요한계시록은 임박한 환란과 핍박이 예상되거나 실제로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이다. 그들이 처한 상황이 결코 평탄한 때가 아님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자.

자신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소개함(9) 과거에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하셨고 현재 그 환란에 자신도 동참하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방편이기도 하므로 여러분도 동참하게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라.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예수의 재림과 심판(미래적인 내용)을 강조함(1, 4, 7, 8, 18)

19. 당시의 교회가 일곱 밖에 없었을까? 이곳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바울이 세웠거나 그의 영향 하에서 세워진 교회는 밀레도, 드로아, 골로새, 히에라볼리에도 있었다. 소아시아 외의 교회는 교회가 아닌가? 그런데 왜 일곱 교회만 언급하는가?

일곱 교회의 '7'이란 숫자는 완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교회가 그 대상이다. 자신의 교회가, 아니면 자신이 일곱 교회의 어떤 유형에 속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다.

20. 사도 요한은 자신을 누구라고 설명하는가?

너희 형제요(9) 현재 모든 사도들이 다 죽고 혼자 남은 사도이다. 엄청난 권위를 가졌으면서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형제라 부른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자신도 이런 어려움을 인내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실제로는 귀양 간 것이다. 역사적 배경 지식이 아니라면 본문 어디에서도 귀양을 갔다는 표현은 없다. 그냥 거기 있었다고 말할 뿐이다. 자신의 이름 앞에 사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나 요한복음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선거철이 되면 자신이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감옥에 몇 년 있었다는 것도 큰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과 비교해 보라. 단지 에베소 지방에서 전도를 하다가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 밧모 섬으로 귀양을 갔다고 역사가들이 전하고 있을 뿐이다. 귀양 갔다고 해서 별이 가벼운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죽이려고 끓는 기름에 던져 넣어도 죽지 않아서 할 수 없이 귀양을 보냈단다. 뜨겁게 복음을 전하던 요한을 외로운 섬에 가두어 놓았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천국에는 바다가 없더라고 하는 것 아닐까(21:1)?

21.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한 것이 언제라고 하는가?

주의 날: 하나님께서도 특별한 날을 기억하실까? 안식일이 창조사역을 기뻐하고 즐거워한 날이라면 인류구원이라는 재창조사역을 완성한 날이 주일이다. 이 날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도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신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드린 기도(왕상 8:29, 38, 42)를 참고하자. 다른 말로는 '안식 후 첫날, 매 주일 첫날(고전 162)'

22. '성령에 감동하여(10)'란 말은 성령 안에 있었다는 표현이다. 요한에게 있어서 성령에 감동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죽은 자 같이 되매(17) 황홀경 속에 있으며 자신을 주체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감.

23. 요한에게 들린 예수님의 음성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었던다. 요한이 나팔 소리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을까?

로마의 압제자들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신호음: 원래는 경기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지만 교회를 핍박할 때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신호였다. 진짜 나팔 소리는 따로 있다고 하는 셈이다.

24. 초림의 예수는 정말 초라하게 왔다. 아무도 몰라봤으며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다. 이제 그분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취는 것 같더라'고 했다. 1)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모습인가? 2)왜 예수를 이런 모습으로 묘사했을까?

1) **피물(?)** 두렵고 위엄에 찬 모습, 보는 사람을 죽은 자 같이 엎드러지게 할 만큼 위엄이 있는 분 이시다. 구체적으로 살핀다면: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인자 같은 이: 교회의 머리, 주인은 예수시다. 목사, 장로, 내가 아니고. 목사에게 교회란 어떤 곳일까? 의외로 주인 행세를 하거나 사장 행세를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 보인다. 성도들을 섬기며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장소다. 교회를 금촛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귀

한 존재라는 말이다. 교회가 금처럼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제사장직을 의미한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권위, 영광, 순결을 의미한다.

그의 눈은 불꽃같고: 전지성을 뜻하며 어느 누구도 숨을 수 없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능력있는 심판자의 모습이다. 태권 'ㄱ' 같은 모습으로 걸리면 한 방에 끝난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위엄, 사자의 울음소리는 모든 짐승의 오금을 저리게 만든다.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오른 손은 능력을 상징한다. 오른 손에 잡힌 교회는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으며 안전할 수밖에 없다.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두 개의 칼이 좌, 우로 빠져나오는 모습이 아니다. 한 개의 칼(혀를 상징)이 양쪽으로 날이 선 모양이다.

그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취는 것 같더라: 위엄에 찬 모습이다. 바울에게 빛이 비치거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 빛이 비칠 때 쓰러지던 모습을 생각해 보라.

2) 이런 능력의 예수님께서 교회를 돌보신다: 로마의 박해도 박해지만 자신이 여기에 갇혀서 교회를 돌보지 못하고 있어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돌보시니 안심하라는 뜻이다.

25. 17절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 말씀은 8절 말씀과 같은 점은 무엇이며 다른 점은 무엇인가?

내용은 같지만 말씀하시는 분은 다르다: 17절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8절은 하나님을 가리킨다.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시란 것을 의미하고 있다.

26. 예수님에게 있었던 가장 큰 불가사의는?

산 자가 죽은 적이 있다는 것: '산 자'라는 말은 죽음을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뜻이다. 그런 그가 죽은 적이 있다? 불가능한 이야기요 말이 되지 않는 말이다. 부잣집 아이가 굶어죽는 것을 상상하지 못함과 비슷할까? 밥이 없어서 굶었다니까 그러면 라면이나 빵이라도 먹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님을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히 2:9)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후 5:21).

27. 계시록의 내용을 삼분하면(19)?

1) 요한이 본 것(아마 다음 두 항목도 다 여기에 포함된 것), 2) 이제 있는 일, 3) 장차 될 일: 실제로 계시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분하기는 간단하지 않다. 장차 될 일을 말하면서도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가리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28. 음부(陰部)는 히브리말로 '스올' 헬라말로 '하데스' 우리말로 '저승'이다. 사람들이 보지도 못했을 텐데 어떻게 같은 개념의 말이 나라마다 있을까? 개념이 없으면 단어도 없는 법인데?

인류의 보편적인 기억 속에 있었던 것 같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되었다는 뜻이다.

29. 계시록은 끊임없이 핍박과 도전을 받는 초대교회에 주어진 말씀이다. 본문에서 이들이 어떻게 위로를 받았을까?

위엄에 찬 모습의 예수께서(4-5, 13-16) 교회를 돌아보고 계신다(12)

속히 될 일(1): 조금만 참으면 된다는 위로의 말씀이다.

요한계시록 2 장

1.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이 무슨 뜻일까?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교회를 돌아보시는 분, 주인 되시는 분.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이다(1:20). 오른손으로 일곱 별을 굳게 잡고 있다는 것은 교회를 보호하고 통치하심을 뜻하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임재하여 계심을 뜻한다. 교회의 사자는 그 교회를 돌아보는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 성령을 가리킨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를 돌아보시는 분이라는 표현이다.

교회가 염려스러워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면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란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염려스러워도 나보다 예수님께서 더 염려하고 계시며 끝내는 자신이 교회를 돌아볼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만 하면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옳다.

2.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을 본문의 표현을 이용하여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자.

내가 네 행위를 다 안다: '행위'의 본 뜻은 '행한 일' 즉 '업적'일 수도 있는데 우리말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적절한 번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뒤이어지는 표현을 보면 잘한 일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아도 에베소 교회는 유능한 교회였다.

3.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은 무엇인가? (네 항목으로)

수고: 고통스러운 만큼 철저한 노력을 가리키는 말이다.

인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에게는 인내가 필수다. 인내력이 없는 사람은 교회 일을 하려고 하지도 말아야 한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인내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다.

지혜로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2),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6): 뛰어난 영적 분별력을 가졌다. 초대교회는 담임목사가 없어서 원하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거짓 사도들이 설교를 하기도 했는데 이들을 잘 분별해 내었다. 담임목사만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지금처럼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온갖 가짜 서신이 진짜와 뒤섞여 돌아다니고 있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말씀을 가르친 영향이 아닐까? 우리 교회에는 '신천지 출입금지'라는 패가 없다. 누구라도 와서 말씀을 들으라는 뜻이다. 몰래 들어와서 성경공부 하러 가자고 해도 소용이 없다. 더 좋은 성경공부가 교회에 많이 개설되어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점에서 탁월했다.

부지런함(낙심하지 아니함): 아래 질문 참조

4.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칭찬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딘가 느낌이 좀 다르다. 어느 항목이며 어떻게 고치는 것이 좋을까?

게으르지 아니한 것 부지런한 것: 부지런한 것은 칭찬의 대상이 되지만 게으르지 않은 것이 반드시 부지런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말썽부리지 않고 학교를 잘 다녔다고 칭찬하는 것과 비슷하다. 앞의 세 항목 수고, 인내, 지혜로움과 비교하면 격이 맞지 않는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어상으로는 '열심히 일하여 일에 지치지 않음'을 뜻한다. 따라서 정확한 의미는 '낙심하지 않은 것'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 잠깐 열심을 내는 것은 쉬울지 몰라도 낙심하지 않고 오래도록 열심을 내기란 결코 쉽지 않다.

에베소교회의 칭찬을 잘 보면 정말 열심히, 지혜롭게, 충성한 교회란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무너질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 출발은 하나님을 보고했는데 도중에 자신도 모른 사이에 풍향을 바라보고 있는 셈이다. (5번 설명을 참고)

5. 에베소 교회의 잘못된 처음 사랑을 잃은 것이다(4). 칭찬받은 것과 비교할 때 1) 이것이 촛대를 옮길 만큼 큰 문제가 되는가? 2) 그렇게 중요한 것을 어떻게 버렸는가?

1) 주님께서 교회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져 내린다.

2) 스스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다보면 하나님께로 향했던 시선이 사람과 일로 향하면서 이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이 점차 퇴색되면서 교회의 본래 모습을 잃어가는 것이다. 철저하게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한 발만 삐끗하면 형제를 비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랑을 잃어버린다. 우리 교신 교단이 좀 그랬다.

교회를 세우고 고통스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철저한 투쟁을 벌여온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1)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맡았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보다 일 자체나 결과에 집착하면 위험하다. 2) 아울러 형제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아야 한다. 하고 있는 일의 결과에 집착하다보면 의견이 다른 형제나 능력이 부족한 형제를 미워하고 짜증스러워하게 된다. 일에 대한 열심이 형제를 미워하게 된다면 잠시 일을 중지하고 어디서 잘못되었는가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을 포기하고 형제의 사랑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옳다. 믿는 형제간에 문제가 생긴다면 일을 포기해야 한다.

6.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지만 스스로 버렸거나 고의로 버린 것이 아니라 증거가 있는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5): 어쩌다 잃어버렸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버린 것이 아니라 떨어진 것이며 잃어버린 장소조차 모르고 있다. 아니, 어쩌면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종 되었던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해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그 사건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 원만한 결혼생활을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나를 택하여 아내, 혹은 남편으로 삼고 일생을 맡겼다는 것이다. 거기에 비하면 이불 개는 것이나 치약을 옆구리에서 짜든 밑에서 짜든, 화장실의 불을 끄든 말든, 양말을 벗을 때 뒤집든 안 뒤집든 그게 큰 문제가 아닐 텐데...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처음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다.

7.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회개해야 할 만한 죄일까? 가령, 연애하던 시절의 불꽃 튀는 감정을 잃어버린 부부의 예와 비교해서 생각해 보자.

잃어버린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잃어버림으로 결과적으로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애시절의 그 감정은 평균 3년 정도 지속되다가 사라진다. 그 때쯤 새로운 사랑으로 대체시키지 못하면 좋아 보이던 모든 것이 시시해 보이고 급기야는 '눈에 뭐가 덮여 씩어서 그렇게 된 거지'라면서 사랑보다는 애 때문이거나 마지못해 '의무감에서 살아주는 상태'가 되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지 모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무감이나 습관적으로 섬기게 된다. 이것도 회개해야 할 큰 죄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사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역지로 섬겨준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8. 하나님에 대하여 뜨겁고 열성적인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킨다 해도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주님이 돌보시는 한 이 땅의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아니, 문을 닫는 교회가 있음에도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하여 왔다.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을 무엇인가?

춧대를 옮기리라(5): 사라지는 것은 에베소 교회이겠지만 주님의 교회는 다른 곳에서 계속된다는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의 주인공이 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되느냐는 문제가 지 교회가 사라지는 문제는 아니다.

9.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증거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7)

10. 별 네 개를 달고 있던 장군이 어느 날 작대기 하나로 강등되고 말았다. 그 심정이 어떨까? 울화병으로 죽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을 우리는 당했다. 내가 직접 당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별로 아프지도 않고, 회복이 된다는 말을 들어도 그리 감동적이지 않은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금지된 생명나무의 과실이 바로 그렇다. 그 아픔을 내가 직접 맛보지 않았고 내가 빼앗긴 것이 아니기에 못 느낄 뿐이다. 영원한 존재가 겨우 100년 안팎을 살다가 영원히 죽게 된 것이나 다시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화염검과 그룹들이 생명나무 과실을 지키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만한 고통과 슬픔을 주고 있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이 땅에서 회회낙락하고 있을 뿐이다(창 3:22-24). 그 생명나무 과실을 주리라는 약속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리라는 약속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잃어버린 에덴동산은 에덴만 잃은 것이 아니다. 두뇌, 환경, 하나님... 좋다는 것은 모조리 다 잃어버린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다.

감사한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서 있다고 한다(계 22:2). 회복될 에덴은 처음의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11. 회의 도중에 가끔 우스개 삼아서 하는 말 '이 안건에 동의하는 분은 숨 쉬십시오' 이 말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는 같은 표현일까 좀 차이가 있을까?

뉘앙스가 다르다: 전자는 농담이다. 당연히 동의하는 일에 대한 문제이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이다. 그러나 후자는 심각하다.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막 4:9, 23, 눅 8:8, 14:35)'는 뜻이다. 심판이 있음을 암시하는 말이다.

12.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8) 두 가지 표현이 동일한 내용의 반복이라고 보면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다. 투옥과 사형의 핍박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죽음을 이겨 내신 그 분의 모습은 용기를 북돋워 주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의 눈에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기 마련이다. 그러면 답이 다를 수 있다. 짧게 보면 틀린 답이 길게 보면 맞을 수도 있다.

13. 스스로 생각해도 장하다고 여기던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시던 주님이 스스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고 여기던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는 부요하다고 말한다. 서머나 교회가 부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영적으로 부요하기 때문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마 5:3).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달렸다. 디오게네스의 관점에서 보면 알렉산더가 결코 부요하지 않다.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진정으로 부요한 자이다. 나사로처럼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부요한 자.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결심해 두자. 나사로가 될 것인가? 부자가 될 것인가?

실제로 서머나는 부요한 도시였다. 그곳에서 복음 때문에 가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취직을 하기도 어려워져 힘들게 살았던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가난한 것과 자신의 게으름과 무능력으로 인한 게으름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14. 지금은 일류 명문 학교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학교지만 옛날에는 깡패와 농땡이가 득시글거리던 학교가 있다. 그 시절에 그 학교를 다닌 어느 분이 훗날 명문으로 바뀌어버린 출신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하도 꼴사납게 자랑하기에 딱 한마디 해주었다. '00년도에 나도 포항에서 동지 상고를 다녔는데요' 이 말 밖에 안 했지만 그 분이 내 앞에서는 출신학교 자랑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씀은 나의 이 말보다 더 권위가 있다. 왜?

영원히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므로: 누가 진정으로 부요한자인지, 누가 유대인인지 사단인지, 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를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일본과 우리가 싸운다면 우리가 너무 약하다. 그러나 기죽을 일은 없다. 수천 년 역사에서 일본이 이제 겨우 50년 정도 우리보다 우위에 있을 뿐이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별 거 아니다. 이처럼 어려움에 처했거나 목숨을 빼앗긴다 해도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승리는 서머나의 것이라는 말이다. 해롯의 말년에 아들이 옥에 갇혀 있었다. 해롯이 죽었다는 소문이 들렸다. 간수에게 '내줄래, 나중에 죽을래?' 했더니 보내졌다. 그런데 그게 헛소문이었다. 아들을 처형하고 사흘 뒤에 죽었다. 문제는 간수가 왜 내보냈을까? 살아있는 자가 무서운 법! 패배처럼 보여도 긴 안목으로 보면 승리의 한 부분인 경우도 많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셈이다. 이기는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 제일 강한 분이시다.

15. 아무리 권력이 센 임금도, 재산 많은 아버지도 때가 되면 자식에게 넘겨 줄 수밖에 없다. '제게 아무 것도 넘겨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해도 모든 것은 아들에게 돌아가는 법이다. 어떤 점에서 예수님은 이 아들보다 더 강한가?

아들이 아버지를 이기는 것은 나중까지 살아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다. 닥쳐오는 죽음의 위협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수를 인하여 죽는 것은 진정한 죽음이 아니라 일시적이다. 오히려 둘째 사망이 진짜 죽음이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말라는 것이다.

16.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10일 동안 시험을 받게 한다면 10일 동안이란 표현은 짧은 기간을 상징하는 섬어적 표현이란다. 실제로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환란을 없애주겠다고 하시지 않고 '그리 긴 기간이 아니니까 끝까지 견디라'고 하시는가?

죄를 범한 이후 불안정한 인간에게 고난은 필수적인가 보다: 힘들고 박해받을 때는 교회가 성장하지만 모든 위험이 사라졌을 때 오히려 퇴보한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개인의 경우를 보더라도 잘 먹고 잘 살 때 예수 잘 믿기가 더 어려운 모양이다. 성경의 위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안락한 일생을 살기보다는 어려운 시련과 연단의 기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졌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땅의 삶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진정한 안식의 처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견디라고 하는 것이다.

17. 에베소 교회의 이기는 성도들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겠다던 주님이 서머나 교회의 이기는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하신다. 왜 상급

이 이렇게 다르지?

실상은 같은 것이다: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과실'보다는 승리하고 받아쓰는 상급의 의미를 지닌 '면류판'이 더 잘 어울린다.

둘째 사망? 여기서는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용어이다. 성경이 말하는 세 종류의 죽음에서 세 번째 죽음과 같은 표현이다. (성경의 죽음은 분리를 말한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류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첫 번째 죽음, 즉 근원적인 죽음이다. 그 결과로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두 번째 죽음, 일반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현상적인 죽음이며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잔다고 표현한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음에도 끝내 거부하는 자가 받을 영원한 분리가 세 번째 죽음이다)

18. 사단의 회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실제로는 유대인일까 아닐까?

맞다: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니 사단의 회가 되는 것이다. 빛팔이나 무늬만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시대가 바뀌었음을 모르고 있다. 유대인의 혈통을 이어받아야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한 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다(롬 2:28-29).

19. '죽도록 충성하라'는 구절은 대단히 유명한 구절이다. 우리가 들어서 기억하는 이 말씀의 의미와 본문이 강조하는 의미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의 기억: '충성하라'에 강조점이 있다. 별로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나, 앞으로 충성할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다.

본문: '죽도록'에 강조점이 있다. 충성스런 사람들에게 죽음을 각오하라는 뜻이다. 닥쳐오는 핍박에 대하여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이지 단순하게 열심을 내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20. 충성하다가 일찍 죽으면 안 된다. 어떤 목사님께서 일찍 돌아가시면서 '책 사지 말고 밥 사먹어라'는 유언을 남겼단다. 먹는 것 아껴가며 책 사서 공부하다가 병을 얻어 일찍 돌아가신 경우이다. 그러면 '죽지 않을 만큼 충성하라'가 더 옳지 않을까?

본문의 말씀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죽음을 각오하라는 뜻이다. 스스로 노력하여 피할 수 있는 죽음을 어리석게 처신하여 빨리 죽는 것과는 아무 관계없다. 건강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야 한다. 오래도록 충성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는 것이 옳다. 앞뒤를 가리지 않는 열심으로 충성하다가 과로사로 일찍 돌아가신 목사님은 죽도록 충성한 것일까?

21. 12-17의 내용을 종합하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왜 그런 분일까?

좌우에 날선 검을 물고 있는 이(12, 16, 1:16):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는 완전한 답이 아니다. 옆구리에 차고 있거나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검이 입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도깨비나 귀신같은가? 한국의 귀신은 입에서 양쪽으로 검이 나오거나 칼을 가로로 물고 있는 형태지만 예수님은 양쪽으로 날이 시퍼렇게 선 칼 하나가 입에서 나오는 무서운 모습이다. 원래 로마 군인들이 가졌던 검은 한 쪽에만 날이 선 것이었는데 다른 민족이 가진 신무기(?)를 보고 본뜬 것이다. 무서운 검을 단순하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에 물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무서운 검은 말씀의 검이다. 말로 유혹을 하거나 배교를 강요하는 자들과 그런 행위에 넘어간 자들을 이 말씀의 검으로 무찌를 것이다. 버가모 교회는 말씀에 대한 이해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닐까?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권위 있는 말씀을 가진 자'라는 답은 내용 파악은 잘했지만 좀 길고 설명에 가깝다.

22. '사단의 위'와 뜻이 같은 말은?

사단의 거하는 곳(13): 위(位)는 왕좌라는 말이다. 사단의 본거지에서도 죽음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칭찬이다. 당시 버가모에는 20여만 권의 장서를 지닌 도서관이 있어서 모든 이교 사상들이 집결되어 있었고 뱀을 숭배하며 남산타워 같은 거대한 제우스 상이 있었고 황제숭배가 극성을 부렸던 곳이다. 이런 곳에서 고생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왜 '빨리 이사 가라'고 하지 않을까? 어디 사는지 안다고 하시면서?

피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직장에서 신앙생활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핑개치고 나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럴 때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죽으라는 것이다.

23. 발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나타나있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은 실패했지만 스스로 넘어지도록 유혹하는 방법을 발람에게 가르쳐준 것 같다(민 31:16). 그것이 바로 음행과 우상숭배이었다. 사단의 소굴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은 버가모 성도들이 어떻게 음행과 우상을 섬길 수 있을까?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신앙이 음행과 우상으로 넘어질 수 있다. 신앙이 좋은 것과 음행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종족이 다르기 때문이다. 르우벤이나 다윗이 좋은 예다.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힘을 가진 자도 성적 유혹으로는 간단하게 넘어뜨릴 수 있다. 성적매력은 무서운 힘을 가진 것이다. 남편 된 자는 이겨내는 훈련이 필요하고 아내 된 자는 그런 매력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차이는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일이다. 성적인 문제에만 국한해서 말하면, 남편은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지 사랑을 받는 것은 별로 재미없는 일이다. 아내는 사랑을 받아야지 사랑해서는 별 유익이 없다.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도 이 말의 의미를 모르면 진지하게 성문제에 대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유혹은 그렇다 치고 우상숭배는 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그렇게 쉽게 빠져드는 것은 바로 음란 때문이다.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 성적패락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순결이라는 개념은 고대인들이 볼 때는 웃기는 이야기다. 당장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라. 관청에 기생들이 왜 팔려있었는가? 신을 숭배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음란한 행위(그것도 우리가 음란이라고 하지 그들은 성스러운 행위라고 했을 것)를 자행하는 것이다.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결한 삶을 산다는 것은 별나도 좀 별난 정도가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순교자적인 자세가 아니면 안 된다. 순교자적인 자세로 가정과 직장을 섬겨야 한다.

24. 유대 전설에 따르면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될 때 그 안에 있던 언약궤가 천사에 의해서 감추어졌는데 장차 메시아 왕국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한다. 레이더스란 영화는 바로 그 감추어졌던 성궤에 대한 이야기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말씀하셨다.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가 바로 자신이라고 선포하셨다(요 6:48-51). 결국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준다는 말인데 무슨 뜻인가?

영생을 준다: 생명나무 과실을 주리라(에베소)는 것과, 생명의 면류관을 주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서머나) 는 것과 같은 상급이다. 우상에게 바쳐진 기름진 음식을 거부한 상급이므로 같은 류의 음식인 만나로 그 상급을 표현한 것이다. 바로 뒤이은 '흰 돌을 주리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같은 뜻이 되는지 생각해보자.

새 이름을 새긴 흰 돌: 당시에 흰 돌에 새긴 이름은 입장을 허용하는 사람들의 이름이었던다. 지정된 좌석의 명패 같은 것이 아닐까? 천국에는 나의 이름이 따로 있을 것이며 그 이름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새기는 것처럼 새겨져 있을 것이다.

25.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왜 그런 분일까?

그 눈이 불꽃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18): 마징가 Z? 아이들이 좋아하는 무적의 로봇 같다. 도전적이고 전투적이다. 이세벨을 용납한 자, 행음과 우상숭배한 자들을 상대로 싸우려고 하기 때문이다. 두아디라에서는 피혁가공, 염색, 양모산업(자주장사 루디아가 여기 출신이다)은 물론 청동업이 발달했으며 태양신 아폴로(제우스의 아들)를 숭배했다고 한다. 그 아폴로를 심판하기에 적당한 모습일 것이다.

26.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칭찬은?

나중 행위(사업)가 처음보다 더 크다(에베소 교회와 대조적): 두아디아 교회의 '사업'과 에베소 교회의 '행위'는 원어 상으로 같은 단어이다. 그러면 사업이란 말이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나도 한 때는...'이란 말을 많이 쓴다. 뜨거웠던 열정이 한 때는 있었다는 것이다. 세월이 지나면 식기 마련인데 오히려 더 뜨거워진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 결혼한 지 십 수 년이 지났는데도 연애시절보다 더 사랑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행복한 부부일까?

27. 두아디라의 이세벨은 음행과 우상숭배가 주된 메뉴였으니 에베소의 니골라당, 버가모의 발람의 가르침과 내용상 같다고 보아야한다. 이세벨을 용납한 자, 행음과 우상숭배한 자들을 어떻게 벌하십니까?

침상에 던진다(22): 침상으로 번역된 단어는 영어의 bed처럼 잠자는 곳일 수도 있고, 병들어 눕는 곳일 수도 있다. 던진다는 것으로 보아 잠자는 침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병상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더 이상 음행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미가 된다. 옛날 왕들이 일찍 죽은 것이나 천재 예술가들이 요절한 많은 경우도 무절제한 성행위 탓이라고 한다. 음행을 일삼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22), 자녀를 죽인다(23): 큰 환란 가운데 던진다는 것은 침상에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왜 애꿎은 자녀를 죽이는가? 아비의 음행에 대해서 자녀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뜻이 아니라 열심히 음행을 하지만 소득(자녀)이 없을 것이란 말이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얻은

것은 득이 되지 않는다. 설령 그렇게 얻은 자녀가 있다 해도 그런 행위는 자녀에게마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치명적이어서 죽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다.

28. 이세벨을 용납한 자와 행음한 자와 우상숭배한 자들을 벌하시는데 모든 교회가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게 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강조하는 표현인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 어쩌면 이런 악을 아무도 모르게 저지르지 않았을까? 혹은 사회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분명히 핑계거리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벌할 때가 되면 반드시 벌할 것이라는 말씀이다.

29.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란 표현은 합부로 쓸 일이 아니다. 우리가 벌 받을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2:23): 두려운 일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할 때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거저 용서하신 것이 아니란 사실이다. 반드시 죄의 책임을 물으셨다. 단지 내 죄의 책임을 내게 묻지 않았을 뿐이다. 대신에 자신의 아들에게 책임을 묻고서야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결코 값싼 싸구려가 아니다. 예수님 덕택에 구원을 그냥 얻었을지라도 상이나 벌은 우리의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하나님은 최고의 기분파이시므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는 모른다.

30. 두아디라 교회는 음란한 행위에 가담한 것 외에는 달리 책망할 것이 없음을 보여주는 말씀은 몇 절인가?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24절): 이세벨의 교훈은 사단의 깊은 것, 즉 사단의 교묘한 이론이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롬 5:20)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기 위하여 죄를 체험해야 한다고 가르쳤단다. 보험금 타려고 집에 불을 지르는 행위나 다름 바가 없다. 확실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마음껏 타락을 경험하겠가? 담배나 마약도 실제로 나쁜지 어떤지 체험해보고 선택하겠가?

니골라당의 행위와 관련된 교회가 세 교회나 된다. 에베소교회는 미워했고, 두아디라 교회는 추종했으며 버가모 교회는 싫어하면서도 반대하지도 않았다. 음란과 우상숭배가 얼마나 끈질기고 저항하기 어려운 것인가!

31. 메시아의 주권 사상을 노래하는 시편 2편과 두아디라 교회에 하시는 말씀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다는 공통된 표현이 있다: 다스리는 재미와 깨는 재미가 얼마나 클까? 즐기게 되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동참하게 된다는 약속이다. 새벽별은 영광스런 아침을 예고하는 것이므로 영생을 주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된다. 계 22:16에 예수를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겠다고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라(창 15:1)'고 하셨다.

요한계시록 3 장

1. 예수님은 교회마다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이라고 하면 좋을까?

눈높이 예수님: 재미있는 표현이다. 누구는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줄줄 흘리는 데 나는 왜 이렇게 냉랭할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것이 기질의 차이로 믿음의 차이가 아니다. 찬양이나 기도 시간에 남들처럼 열광적이지 못한 분들도 대부분 기질의 차이이기 때문에 자신을 합부로 자책할 일이 아니다. 사람들이 가진 기질의 차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이런 차이를 인정하시고 적절하게 대응하시는데(교회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 비하여 교회는 너무 획일적인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

2. 사데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 모습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곱 영광과 일곱 별을 가진 이: 하나님의 일곱 영광은 성령을 가리키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사데 교회가 죽은 상태(1)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죽은 사데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곱 별은 교회의 사자를 가리키는데 교회를 지키시고 돌아보시는 것을 상징한다. 소수의 올바른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4-5)

3. 다른 교회와 비교할 때 사데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항상 칭찬을 먼저 하셨는데 사데 교회는 책망부터 하셨다: 칭찬을 잘 하는 사람은 칭찬거리가 없어도 칭찬을 하는 재주가 있다. 사데 교회도 칭찬을 하려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부터 칭찬할 수 있다(4). 예수님은 전혀 칭찬할 마음이 없으신 것이다.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4. 사데 교회에 대한 책망은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런 예를 든다면?

형식이나 모양은 있으나 본질이 틀렸거나 없는 경우: 가령 예수가 없는 교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교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사랑 없는 부부, 양교 없는 썩은 빵, 돈이 최대의 목적인 선생이나 성직자... 사데 교회에 대한 유대인의 미움이나 공적인 핍박과 이단적인 교훈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외부의 위협 요소가 없었다는 말이다. 아니, 그런 위협과 적절히 잘 타협하면서 지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교회는 스스로 무너져버린다. 서구의 교회가 100년이 채 안된 사이에 허물어져버린 것을 보라.

5. 사람의 약점은 '세월 따라 변한다'는 것이다. 처음에 가졌던 그 생각, 그 느낌, 그 결심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연애시절의 그 느낌과 약속을 그대로 간직하고 평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라. 그런 점에서 사데 교회는 무슨 잘못이 있는가?

복음을 처음 받아들일 때 그 때를 잊어버렸음(3):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 비슷한 원인을 갖고 있다.

스스로 타협을 했고, 능력으로 위협요소를 다 제거해버렸던 도전하는 세력이 없을 때 교회는 시들어갔다. 개인적으로도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큰 병을 가진 사람은 그 병을 싫어할 것이 아니라 친근하게 지내야 한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를 온전하게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마저 감사해야 한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처음 사랑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 수 있다. 아니, 더욱 사랑이 깊어지기도 한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다(2:19). 오히려 이것을 정상으로 여기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사람들이 드라마틱한 것을 더 좋아하는 좋지 못한 습성 때문에 이런 것이 더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인 것처럼 과장되어 있다. 사극 드라마에서 방원의 이야기(웅의 눈물) 다음에 위대한 대왕, 세종을 건너뛰고 세조의 이야기(왕과 비)로 이어지는 것을 보라. 굴절된 인간의 심성을 보여주는 예다.

6. 사데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었단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예를 찾아보자. 어떤 자를 가리키는 말일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기독교적인 순결을 의미한다: 배타적이거나 염세주의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되 신앙적 순결을 유지하는 삶이어야 한다. 안 믿는 사람들의 회식자리라고 해서 '지옥 갈 자식들과 어떻게 어울리겠느냐?'고 무조건 빠지는 것보다 참석해서 분위기를 맞춰주기도 하고 술 취한 사람들의 마무리까지 해주고 나오는 것이 더 아름답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이 세상에 굳건하게 발을 딛고 살아야 한다. 나와야 할 때는 미련 없이 나와야 하지만, 있을 동안에는 그 곳에서 자신의 순결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을 드러내야 한다.

7. 흰옷을 입는다는 것이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지 않는다는 것은 같은 의미이다. 흰옷 입는 것이 왜 그런 의미가 되나?

흰옷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된 것을 상징한다(계 7:14) 피에 씻은 옷이 붙어야지 어떻게 희나? 죄를 씻는 것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이다. 우리민족을 백의민족이라고 하는 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흰 옷을 좋아했을까? 성경적이어서? 평화를 사랑해서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공한 적이 없다고 하던데 사실이 아닌 것 같다. 효종 때 북벌을 시도했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했을 뿐이다. 광개토태왕이나 장수왕을 칭송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왕건과 견훤은 왜 그렇게 싸웠는가? 평화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옷감에 물들일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사데는 양모 산업이 발달한 곳이라서 특히 울긋불긋한 옷을 많이 입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 곳에서 흰 옷 입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흰 옷은 자랑스러운 옷이 아니었다. 예수로 인하여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성도들에게 흰옷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갖도록 위로하시는 말씀이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리지 않는다는 것은 귀신들이 행복하는 일보다 더 기뻐할 일이다(눅 10:20).

8. 사데는 난공불락의 천연요새로 이루어진 지역이라서 외부의 침입이 극히 어려웠다.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결코 함락되지 않는 지역이었음에도 너무 방심한 탓에 두 번이나 함락 당한 적이 있었다. 그 사실을 염두에 둔 예수님의 권고는?

일깨어, 일깨어, 아니하면, 도적같이 오리라(2, 3) 정신만 차리면 죽지 않는다. 자체 방비가 너무나 완벽하다는 방심이 결국은 스스로 무너진 경우는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다. 이만하면 됐다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 마지노선이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다.

9. 사데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정신을 좀 차려야(일깨워) 한다. 정신 차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설치서 사람이거나 의미도 모른 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다. (판단의 문제) 생각을 하긴 하되 엉뚱한 것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복음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운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지키어: 생각해서 바른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알았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것으로 굳게 잡아야 한다. (지속적인 행위의 문제)

회개하라: 생각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즉시 돌아서라(단회적인 행위의 문제).

10. 열쇠 중에 가장 유명한 열쇠는 행운의 열쇠가 아니라 베드로의 열쇠다. 로마 가톨릭교의 교황이 세속군주와 싸워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무기가 바로 베드로의 열쇠였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마16:19)' 라는 말씀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다윗의 열쇠(7)는 무엇인가?

같은 것: 다윗의 열쇠는 다윗의 집안 전체를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다윗의 집안, 혹은 나라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 즉 베드로의 열쇠와 같은 의미이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사 22:22). 예수님은 다윗의 위에 앉으신 분이시다. 결국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뜻이다.

11.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왜 그런 분일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닫을 자가 없다: 핏박을 이기어낸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천국으로 들어갈 때 더 이상 장애는 없다는 선언이다.

12.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점은?

책망이 없다(=서머나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13.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적었다. 적은 능력이야 힘이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것이 적은 능력으로 되는 일인가?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별로 유능해 보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위대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칭찬하는 말씀이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이었다. 칼빈은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건강하고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 세속적으로 출세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교회 안에서 더 존중된다면 이것은 교회가 부패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14.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을 복을 시편 23편에서 찾는다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계 3:9): 남이 먹지 못하는 것을 혼자 먹을 때 더 맛이 있다. 너무 악취미인가? 여기서 거짓말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는 류의 핍박과 조롱을 가리키는 말이다. 바로 그들 앞에서 성도가 옳았다는 것을 확인시키겠다는 위로의 말씀이다. 사 45:14, 사 60:14을 근거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자신들에게 나아와 굴복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 유대인들을 네 발 앞에 와서 절하게 하겠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휘방에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는 것이다.

15. 우리 인생의 앞길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이 수도룩하다. 오죽하면 인생이란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生 = 牛 + 一)이라고 했을까? 이것들을 피해 가는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내 욕심이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러면 알지 못한 채 다가오는 위험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신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위험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이유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하신다(10).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는 것은 엄청난 인내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 인내의 말씀이 오히려 위험을 피하게 하신다.

16. 인내하며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것 외에 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어떤 것인가? 두 가지를 더 지적한다면?

속히 입하실 것(11): 인내하는 자에게 가장 귀중한 약속은 속히 오시리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입장에서는 결코 속히 입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속히 오리라고 여러 번 약속을 하셨다.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늘 깨어 준비된 자세로 살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 같다. 같은 의미로 도적이 오는 것처럼 오시리라고 하셨다. 언제 오실 지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오셨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 것인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12):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잦은 지진으로 무너진 신전건물들이 많이 있었다.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무너져도 남아 있는 돌기둥처럼 결코 다시 넘어지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며,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도 지진만 나면 보따리를 싸서 집에서 뛰어나가던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임을 연상케 한다.

17. 이기는 자를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면 천국에서 사는 재미가 좀 없겠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리라는 은유적인 표현일 뿐이다: 천국에는 더 이상 지상의 성전과 같은 성전은 존재하지 않는다(21:22). 그 기둥에다 존귀하고 존귀한 예수님의 새 이름을 적겠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쳐다보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임금님을 모시고 다니는 마부는 얼마나 우쭐거릴까?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굽실거리는 것이 아닌데도 말이다.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이 적힌 기둥은 어떨까?

18.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축복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리해 보자.

현재: 열린 문을 네 앞에 두었노라. '빌라델비아 성도라고? 통과!' 이긴 완전히 VIP 대접이다.

가까운 미래: 원수를 굴복케 하리라, 시험의 때를 면케 하리라.

종말 이후: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19.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왜 그런 분일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와 근본이신 이(14): 아멘의 뜻이 '진실'이므로 (진실로, 진실로 = 아멘,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과 같은 뜻으로 세 가지 표현이 다 같은 의미이다. 사고를 쳤을 때 어떤 압력이나 회유에 굴복하지 않는 참된 증인이 나타나면 '죽었다'는 말이고 사고를 당했을 때는 '살았다'는 말이다. 이런 참된 증인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이라고 증언을 할까? 증인일 뿐 아니라 능력까지 지니신 분이시다.

20. 결국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라는 얘기가 뜨거워만 얘기가? 공부하려거든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치우라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차고 뜨겁고가 문제가 아니라 미지근하지 말라는 것이다(=제 역할을 하라, 15): 라오디게아는 물 사정이 좋지 않아서 글로새에서 냉수(발원지는 Honaz 산)를 공급받았고 히에라볼리(현 파묵팔레)의 온수는 라오디게아를 거쳐서 바다로 흘러갔다. 여기서 차다는 것은 신앙이 식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차가운 냉수처럼 제 구실을 하라는 뜻이다. 샘물은 차가워야 하고 온천물은 뜨거워야 한다. 시원한 샘물이나, 뜨거운 온천물처럼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뜻이지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지 그렇지 않을 바에는 때려 치워라'가 아니다. 미지근한 물은 뱉어버리지만(16) 찬 물이나 뜨거운 물은 뱉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때려치우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본문을 보아도 권면하고 놀이기기를 원하시지 '그러려면 교회를 떠나라'는 느낌은 전혀 없다. 요는 열심을 내라는 것이다(19). 부부 사이에서도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얘기가 '도장 찍고 끝내자', 선생님이 학생에게 끝까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학교 그만 두라'는 말이다. 교회에서는 몇 개월에 한번 오는 성도라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말씀 묵상은 냉철하고 차갑게, 믿음은 뜨겁게! 공부하느냐 마느냐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의 문제이지만 차든지 뭉든지라는 것은 양자택일이다. 어느 쪽이든 제 역할을 하는 한 상관없다. 미지근한 상태란 가장 변질되기 쉬운 때다.

21.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데 교회의 공통점은?

칭찬이 없다: 예수님은 칭찬에 인색한 분이 아니다. 그렇게 칭찬을 잘 하시는 분에게 칭찬들을 일 없이 없다니! 요즈음 입시내신 때문에 학교에서는 상장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단다. 어느 학교에서는 전교생이 같은 상을 다 받기도 했단다. 그런 상에서 빠지면?

착각: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가난하다. 살았는 줄로 알았는데 실상은 죽었다. 왜 이런 착각을 할까?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기준미달인 경우는 허다하다. 듣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는 데서 착각이 온다.

22.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부자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눈멀고 별거벗고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상반된 평가가 있을 수 있는가? 복음서에서 이런 예를 찾는다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고, 예수님은 영적인 기준으로 본다.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기준이 변해버리면 헛일이 된다. 기준이 변하면 충신이 역적이 되기도 하고 우등생이 열등생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준을 잘 잡는 일이다. 기준을 잘못 잡고 죽자고 노력하는 것은 무의미하기도 하려니와 자칫 남에게 많은 피해를 주기도 한다.

바리새인과 세리, 유대인과 이방인, 무수한 예가 있다. 그러나 압권은 심판대 앞에서 의인과 악인의 주장(마 25:31-46)이라고 하고 싶다: 의인들이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회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위의 가난한 자를 돌아본 것이 바로 주님 자신에게 행한 것이다.

23. 예수님의 말씀은 그 지방의 특색을 잘 반영하고 있거나 그 교회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라오디게아 지방에는 어떤 산업이 발달했음을 짐작케 하는가? 두 가지만 추측해 보자.

양모산업, 안약, 금융거래(금=돈): 예수님의 교육방법이 탁월한 것은 시청각 자료를 잘 사용하셨다는 점이다. 실제 상황과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에게는 교육자료였다.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처해있는 실제 삶과 영적인 모습을 관련지음으로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도록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다. 구약에서도 많은 기뻐물을 남기거나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진리를 전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는 잊지 못하게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삭)'이라고 하신 것이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소변볼 때마다 확인시키신 하나님이다(할례 말이다). 유머 감각이 탁월하다고 해야 할지, 지독하다고 해야 할지...

예수님께서 금, 약, 옷을 팔았나? 제대로 믿으라는 말이다.

24. 학생들에게 매(잔소리, 과제를 포함)를 잘 드는 선생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19)?

크게 나누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인격에 결함이 있는 경우, 또 한 경우는 학생에 대한 사랑과 열심이 넘치는 경우: 매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매를 들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무척 힘이 드는 일이다. 열심이나 사랑이 식으면 매를 드는 일도 그만둔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하는 매는 서로에게 힘이 들면서 학생에게는 큰 유익이 있다. 사랑하는 자녀를 책망하고 징계할 수 있는 부모는 제대로 된 부모이다.

25. 어떤 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지독한 편애이다. 자기 백성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있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실까?

누구든지 문을 열어주지만 하면 내가 들어가겠다고 했잖아! 사랑하지 않는다고 탓하기 전에 네가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20):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구원의 문을 열어두었다. 그 문을 들어서느냐 마느냐의 차이가 편애를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이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원망할 이유가 없다. 문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예수님께서 도대체 얼마나 먼 길을 오셨는지를 아는가? 천국을 떠나 이곳까지 오셨다. 선악과 사건 이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있기까지 하나님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는가?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여기까지 찾아오신 그 분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표현하

고 싶다. 문은 내가 열어라!

26. 20절은 전도할 때 잘 사용하는 구절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전도를 뜻하는 말이 아니다. 지금 간곡하게 하는 부탁은 예수 믿으라는 뜻이 아니다. 그럼 무슨 뜻인가?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왜 교제를 나누지 않느냐?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시간 내라 밥 한번 살께'와 비슷한 말이다. 예수님께서 밥 얻어먹으려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식탁의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찾아오시는 것이다. 이왕에 예수님을 믿었으니 힘을 내라는 말씀이다. 친하게 지내자는 말이다. 대통령에게 밥을 한번 사고 싶다고 한다면 킬링 응해줄까? 그런데 예수님은 밥 먹자고 찾아오셨다.

27. 7교회에 공통된 말씀은?

네 행위를 안다: 교회의 머리되시고 끊임없이 교회를 돌아보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의 행위를 알고 계신다. 교회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가슴 아픈 일이 있을 수 있더라도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만은 잊지 말아야 한다. 그 외에도 '이기는 자에게 대한 약속',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등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말씀이 '네 행위를 안다'일 것이다.

28. 각 교회의 처한 상황에 맞추어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만약 우리 교회, 혹은 나 자신에게 나타나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 혹시 거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각자 생각해 볼이다: 이런 질문을 던진 조성에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공부 중에 있었던 일>

"빌라델비아를 일반적 표기로는 필라델피아로 표기하는데 '필'과 '아델포스'의 합성어입니다. 철학을 의미하는 *philosophy*나 '필레오'의 '필'은 좋아한다는 뜻이고 아델포스는 형제라는 뜻입니다."

"아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이 필라델피아구나!"

"무슨 영화요?"

"동성애를 소재로 한 영화가 있어요. 필라델피아가 이야기의 배경이라서 제목이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다른 이유가 있었네요"

"서양 사람들은 그 영화 제목과 내용의 관계를 쉽게 이해하지요. 그러나 어원을 모르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화제목의 의미를 알기 어렵지요."

7교회 맞추기

어느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인가? 어느 교회가 다음 표현과 닮았는가?

1. 네가 타는 버스는 날마다 고장이냐? 허구한 날 지각 안한 날 있어?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니? 공부를 열심히 하니? 그렇다고 제대로 즐기나 하니?

라오디게아 교회

2. 인자하신 선생님께서 어느 날 몽둥이를 갖고 종례시간에 들어오셨다. 죽었다 싶으면 빨리 벌어야지.....

버가모, 두아디라

3. 너는 시한부 인생이야.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제발 정신 차려!

사데 교회: 뿌리 뽑힌 나무, 꺾어진 포도나무,

4. 빌라델비아 교회: 고학으로 성공한 학생, 자수성가한 사업가, 절개를 지킨 춘향이

5. 라오디게아 교회: 희멀고 학생, 이것도 저것도 좋은 게 좋다는 백성, 벌거벗은 임금님

6. 에베소 교회: 알맹이 없는 형식주의, *mannerism*에 빠진 부부,

지적 싸움만하는 교회: 어느 부부의 냉정한 싸움

7. 서머나 교회: 나사로,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부요한 자

8. 버가모 교회: 용사같지만(중성스럽지만) 말씀에 좀 더 진지해야 할 교회,

9. 두아디라 교회: 공부는 잘하는데 가끔 엉뚱한 사고를 치는 학생 (=버가모 교회)

10. 제일 크게 착각하고 있는 교회

라오디게아

요한계시록 4 장

1. 성경에서 '열린 문'은 대체로 초청의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라는 찬송은 누구든지 오라는 부름을 나타내는 표현이다(3:8, 20). 그런데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은 의미가 다르다. 가령,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요 1:51)' '제 삼십 년 사월 오일에 내가 그 발 강 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겔 1:1)' 등은 초청의 의미가 아니다. 그러면 요한이 본 열린 문은 초청의 의미일까? 아니면?

계시: 이 문은 요한이 들어가도록 열려있기보다는 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열려있다(1절 끝에 보이라 하시더라). 밧모 섬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그에게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노출시키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눈을 뜨면 망망한 바다와 갈매기, 돌(밧모섬은 채석장이 있었다고 한다)밖에 없는 그 곳에서 그는 놀라운 하늘의 광경에 취해 있다.

2. 지금 요한에게 '올라오라'고 하는 음성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다. 왜 하필이면 나팔 소리와 같다고 할까?

음성이 매우 컸다는 뜻이다(1:10): 단순히 컸다는 뜻이 아니다. 위엄으로 가득 찬 말씀에 감히 거역할 수 없었음을 뜻한다. 사자가 지면에다 포효할 때는 땅이 울린다. 그러면 다른 짐승들이 오금이 저려 뛰지를 못한다. 소리가 크면 이렇게 두려울 수 있다. 사람을 능히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소리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3. 지금 요한에게 '올라오라'고 하는 분은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같은 음성'과 같은 분(1:10)의 음성이다. 그러면 이 분은 어디에 계시는 분인가?

땅에도 계시며 하늘 보좌에도 계셔서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본적지는 하늘, 임시 거주지는 땅이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잠시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고, 교회를 돌보시느라고 교회 사이를 거닐며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4. 계시록은 무엇을 기록한 글이라고 하는가?

이 후에 마땅히 될 일(1):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안다는 호기심 채우기인가?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퀴즈 풀듯이 알아내는 것인가? 계시를 보여주신 목적은 우리의 호기심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역사가 우연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필연, 즉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임을 확신시키려는 것이다. 역사가들도 역사는 필연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필연은 인과응보적인 의미다(하나님 없는 필연).

5. 듣는다고 들리는 것이 아니며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다. 음식은 혀로 맛을 보아야지 눈으로 보아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음악은 귀로 들어야지 피부로 들어서 제대로 느낄 수 없다. 하나님은? 성경은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가?

성령의 감동으로 보는 것: 영적인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성경도 제대로 이해한다. '화살에 네 앞에 있지 아니하냐?' 라는 요나단의 말을 아이가 이해하는 것과 숨어있는 다윗이 이해하는 내용이 다르다(삼상 20:38-39).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세상은 사라져 버리고 보아야 할 것만 제대로 본 것을 노래한 찬송이 있다. 몇 장일까? 204장 3절. 우리 눈에는 무엇이 가장 크게 보이는가? 돈, 명예, 자존심, 차, 집, 영혼?

6. 하늘 보좌를 다음과 같이 정돈해서 단 7:9-10과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점을 찾아보자.

구 분	계시록 4장	다니엘 7장	
하 늘 보 좌	앉으신 모습	벽옥과 홍보석 같은 이가 계심	옷이 희고 머리털은 양털같음
	주위의 모습	무지개(=녹보석) 24장로 (흰 옷과 금 면류관)	
	나오는 것	보좌에서 번개, 음성, 뇌성(출 19:16) 일곱 영	불꽃
	보좌의 앞	수정같은 유리 바다	퍼진 책들
	섬기는 이들	네 생물 (눈이 가득, 쉬지 않고 찬송, 여섯 날개)	수종자 천천, 시위자 만만

가장 큰 차이점: 보좌 둘레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있는 점(겔 1, 10장)

7.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석 같다고 표현했다(3). ‘어울리는 말이다. 보석이 놓인 곳이 보좌가 아닌가!’ 이 설명이 그럴듯한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디에 비유한 것인가?

보석이 아니라 왕에 비유하고 있다: 왕은 통치, 심판하시는 분이시다(사 6:1, 겔 1:26). 당시에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지만 성도들에게는 더 아름답고 위대한 진짜 통치자가 따로 있다는 말이다. 이렇고도 무사할까?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이다(히 4:16). 여기서는 심판과 통치의 보좌이지만.

8. 벽옥(jasper)이면 벽옥(푸른 옥, 벽계수라는 표현처럼)이고 홍보석이면 홍보석이지 색깔이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벽옥같기도 하고 홍보석같기도 할까?

하나님 자신이 도저히 공존하기 어려운 두 가지 성품을 동시에 지니고 계신다. 마치 공의와 사랑처럼: 벽옥은 위엄, 순결, 홍보석은 심판을 상징한다고 한다.

9. 무지개는 홍수 이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 무지개는 자비하심보다는 하늘 보좌의 아름다움(옥보석, 에메랄드)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벽옥이나 홍보석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한다면 무지개 또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도 별 무리는 아닐 것 같다. 두 가지 의미를 다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겠다.

10. 교회마다 있는 장로들이 다 천국에 가면 어떻게 하나? 자리가 24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대표를 또 뽑는가?

여기 장로는 장로교의 장로가 아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라는 것부터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대체로 하나님과 어린양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존재라고 한다.

11. 우리나라 사람들을 백의민족이라고 한다. 흰옷을 즐겨 입었기 때문이다.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고 물감을 만들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심지어 유대민족과 같은 혈통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장로들은 왜 흰옷을 입을까?

어린양의 피에 씻은 옷이다(3:4) 의와 청결의 상징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의미한다.

12. 면류관은 두 종류가 있다. 우리말로는 분간이 안 되지만 원어상으로는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ὁ ἄστυ파누스, ὁ μιδια테μα). 임금이 쓰는 면류관과 운동 선수가 쓰는 것인데 24장로가 쓰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

승리의 결과로 선수들이 쓰는 ὁ ἄστυ파누스(아무래도 승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3. 번개, 음성, 뇌성이 한꺼번에 들리는 것은 무슨 장면을 연상시키는가?

언약을 주시던 때의 시내산 광경: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14. 다음 표현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생각해보자.

눈이 가득: 끊임없이 살피고 경성하여 깨어있음

여섯 날개: 신속하게 움직임, 겸손(얼굴과 발을 가림, 사 6:2)

우리 바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것도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히 4:13). 괜히 부딪히면 머리가 찢어질까 걱정하지 말고!

15. 1-7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무엇이며 왜 그럴까?

같고(7번), 같은(1번),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단어로 표현할 수 없어서: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도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록이 있다. 유식한 원시인이 무식한 원시인에게 ‘사진기’를 설명할 때 ‘사람 그리는 기계’라고 하더라. 찍는 기계라고 하면 안 된다. 노인에게 컴퓨터를 어떻게 설명할까? 말을 정말 잘 듣는 심부름꾼? 똑 같은 일을 시켜 놓으면 밥새도록 쉬지 않고 일하는 머슴과 같다? 그런다고 알아들을까?

16. 보좌 둘레에 있는 네 생물, 즉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에게 공통점이 있을까?

소속된 영역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 사자는 동물의 왕, 송아지는 가축 중에서 가장 귀한 일꾼, 사람은 만물의 영장, 독수리는 하늘의 왕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의 대표들인 셈이다. 결국은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뜻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리고 신속하게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심지어 4 복음서를 이 생물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견해가 있지만 사자(마) 송아지(막) 사람(눅) 독수리(요)가 일반적이다. 4 복음서가 다양하게 나타난 것은 예수님의 실상이 그러하기 때문이지 직접적으로는 이 생물들과 관계있는 것은 아니다.

17. 네 생물과 장로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쉬지 않고 찬송하는 일: 목이 아프지 않을까? 꽃노래도 한 두 번이지 싫증이 나지 않을까? 하나님과 끝없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교제를 가리키는 말이다. 진정한 안식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이에 무엇을 묻고 답할 것도 없고... 결국은 찬송(칭찬, 감사)밖에 남지 않는 사이가 어떤 사이겠는가?

남녀 간에도 처음 사귄 때는 질문도 많고 할 말도 많지만 서로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면 할 말이 그리 많지 않다. 정말 마음이 잘 통하고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는 말이 많을까, 적을까? 정답은 별 의미없는 헛소리가 많다. 아무런 의미도 뜻도 없는 말을 주고받아도 즐겁기만 하다. 반면에 부적절한 관계인 경우에는 말도 많고 더 정답게 보인다.

18. 네 생물이 드리는 찬양과 24장로가 드리는 찬양을 비교해 보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네 생물 = 하나님의 본성(존재)에 대하여 (영광과 존귀와 감사)

24 장로 =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의 찬송에는 우리의 신앙 간증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다. 엄밀히 말하면 찬양이라고 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간접 찬양이라고 하면 될까? 우리의 찬송에서도 이 정도의 차이는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계명성 동쪽에 밝아...' (261장) 찬송가에서 빼고 싶다.

19. 요한을 위시하여 이 때 성도들이 박해를 받은 이유는 황제 숭배에 거역한 탓이다. 황제가 자신을 향하여 부르라고 하는 대로 부르지 않았다. 황제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죽음의 위협을 당한 그 칭호를 하나님께 사용하고 있다. 사용하라는 황제의 명을 거역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에게 돌려드린 칭호는 무엇일까?

우리 주 하나님: 도미티안 황제가 자신을 향하여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명했으나 듣지 않고 죽음을 각오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 하나님이락 부를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시오,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온갖 박해와 아픔을 견디면서 오직 하늘 보좌만을 기억하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시각을 가집시다.

20. 금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 떨어진 면류관은 누가 치우며 그들은 무엇을 쓰고 있어야 하나?

쓸데없는 고민이다: 말꼬리를 이런 식으로 잡는 것은 결코 좋은 버릇이 아니다. 본문이 말하려는 의도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신들이 승리하여 얻은 면류관조차 하나님의 공로로 돌려드린다는 뜻이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믿지 않는 것과 같다.

21. 요한은 현재 황제 숭배를 거부한 죄로 귀양을 간 것이 거의 틀림이 없다. 거기서 이런 편지를 교회마다 보낸다는 것을 황제가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 놈이 전혀 반성의 빛이 없구나: 로마 황제보다 더 으리으리한 보좌를 묘사하고 있으니 새로운 황제를 섬기는 꼴이다. 나한테 얹드리지 않던 놈이 어느 보좌 앞에 얹드려?

22. 1-3장의 기록과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 4장을 1-3장과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1-3장: 땅의 일, 온갖 문제점을 다 가지고 있는 곳이다.

4장: 하늘의 일, 경이로운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이런 곳에 계시던 분이요 지금도 여기에 계시면서 동시에, 땅위의 교회를 돌아보고 계신다.

23.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은 초대 교회 성도들이 보기에 누구와 대조를 이루는가?

로마 황제: 당시의 고난이 바로 로마 황제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 분보다 더 탁월한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을 바라보며 힘과 용기를 얻었을 것이다.

24. 성경이 형성되던 초창기에 요한계시록은 정경에 포함되어야 하느냐 마느냐는 논란이 다소 있었다. 왜냐하면 소위 묵시문학의 범주를 형성하는 비슷한 작품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계시를 보았다는 많은 글 중에서 유독 요한계시록이 정경으로 인정받은 이유를 다음 구절들을 참고해서 설명해보자.

제 삼 일 아침에 우뢰와 번개와 뽕뽕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

성이 다 떨더라' (출 19:16)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겔 10:12)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겔 1:10)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떠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겔 1:22)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사 6:3)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리어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겔 1:28)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이다: 혹시 누군가가 계시를 받았다고 해도 완성된 성경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다. 하나님과 직통한다는 분들의 주장이 성경 말씀에 부합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천국 갔다 온 분들의 이야기도 성경말씀과 일치하는지 살펴야 한다. 한국 사람이 본 천국은 기와집이 있는 목가적인 모습이고 서양 사람들이 보고 온 천국은 고층 빌딩이 많은 것은 왜 그럴까? 또 어떤 분은 '가지 면류관이 있는데 금 면류관, 은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 있더라'고 하길래 국어공부를 좀 더 하고 다녀오시라고 했다. 왜냐하면 성격상 금 면류관이나 영광의 면류관은 같은 부류로 분류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5 장(하나님의 어린양)

1. 4장과 5장의 내용을 비교하면 어떤 관계인가?

4장은 전체, 5장은 그 중에서 중요한 핵심 부분을 클로즈 업 시킨 내용이다. 마치 영화의 카메라가 화면을 크게 잡았다가 차츰차츰 각도를 좁혀가며 세부적으로 묘사하는 것과 같다.

2. 4장에서 위엄에 찬 하나님의 보좌에 머물렀던 요한의 시선이 5장에서는 어디에 머무르는가(두 가지)?

봉인된 책(1), 어린양(6): 4장에서 하늘나라 전체를 묘사하다가 이제는 핵심 부분이랄 수 있는 봉인된 책과 그것을 펼 어린양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책은 모세의 율법책, 하늘나라의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고(20:12), 단 7장에는 심판을 위한 책이 있다. 본문의 봉인된 책도 봉인이 떼어지면서 심판이 임한다(구원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3. 으리으리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책이 어울리는가?

공부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구원역사를 상징하는 것이다.

4. ‘안팎으로 썼고’라는 말은 이 책이 어떤 형태인 것을 암시하는가?

두루마리: 책의 모양은 두 종류가 있다. 두루마리와 지금처럼 한 쪽을 꺾은 서책의 형태인데 안팎에 쓰였다는 말은 두루마리라는 말이다.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겔 2:9-10)’ 책은 일부를 볼 수도 있으나 두루마리는 인봉을 일부 떼었다고 해서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비밀처럼 가려져 있다가 마지막 한 순간에 확 열리게 된다. 말하자면 계시록은 그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 셈이다.

5. 봉인하신 분은 틀림없이 하나님 자신일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을 펴면 될 것 아닌가?

책을 편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되고 시행된다는 뜻이며 봉인이 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역사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는 것은 누가 계시역사의 주인공이냐는 물음과 마찬가지로, 책을 봉인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뜻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스스로 봉인한 것이지만 충분한 값을 치르기 전에는 스스로 그것을 떼지 않는다. 그래서 값을 다 지불한 어린양이 인을 떼 자격을 얻은 것이다. 인류가 범죄한 것에 대한 짓값은 반드시 치루어야 한다는 뜻이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로움의 문제이다.

6.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환상 가운데서 보는 것이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한다면?

봉인된 책이 안팎으로 기록되었음을 아는 것(1) 혹은 하늘 위어나 땅 위어나 땅 아래에의 일을 다 살필 수 있는 능력이 있음(3) 마치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묘사되고 있다. 꿈속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7. 하늘 위어나 땅 위어나 아무도 그 봉인을 떼 자가 없더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어떤 측면을 말해주는가?

우리의 구원은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여 얻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보여 주시기 전에는 깨달아 알 자가 전혀 없다.

8. 요한이 왜 우나?

안타까움: 환상 속에서 요한은 이 책의 내용이 계시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역사가 이 땅에서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면 닥쳐오는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 없다.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최후의 승리와 새 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임하여야 한다. 이것 없이 역사의 의미를 알 수 없다.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에게 주어져야 한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되어야 한다.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경찰서장이 재발 뛰어내리지만 말아달라고 사정하는 이유가 누구를 위함인가? 우리에게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한다. 말씀을 증거하려는, 복음을 전하려는 안타까움이 있어야 한다. 안되면 울기라도 하자! 그러나 성도에는 울음을 그쳐야 할 이유가 있다.

9.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한다. 후손이면 어떻게 뿌리가 되나? 열매라고 해야지?

겉으로 보기에 다윗의 후손이지만 실제로는 다윗보다 먼저 계셨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 ‘주’라고 불렀다(시 110:1, 마 22:43-44). 심지어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셨다고 말씀하셨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틀에 맞아 죽을 뻔 했다(요 8:56-59).

10. 유다 지파의 사자(창 49:9-10) 다윗의 뿌리(사 11:1, 10)가 이기었다면 어떻게 되는가?

다윗의 위를 이어받은 위대한 왕이 등장할 것이다: 모든 악의 세력을 정복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

라를 건설할 사자요, 뿌리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왕이 등장할 것이며 그러면 메시아 왕국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獅子일까, 使者일까? Lion이다. 로마의 압제 아래서 신음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었을 것이다.

11.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어떻게 이기었을까? 본문에 답이 있다면?

죽임 당함으로(6): 사자라고 불린 예수 그리스도는 용맹함으로 이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이기려는 것이다. 세례 요한은 그를 가리켜 유월절 어린양이라고 불렀다. 유월절에 희생이 되는 양 말이다(출 12장). 실제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노력했다. 때가 되자 스스로 죽을 곳으로 찾았으며 죽이지 않으려는 자들에게 죽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자기가 하는 일이 예수님이 알고 계시면서 오히려 빨리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옳은 일인 줄로 알았을지도 모른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제물(Ransom, 몸값)이라고 불렀다(마 20:28, 막 10:45). 어린 양처럼 죽어서 사자가 된다? 도대체 이런 역설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높아지려는 자는 먼저 낮아져야하고 이기려는 자는 먼저 죽어야 한다(눅 22:26). 죽음으로 세상을 이긴 그분의 후예들은 무슨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고 있을까?

12. 뿔 달린 짐승에게 뿔은 힘의 상징이다. 그것도 일곱 개라는 의미는 완전함을 뜻한다. 일곱 개의 눈도 그런 식으로 설명해보자.

전지(全知): 결국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졌다면 말은 全知全能하신 분이란 뜻이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라는 의문을 품을 때가 많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며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

내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그냥 보고만 계실 때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이다.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방법에 관한 문제일 뿐이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요 16:33)

13.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신다. 나의 사정을 다 아시는 분에게 굳이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기도가 별로 소용이 없다는 주장들이다. 본문을 근거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를 찾는다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것이기 때문에(8):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 사랑 하는 이에게 줄 것이 없는 자의 아픔을 아는가? 시곶줄과 머리빗을 샀던 가난한 부부의 사랑이야기를 참고해보자. 밀천도 안 들이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왜 마다하겠는가?

14. 새 노래로 노래하다니(9) 난 옛 노래가 좋던데?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표현은 시편에 많이 반복되는 구절이다(시 33:3, 시 40:3, 시 96:1, 시 98:1, 시 144:9, 시 149:1). 왜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다음 구절에서 찾아보자.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이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사 42:9-10)

새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시니 그것을 찬양하려면 새 노래가 필요하다: 그 상황에 적합한 노래가 없기 때문이다. 즉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양을 죽음을 당했다는 전대미문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이다. 이전의 노래로는 이것을 찬양할 수 없어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다.

15. 사람들을 굳이 피로 사야 하는가(9)?

정녕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선고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피에 생명이 있다. 죽을 자가 죽지 않으려면 누군가가 대신 죽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대신 죽음이 바로 어린양의 피다. 성경은 피칠갑(범벅)이 된 책이다. 구약의 모든 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다.

16.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9)'의 의미를 네 글자로 줄인다면?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만 구원하시려고 하셨다(요 1:11, 13:1)는 말과 모든 족속(창 12:3)이 복을 받으리라. 어느 쪽이 옳은 말일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신다.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시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상이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결코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17. 어린양의 피로 값 주고 사람을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단다(10). 나라를 삼으셨다는 말

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의 통치에 복종한다는 뜻이다. 제사장으로 삼는다는 것도 대동 소이하다. 무슨 뜻일까? 제사지낼 때 써먹으려고?

제사장의 특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 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엡 3:12) 출 19:5-6의 성취다. 피로 값을 주고 교회를 세웠다고 하던데? 틀린 말일까? 맞는 말이다(행 20:28).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잊은 탓이다.

18. 우리를 땅에서 왕 노릇하게 하려고 피로 값 주고 사셨단다. 믿는 사람이 모두 왕 노릇을 하면 총리는 누가 하고 장관은 누가 하지? 백성은 누구지?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감을 가리킨다: 땅에서 왕 노릇 할래? 천국의 문지기 할래? 같은 뜻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문지기면 어떻게 왕이면 어떤데? 이 땅에서 왕에게 시달림을 받던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영광스런 임재 앞에서 날 괴롭히던 자들을 상대로 짜잔한 일을 하고 있을 겨를도 없다. 하나님 앞에 아무 거리낌 없이 나아가서 찬양하며 함께 교제하는 것이 왕 노릇보다 못할까? 아니 그것을 왕 노릇이라고 표현하면 무리인가? 왕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장차 임할 행복한 그 모습을 왕 노릇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장차 그런 날이 오겠지만 이 땅에서도 진정한 평강을 맛볼 수 있어야 한다.

19. 어린 양을 찬양(9-10)하는 이유 세 가지로 요약해보자.

죽임 당함, 피로 사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분이 자발적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새 노래가 필요한 것이다.

20. 4장에서는 찬양이 두 번 나오지만 5장에서는 세 번 나온다. 단순하게 횡수만 많아진 것이 아니다. 찬양의 주체를 비교해 보아도 큰 차이가 있다. 4장이 중창 정도라면 5장은?

혼성 합창(네 생물과 장로들) 연합찬양단의 합창(천사들) 모든 만물로 구성된 우주적 합창

21. 찬양의 대상은 누구인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됨을 잘 나타낸다. 5장에서는 강조점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에게 있다(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외로 찬양의 대상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개인적인 관중이나 신자의 삶에 관한 찬송이 대표적이다. 간접찬양이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있어야 한다. 헌금시간에 '내 너를 위하여... 너 무엇 하느냐'는 찬송을 부른다면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다. 도대체 얼마를 바치라는 말인가?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헌금 몇 푼을 위해서 '몸 버려 피를 흘렸다'는 말인가? 이 찬송은 헌금 시간에 부를 찬송이 결코 아니다.

22. 찬양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가지 내용은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의미한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분에게 적합한 표현이 있을 리 없지만 이렇게라도 찬양해야지!

23. 5장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어린양이 보좌로부터 책을 취하심(8): 그리스도께서 우주를 다스릴 권세를 받으셨음을 상징한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로마황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모든 만물의 찬송이 뒤를 잇는 것이다. 계시록을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지 명백해지는 것이다. 복음은 바로 예수에 의해서만 밝혀지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나님의 승리는 예수의 낮아지심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았다. 어린양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셔야 했다. 우리는 성령의 주어짐, 인도하심, 충만함이 필요하다.

요한계시록 6 장(+7장)

마 24, 막 13, 눅 21, 속 6 을 참조하시기 바람

1. 계시록이 두려워서 읽지 못하겠다는 성도도 있더라.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두려움을 주려고 이 계시를 주셨을까? 계시록이 총 22장이지만 재앙에 관한 내용은 겨우 4장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6, 8, 9, 11:15-19, 16). 재앙이 주된 내용이 아니다. 성도에게는 심판이 없다. 그러면 성도는 계시록의 재앙을 어떤 자세로 읽어야 할까?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 고센 지방의 이스라엘처럼: 10가지 재앙 중에서 처음 세 가지 재앙은 함께 겪었지만 이후에는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 애굽의 병사들이 홍해에 수장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가에서 소고 치며 춤추며 뛰놀았다. 앞으로 있을 재앙도 그런 기본으로 맞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6장과 7장은 따로 떼지 말고 붙여서 읽든지 공부하든지 해야 한다.

2. 연극을 시작할 때는 보통 장을 친다. 영화를 시작할 때는 벨을 울리고. 로마에서 '오라'는 말도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 것 같다. 언제 사용되었는지 상상해 보자.

원형 경기장에서 경기의 시작을 알릴 때: 비슷한 모습을 방송 프로그램에서 가끔 볼 수 있다. 사회자의 구령에 맞춰서 방청객이 함께 소리 지르는 구호와 닮았을 것이다. 원형 경기장에서 경기의 시작을 알리는 이 소리는 필박을 받던 성도들에게는 끔찍한 외침이었을 테지만 심판 때가 되면 거꾸로 하나님에 의해 심판이 시작되는 구호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3. 두루마리의 내용이 언제 계시될까? 본문에 등장하는 말(각종 재앙)과 계시의 내용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두루마리의 내용은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계시록의 대부분은 두루마리의 내용이 아니라 인을 떼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 말들과 그 탄 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일은 계시 자체가 아니라 예비적인 징후일 뿐이다.

4. 네 종류의 말과 그 탄 자가 행하는 일에서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들의 활동이 제한적이거나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이루어진다: 네 말의 정확한 의미는 잘 알 수 없다. 그냥 개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뿐이다. 온 세상을 휘젓고 돌아다닐 세력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일정한 범위와 통제 아래에서 자신의 말은 일을 수행하는 점이다. 1은 면류관을 받고, 2은 허락을 받고, 3은 해치 말라는 명을 받았고, 4는 4분의 1만 해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5. 네 종류의 말과 그 탄 자가 행하는 일을 해석하는 데에는 전체적인 문맥을 살피는 방법과 말의 색깔이 주는 의미를 살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말과 탄 자의 의미를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

문맥에 따르면: 네 종류의 말이 하나님의 제한된 허락을 받아 이 땅에 심판을 행하는 것이므로 전쟁의 상징, 혹은 패권주의로 볼 수 있다. 마 24장과 연결해보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기도 하다. 전쟁이 아니라고 해도 회사나 학교나 어디서든 이런 류의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곳에서 맞서 싸워야 하나, 모든 것을 양보하고 물러나야 하나? 싸워야 할 때는 싸우되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해야 한다. 쉽지 않은 싸움을 싸워야 한다. 결국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것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시를 위한 과정일 뿐이다.

색깔의 의미에 따르면: 흰색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상징한다(계 19:11-16). 이긴다는 표현과, 면류관은 복음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무난하다. 시 45편에 말을 타고 활을 당기시는 메시야의 모습도 있다. 전쟁과 기근, 사망의 고통이 엄습해 올지라도 그 앞서 복음이 이기고 이겨 궁극적인 승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19:11 이하에서도 예수님의 승리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나 7:2절의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네 천사'라는 표현을 참고하면 이런 해석에는 우리가 따른다.

6. 본문을 다음과 같이 마태복음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자.

- 1) 첫째 인(2) 마 24:6
- 2) 둘째, 셋째, 넷째 인(3-4, 5-6, 7-8) 마 24:7-8
- 3) 다섯째 인(9-11) 마 24:13-14(고난 받는 교회의 모습은 24:9-12)
- 4) 여섯째 인(12-17) 마 24:29-30

여섯 개의 환상 모두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마 24장, 막 13장, 눅 21장)과 순서까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복과 투쟁, 식량 부족과 사망이 이어지지만 끝은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다(마 24:6, 8). 흔히 '난리와 난리 소문'이라는 구절을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 오해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처음 네 인이 떼어질 때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사건들은 사실상 역사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다. 네 명의 말 탄 자들은 그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말을 타고 이 세상에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7. 네 종류의 말과 그 탄 자가 행하는 일에 대한 해석은 첫째가 제일 의견이 구구하지만 나머지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는 셈이다. 두 번째 붉은 말과 탄 자는 어떤 재앙을 의미하는가?

땅에서 화평을 제함, 서로 죽이게 함, 큰 칼 등은 피흘림을 의미함: 단순한 전쟁을 의미하기보다는 초대 교회의 박해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이 글을 쓰는 목적과 통한다. 이런 박해도 구원 역사의 완성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셈이다. 여기서 죽인다는 것은 *kill*이 아니고 *slaughter* (도살하다)란 의미로 어린양이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단어이다. 큰 칼 역시 전쟁용 검이 아니라 짐승을 잡을 때 쓰는 칼을 가리킨다. 따라서 전쟁처럼 대등하게 싸우는 피흘림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피흘림이다.

성도에게 가해지는 이런 핍박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에서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환난 가운데서 도피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를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8. 검은 말과 탄 자는 해석이 가장 분명하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에 해당하고, 밀 한 되라고 표현한 양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되가 아니라 한 사람의 하루분 식량을 가리키는 표현이다(세 홈 정도). 정상 가격의 10배를 넘는 가격이다. 지금 식으로 말하면 하루 일당으로 밥 세 공기밖에 살 수 없다는 말이다. 보리밥은 아홉 공기. 그런데 저울은 왜 들고 있을까? (레 26:26 참고)

공평한 분배나, 정확하게 주고 받아야 할 필요 때문: 정확하게 달아서 사고팔거나 양식과 물을 저울에 되어서 먹어야 할 만큼 인심이 사나워질 것을 말한다. 흑심한 기근이 있을 것이다.

9. 밀과 보리는 가격이 폭등하지만 감람유와 포도주는 정상으로 거래가 될 모양이다. 이것도 재앙인가?

밀과 보리는 가난한 자의 양식이지만 감람유와 포도주는 부자들의 기호식품이다. 결국 가난한 자가 더 큰 아픔을 겪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닥쳐온 IMF는 가난한 자를 더 고생하게 했지만 있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멋진 세상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초대 교회의 상황에서 이런 굶주림은 특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성도들에게 극심한 고통이었다. 부익부, 빈익빈은 재앙이다.

10. 청황색은 누르스름한 녹색으로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모습이다. 전쟁(검)과 기근과 사망(온역, 겔 14:21, 계 2:3)의 공포가 땅을 뒤덮을 것을 암시하는 셈이다. 초대 교회 당시에도 이런 전염병이 돌거나 전쟁이 나면 항상 가난하게 살았던 성도들이 먼저 피해를 입었다. 언젠가 굶어 죽어 가는 어린아이를 뒤쫓는 독수리 사진이 세상을 경악케 한 적이 있다. 본문에 그런 표현이 있다면?

땅의 짐승으로써 죽이더라(8): 음부가 뒤를 따르더라는 표현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을 총괄하는 표현이라고 본다.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짐승이 된다면 이것이 가장 심각한 상태이다. 짐승이 설치면서 사람을 해친다는 것은 땅이 심각하게 황폐화 되었다는 증거이다.

11. 계시록이 누구를 위하여 기록되었음을 짐작케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자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그렇게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으며 이런 고통이 잠시 더 계속되어야 할 것임을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들고 있는 욕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지 자신이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12번에서).

12.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어떤 장소에 서게 되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할까?

제단 아래(9): 이곳은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뿌리는 장소이다. 이 땅에서 순교한 자는 하늘나라에서 제단 아래에 서게 될 것이다. 영광스럽게 피를 뿌렸음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뿌려진 짐승들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곳에서 성도들이 서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실 수 있겠는가? 가장 효력있는 기도는 예수께서 피를 흘린 곳(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다.

13. 앞서 간 순교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잠시 쉬고 있다: 두루마기 한 벌 얻어 입으려고 목숨을 걸었나? 이 옷은 어린양의 피로 세탁한 옷이다. 단순한 옷 한 벌이 아니다. 이 한 벌의 흰옷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 표이다. 승리의 상징, 순결의 상징, 영광의 상징이다. 이 땅에서 패배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광의 승리자로 대우하고 계신다.

14. 앞서간 순교자들은 무엇 때문에 순교했다고 묘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한 죽음 때문: 핍박이 닥쳐오는 때에는 자신의 인간성이 나빠서 고난을 받는 영터리 그리스도인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기적이고 자신이 어리석어서 욕을 먹는 영터리 수난자가 너무 많다.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듣는 욕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순교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협조적이지 않다. 말하자면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서 신앙에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은 일찌감치 버리는 것이 옳다. 세상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적대적이다. 신앙이란 개개인이 바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연합해서 세를 과시하는 것은 부수적인 일이다. 그렇게 해서 제도를 고치려는 노력은 하되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15. 하나님께 신원하고 있는 그들의 요구가 타당한가?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 하신 예수님의 기도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행 7:60)라는 스테반의 기도와 비교하면 잘못이 아닌가?

개인적인 원한을 풀어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기다리는 것이다: 예수님이나 스테반의 기도는 핍박자들의 회개를 위한 것이지 궁극적인 심판까지 면제해 달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어지는 대박해 때의 순교자들의 말에서도 개인적인 원한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순교한 그들이 여기서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탄원할 리는 만무하다.

16. 순교자들이 이렇게 간구하면 바로 들어주시면 좋을텐데 왜 더 많은 동무들과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기를 기다리라고 하시는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교회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다. 그런 과정에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기는 하겠지만 좀 기다려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청이다. 실제로 박해기간을 통해서 적지 않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했지만 마침내 복음이 로마를 정복하고 순교자들의 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17. 여섯 째 인이 떼어질 때는 자연계가 힘을 잃어버리는 현상이 묘사되어 있다. 자연계에도 엄청난 힘이 작용하면서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다. 천막이 팽팽하게 당겨진 줄에 의해서 튼튼하게 서 있는 것과 같다. 어느 날 이 힘이 빠지면 자연계도 허물어지는 천막같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현상이 성경의 여러 곳에 나타나 있다(사 13:9-11, 사 34:4, 겔 32:7, 슥 1:14-18, 율 2:31-32, 마 24:29, 막 13:24-25, 눅 21:25-38, 벰후 3:10-13). 어떤 경우를 말하는가?

여호와와 심판 날에: 천체에 작은 이변이 일어나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 조상들은 번개가 있을 징조라고 말했다. 성경은 천지개벽할만한 새로운 시대,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가 되었다는 말이다. 13절의 ‘선 과실’이란 설익은 과일이란 말이다.

18. 엄청난 자연의 변화에 대해서 놀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파와 자주자들이다’(6:15). 이들과 계시록의 독자들과는 어떤 관계인가?

가해자와 피해자: 핍박을 가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이다. 이들을 표현하는 다른 말이 있다면? 땅에 거하는 자들(10)이다. 우리는 이 부분을 대충 읽어버리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각각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되새기며 한 글자, 한 글자씩 또박또박 읽었을 것이다. ‘우리를 그렇게 박해하더니 죽어봐라’ 하면서.

19. 놀라고 두려워하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파와 자주자들’ 중에(15) 핍박 받던 성도들의 입장에서 제일 알미운 자는 누구일까?

아마도 종일 것: 핍박자들의 하수인으로 핍박하는 일을 직접 시행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자기도 종인 주제에 악한 주인을 등에 업고 성도들에게 고통을 안긴 자들이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에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것이다.

20. 가장 어색한 구절을 하나 찾아낸다면?

어린양의 진노: 어린양에게 이빨이 있나, 힘이 있나, 위엄이 있나, 지혜가 있나(사 53)? 그런데 세상의 군왕들이 두려워 떨다니... 만주의 주가 어린양으로 나타나니 정말 어린양인 줄 알고 까불었지?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이다. 우리의 삶도 어린양 같은 삶이어야 한다. 힘이 있되 힘 있는 사자처럼

살 것이 아니라 자존심도 버리고 어린양처럼 살자. 못나서 약한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

21. 바위가 굴러 떨어지면 피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 사람들은 산과 바위가 자기들 위에 떨어지라고 소원하고 있으니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산과 바위에 눌리는 것보다 보좌에 앉으신 그 분 앞에 드러나는 것이 더 무섭기 때문이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이다. '그 때에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호 10:8)

22. 6개의 인이 떼어지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한 가지만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어느 것이며 어떻게 다른가?

배경으로 보면 1-4, 6번 째 인 = 땅에서 될 일 5번 째 인 = 하늘의 일

시기상으로 보면 1-5번 째 인 = 당시의 현상과 관련이 있다 6번 째 인 = 종말에 있을 일.

23. 6장의 말씀이 당시의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주었는지 두,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보자.

닥쳐오는 많은 고통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고통의 크기, 기간 등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다.

자신들의 고통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선배들이 있다. 나의 이 아픔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특히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왕들과 권세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날이 온다.

24. 계시록에 대한 해석방법은 과거해석법, 역사해석법, 미래해석법, 이상주의해석법 등이 있다. 과거해석법은 과거에 있었던 개별 사건과 연결시키는 것이고, 역사해석법은 교회사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것이며, 미래해석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후에 나타날 일들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것이고, 이상주의해석법은 시적이며 상징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그 말씀이 주어진 공동체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으면서 동시에 먼 훗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하는 방법을 거쳐야 한다. 6장의 내용을 그런 원칙에 따라 정리해보자.

온 세상을 말 탄자들이 휘젓고 다니겠지만 어린 양의 손 안에 있는 일이다. 전쟁이 터지고 박해가 뒤따르고 경제난과 질병, 죽음이 다르지만 우리들을 향한 순교자들의 탄원이 있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종내에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

총담(總談): 검은 염소털로 짠 자루나 머리에 쓰는 천

요한계시록 7 장

1. 7장의 내용은 6장의 사건이 끝난 다음일까? '이 일 후에'라는 표현이 그렇게 들린다. 그러나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를 찾아보자.

6장은 '땅을 해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7장에서 땅이 아직 해를 받지 않았다(3).

6장 끝에 나오는 여섯째 인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수반되는 사건들이다. 재림과 함께 세상은 끝난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땅을 해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7장이 여섯째 인 재앙 후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요한이 본 것이 이 땅에 일어나는 순서대로가 아님은 확실하다. 최소한 하나님의 인을 치기까지는 땅을 해하는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3).

2. 7장은 쉬어가는 페이지처럼 6번째 인 재앙과 7번째 인 재앙 사이에 들어온 삽입된 이야기이다. 6장은 재난이 시작됨(혹은 재난의 개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8장에는 세상에 쏟아지는 재난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면 7장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 어쩌면 요한이 계시록을 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런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 큰 환난을 통과하고 나면 누릴 복이 있다. 따라서 6장이나 8장의 이야기에 주목하기보다는 7장에 주목해야 한다.

계시록에는 몇 가지 재앙이 있을까? 7가지 인 재앙뿐이다. 나팔 재앙이나 대접 재앙은 인 재앙에 포함된, 세부적인 설명인 셈이다. 마치 잡은 고기 배 속에 또 다른 고기가 들어 있는 것처럼. 나팔 재앙이나 대접 재앙에 과도하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3. 7장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떤 그림을 몇 장으로 그릴까?

두 장, 인을 들고 나타나는 천사의 그림(도래할 환난, 땅의 모습),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서 찬송하는 장면(환난 후의 영광, 하늘의 모습): 더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을 압축해서 표현한다면 대비되는 장면을 두 장으로 그리면 좋겠다.

천사의 그림에서 빠트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을 든 천사의 모습이다. 하늘의 모습에서는 당연히 어린양과 성도들의 모습이 강조될 것이다. 어쩌면 제대로 된 화가는 은근과 끈기로 144,000 명을 정확하게 그릴 지도 모른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면 그렇게 정확하게 그리는 것이 화가의 무서움이다.

4. '인을 맞은 사람은 재앙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요한의 독창적인 작품일까?

아니다: 이런 예외적인 조치는 애굽 전역에 재앙이 내릴 때의 고센 땅, 유월절 문설주의 피, 겔 9:1-6에도 있다. 대홍수 재난에서 노아를 구하신 것이나 이사야의 남은 자에 대한 구상은 하나님의 작품이지 요한의 작품이 아니다. 이 계시록과 비슷하게 보이는 많은 묵시록 가운데서 유독 요한계시록만 정경으로 채택이 된 이유이기도 하다. 하나님께 직통으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의 계시가 성경과 일치하는지 먼저 살펴 보아야 한다.

애굽의 장자가 죽는 형벌은 바로가 히브리 사내아이를 죽인 일에 대한 보응이다. 성도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날에는 분명하게 갚으신다는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5. 다가오는 박해를 예감하는 성도들에게 본문은 어떻게 위로를 주었을까?

1) 바람과 땅과 바다를 해하는 천사들마저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1-3): 환난 가운데에서도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믿음이다.

2) 인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해할 수 없다(3): 많은 고통과 죽음이 닥친다 해도 그것이 성도를 해하는 것이 될 수 없다. 인을 맞다는 것이 재앙에서 아예 면제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은총을 덧입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바람이다. 결코 도피하여 세상을 등지고 고고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니다. 휴거를 강조하는 것이 그렇게 성경적이지 못할 위험이 있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하리라는 것이지 그렇게 이 땅의 환란에서 피하여진다는 뜻은 아니다.

3) 나 혼자만 이런 수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동료가 있다(4, 14):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경주를 릴레이로 묘사한다(히 12:1-3).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며 약속을 받지 못한 그들이 우리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으니 더 잘 뛰자고 권한다. 잘 뛰어간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더 잘 뛰자는 말이다.

4)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9): 단순한 흰 옷 한 벌이 아니다. 이 옷은 무엇으로 만든 옷일까?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어떤 옷을 입고 살까? 비단? 삼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만든 옷이다. 이 한 벌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을 치르셨는가!

5) **큰 소리로 찬양함(10):** 구원에 대한 감격이 넘치는 찬양을 큰 소리로 부른다. 월드컵에 응원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기쁨과 찬양이 넘친다. 큰 환란을 겪고 피로와 고난에 찌든 모습이 아니다.

6) **하나님의 보좌 앞, 성전에 거함,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김(15)**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합부로 성전에 나아올 수 없었다.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죽음을 면치 못했다. 그만큼 유대사회에서 성전은 성스러운 곳이었다. 유대인이라도 성소, 지성소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그 분 앞에 친히 나아가 밤낮으로 그 분을 뵈올 수 있다는 감격을 표현하는 말이다.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합부로 그 앞에 나아가지 못한 것이 얼마나 한이 되었던가!

밤낮 하나님을 섬기면 언제 잠을 자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앉아서 '이대로 영원히 있었으면....' 혹은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경험이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 천국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7)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심, 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상하지도 아니하며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15-16):** 천국은 어차피 이런 류의 고통이 없는 곳이다. 뜨거운 해 아래에서 수난을 당한 성도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다.

6. 해를 받지 않을 이스라엘 백성 144,000과 바로 뒤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같은 무리일까, 다른 무리일까?

같은 무리: 이스라엘인 144,000을 다른 말로 하면 각 나라에서 나온 셀 수 없는 무리다. 복음이 전해지면서 유대인만 특별 대우한 예가 없다. 더구나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는 모든 사도들은 순교한 다음이다. 이미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널리 퍼진 때에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해서 볼 이유가 없다. 혈통적 유대인의 의미가 사라져 버렸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다(갈 3:29, 롬 2:28-29, 빌 3:3).

7. 천국의 정원은 144,000명인가? (O, X)

X: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144,000은 12×12, 즉 완전수를 제공하여 완전함을 강조한 의미라고 보는 것이 옳다. 하나도 빠짐이 없는 전체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숫자로 해석하여 이 외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이비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

8. 144,000명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이비들이 말씀을 많이 부렸다. 구원받는 무리의 총합이 144,000명만이 아니란 증거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만 144,000: 각 지파 별로 똑같이 12,000명이라는 것은 이것이 상징이라는 증거이다. 민수기나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장 인구가 많은 지파는 항상 유다지파인데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차이가 많이 난다. 정상적이라면 같을 수가 없다. 구약의 12지파와도 같지 않다. 단, 에브라임 지파가 없고 대신 요셉지파가 들어온 것이나 사라진 시므온 지파가 들어온 것도 그렇다. 예전에 어느 사이비 종파에서 자신들만이 144,000에 들어간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더니 추종자가 그 숫자를 넘어서자 더 이상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

9.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는 야곱의 12아들에서 유래된 것이다. 1) 이름이 보이지 않는 아들이 있는가? 2) 아들이 아닌데 이름이 있는 경우가 있는가? 3) 말이가 르우벤인데 여기서 왜 유다가 제일 먼저 나올까?

1) **보이지 않는 아들:** 단.

2) **아들이 아닌 자:** 므낫세.

3) **유다가 먼저 나오는 이유:** 창 49에는 장유유서지만 여기서는 메시아가 출생한 유다가 제일 먼저 나온다(5:5). 메시아 왕국에는 유다의 비중이 커졌다. 르우벤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고,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성에서 유흥남자극을 벌였고 유다는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갈 때 공을 세웠으며 출애굽 때 항상 선봉부대였다.

여호수아 시대에 요셉지파는 므낫세, 에브라임 두 지파로 나뉘어졌다. 요셉지파가 있는데 므낫세 지파가 있다는 것은 중복이다. 단 지파는 사라졌다. 그러므로 이 지파 목록은 실제 이스라엘의 12지파 목록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끌어다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10. 10절의 찬양은 복음송에서 많이 불려지고 있다. 12절의 이 찬양은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데 어디서 보았더라? 누구에 대한 찬양이었더라?

4. **5장에서:**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 거의 같은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하고 어린양에게 드려지기도 한다. 하나님과 어린양은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다. 헨델의 메시아 중에서 마지막,

53번 곡 '죽임 당하신 어린양'을 가사와 악보를 준비해서 꼭 감상해보자. 이런 곡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얼마나 불행할까?

11.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라고 표현한다. 또, 이 큰 무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다.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표현으로 바꾼다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음(창 22:17)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큰 무리: 땅의 모든 족속(창 12:3)

결국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신 것을 완벽하게 이루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2. 다음 중 어느 것이 가장 감격스러운가? '큰 소리로 찬양함(10), 하나님의 보좌 앞, 성전에 거함,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김(15),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심, 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상하지도 아니하며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15-16)'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김: 이 모든 것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과 함께 거함'이다. 다른 것들은 이것의 결과인 셈이다. 예수님이 목자라면 자신은 목견(牧犬)으로 충성하다가 훗날 '수고했다'는 말 한 마디 듣기를 원한다는 분이 계셨다. 이 분은 아마 '눈물을 씻어주심'에 한 표를 던지지 않을까?

13. 피에 옷을 씻으면 결코 흰색이 되지 않는다. 상징적인 표현이다. 어린양의 생명을 희생하여(피에 씻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희게 씻겼다)는 뜻이다. 다른 어떤 것으로는 결코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행 4:12). 그런 상징으로 사용되었기에 '피에 씻은 흰 옷'이란 이상한 표현이 나온 것이다. 그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표현이 또 있다면?

어린양이 목자가 되어서(11): 양은 목자 없이 단독으로 살 수 없다는데 어린양이 이끄는 양 떼는 앞날이 밝다? 이것이 성경의 역설이요, 힘이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원수를 이길까?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달 정도로 무력한 자가 어떻게 지도자 노릇을 할까? 힘으로 사람을 얼마간 누를 수는 있으나 결국은 안 된다. 찬송하리로다! 힘없고 연약한 어린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어린양으로 찾아오셨지만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들 중에는 어린양은커녕 사자보다 더 무서운 분들이 가끔 있는 것이 큰 문제다. (보좌 가운데 있는 어린양'이란 표현도 정답의 가능성은 있다)

14. 미국은 인종전시장이라고 불린다. 서로 다른 온갖 종족끼리 어울려서 살아가는 곳이라는 말이다. 런던도 마찬가지다. 이런데서 자란 사람들은 다른 인종과 어울리는 것이 쉽겠지만 한국 사람은 좀 어렵겠다. 단일민족이라는 것이 앞으로 장애거리가 되지 않을까? 무얼 보고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을까?

천국은 인종전시장이다(9): 외국인과 쉽게 동화되지도 않고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을 좀 이상하게 보는 한국 사람의 태도는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쉽게 손을 내밀기 어려운 단점일 수도 있다. 이런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닐까? 인종간의 편견을 넘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는 날이 바로 그 날일 것이다.

사도신경의 '거룩한 공회'라는 고백은 '모든 교회는 하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빈부의 차이도 학식의 차이도 인종간의 차이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시되어야 한다. 잘 생기고 못 생기고, 능력이 있고 없고를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우리와 하나 되기 원하셔서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는데 누구와 하나 되지 못한단 말인가!

< 이스라엘의 12 지파 >

창 49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잇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겔 48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	베냐민	시므온	잇사갈	스불론	갓
계 7	유다	르우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잇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요한계시록 8 장

1. 일곱 나팔을 받은 천사가 등장하여 재앙이 시작되려는데 금향로를 가진 천사의 이야기는 왜 끼어놓았을까?

재앙 가운데서라도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7장이 삽입된 이유와 동일하다. 땅에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있는 반면에,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로 올려 드리는 천사도 있다. 7장에서 인을 치는 것은 성도가 재앙이나 환난을 이기는 주된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지만 8장에서는 성도를 편에서도 기도라는 승리의 원인자가 있음을 보여준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고 땅에는 성도의 기도가 있다.

계시록을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심판과 재앙을 연상한다. 왜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기억할까? 요한이 독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7, 8장에서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한 관심만이 우리와 상관이 있다.

2.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의 현상이 다른 인과 비교하여 가장 큰 특징은?

고요함: 다른 인이 떼어질 때에는 '오라'고 하는 우레 같은 큰 소리가 났다.

3.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는 결코 조용한 곳이 아니다. 끊임없는 찬송이 울려 퍼지는 곳이며 재앙 때마다 우레같은 고향소리가 터지는 곳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요해질까?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기 때문: 성도의 기도는 엄청난 위력을 지녔다.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는 하늘나라의 찬송마저 중지하고 하나님께 들려지는 것이다. 자신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는지 어떤지 의심이 들기도 했을 것이다. 그런 기도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소중한데 들려지는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4. 본문을 근거로 하면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들려지는 향이다? (O, X로 대답)

(X) 향이 아니고 향과 함께 들려지는 것이다(3-4):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 자체는 하나님께 바로 들려지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제단에 바쳐진 향과 함께 들려지는 것이다. 이 제단에 들려진 향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들려지는 것이다. 서양 사람들의 기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말이 붙어있지 않다. 어쩌면 한국 사람만이 애용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얼마나 아름답고 감격스런 표현인가! 얼마나 소중한데 금향로에 담아 제단에 들려지는가! 5:8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넓게 보면 성도의 기도는 향과 함께 들려지는 것이니 향이라고 할 수도 있다. 본문은 그것을 더 세밀하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며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요한의 이 글은 어떻게 위로가 되었을까?

자신들의 기도가 엄숙하게 하나님께 상달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벌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바로 그 천사가 이 땅에 불을 쏟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장면이다(5).

6. 성경에서 나팔의 용도는 무엇이였을까?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나팔은 어떤 용도일까?

경고와 예비: 심판에 대한 경고, 전쟁에 소집, 전쟁 개시, 구원(희년)의 선포, 여호와와 날의 도래, 그리스도의 재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7. 첫 번째 나팔이 불매 땅의 삼분의 일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삼분의 일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7)고 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이런 경고가 하나의 비유처럼, 상징처럼 들렸을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눈으로 목격되는 현실이다. 이런 예를 든다면?

인간이 저지르는 행위로 인한 자연재해는 일부 제한된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무차별적인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 방사선 낙진, 전쟁으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 산성비로 인한 자연 파괴 등이다. 우리 어릴 때는 눈이나 비를 맞고 다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제는 대머리 되기 십상이다.

8. 두 번째 나팔은 바다에 대한 재앙이다. 인간의 잘못으로 바다는 어떤 재앙을 당하는가?

적조현상, 기름유출: 바다에 치명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고 있다. 한 두 사람의 실수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려면 수 만명의 사람이 동원돼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유조선 한 척이 사고를 일으키면 곧바로 끔찍한 재앙으로 이어진다. 과거에는 사람이 실수를 해도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실수는 거의 없었다.

9. 세 번째 나팔은 강과 물샘에 대한 경고이다. 사람들이 물을 어떻게 망쳐놓았는가?

강물의 오염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지하수의 오염이다: 지표가 아무리 오염되더라도 지하에는 맑은

물이 흐르는 것이 정상인데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무수히 구멍을 뚫어놓고 하나만 관리를 잘못하여 오염이 되니 들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되는 것이다. 땅 속 몇 백 미터 깊은 곳은 자연 그대로는 절대로 오염이 될 수 없는 공간이다. 그러나 구멍을 뚫어서 하나만 그냥 방치해 두면 지하수 오염이라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다. 고칠 능력은 없으면서 부수는 재주만 있어서...

10. 네 번째 나팔에 해, 달, 별의 1/3이 흐려졌다고 한다. 지금 당장 그런 현상을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 현상이 닥칠 수도 있을 것이다. 별이 흐려진 것이야 오래 전의 일이다. 어쩌면 대기 오염에 대한 경고가 아닐까? 각설하고, 4가지 재앙 전부를 포괄하는 제목을 단다면?

자연계에 대한 부분적인 재앙: 부분적이라는 것에 주목해야한다. 나중에 진짜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는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11. 들이킬 수 없는 자연에 대한 재앙은 어쩌면 기고만장해 있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란 증거는 무엇인가?

삼분의 일만 파괴됨

12. 이왕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는 자연생태계라면 우리는 굳이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환경운동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최후의 그 날까지 인간의 오만함으로부터 자연을 지키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런다고 우리의 힘으로 지켜지지 않을 테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자연을 지키자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고 있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다. 자연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자연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경고임을 알게 해야 한다.

13.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 화, 화로다. 아직도 불나팔이 셋이나 남았도다’라고 외친다. 우리에게는 끔찍한 이야기인가 아무렇지도 않은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렇다는 말이다. 우리는 땅에 거하는 자가 아닌가? 요한은 계속되는 재앙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최후의 종말이나 징조에 그리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아버지가 들고 있는 칼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한 때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라면서 ‘1999년 지구 최후의 날’이란 책이 세상을 요란하게 했던 때가 있었다. 세상이 뒤집히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릴 이유가 없다.

14. 8장에 묘사된 상황은 당시 입장에서 보면 예언이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현실이라고 보아야 한다. 현실의 모습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그려져 있는데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현실과 비교하면 틀린 것 아닌가?

물질문명의 발달이 결코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재앙이 더 커지고 있다. 사람들은 문명의 발달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지금 인류는 과거보다 더 행복할까? 아니면 문명이 발달하면서 더 고통스러워지고 있는 것일까? 과거의 고통은 대부분이 먹는 문제이었다.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의 고통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먹는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그보다 더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대형화, 잔혹화 하는 경향을 띠면서.

계시록의 재앙은 세상에 속한 자를 위한 경고이다. 그리스도인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것을 이용하여 선량한 성도를 위협하며 사육을 채우려는 사이비들에게 더 이상 관심도 틈도 보일 이유가 없다.

요한계시록 9 장

1. 1-12절의 내용을 첫 번째 화라고 한다. 이게 무슨 내용이기에 첫 번째 화라고 할까?

사탄의 출현: 이 땅에 임하는 수 많은 재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앙은 사탄의 출현이다.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인 현상이다. 진정한 화는 사탄의 출현이다. 역으로 본다면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성인신)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낮아짐은 하나님으신 그 분이 인간이 되어 내려 오셨다는 점이다. 십자가의 고통은 그 중의 일부일 뿐이다.

2. 사탄의 기원을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저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가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라고 말하는 정도일 뿐이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사 14:12)라는 말씀에 따라 하늘에서 떨어진 별(1절)이라면 사탄을 연상하게 되지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탄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다. 그의 역할은 무엇인가?

무저갱을 여는 역할: 황충들의 우두머리가 따로 있다(11)는 점에서 이 별이 사탄을 상징한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거나 조금 비슷한 점이 있다고 덮어놓고 사탄이라고 말하는 버릇도 좋지 못하다. 합부로 사탄이라고 부르는 바람에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 되어서 화해가 불가능하게 된다. 나와 좀 다르다고 합부로 이단이라고 하는 것도 극히 주의해야 할 일이다. 반면에 술 먹는 사람들의 싸움은 사람들의 싸움이어서 쉽게 화해가 된다. 나와 다르다고 합부로 하나님의 원수로 여기지 말자.

3.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단다. 누구에게 받았을까?

어린 양에게서: 어차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1:18) 그 분에게서 제한적인 허락을 받지 않고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자가 없다(욘 1:12, 2:6) 중요한 것은 이들의 이런 행동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런 자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자유의지를 남용한 인생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정책이다. 마치 자기 자식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옆집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그래서 사탄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큰 소리를 쳐대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도 이런 마귀의 태도를 인정하셨다.

4. 무저갱이란 말 그대로 바닥이 없는 깊은 굴이다. 무엇하는 곳인가?

귀신들의 감옥(눅 8:31): 지옥을 뜻하는 표현이다. 영화 제목 중에 '어비스(abyss)'가 있거나? 심연을 가리키는 말이다. 아마 바닷속 깊은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주제로 삼은 영화인 것 같은데?

5. '큰 풀무의 연기같은 연기'를 현대의 표현으로 고친다면?

원자폭탄의 버섯구름이나, 화산 폭발의 구름: 당시의 표현으로는 가장 큰 연기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해와 공기의 오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력의 큼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점에서 이 세상은 사탄이 일정한 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곳이다.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듯이 사탄의 어두운 기운이 서려 있는 곳이다. 그런 곳에 사는 성도라도 사탄의 세력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4).

6.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은 어두움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다. 똑바로 바라볼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뜨거운 태양 빛을 가려주기 위해서 때로는 구름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셨다. 반면에 사단은 어떻게 등장하는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연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속성은 빛과 생명인데 반해서 사단의 속성은 어둠과 죽음이다.

7. 황충이란 메뚜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에게 메뚜기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어릴 때 놀잇감이기도 하고 도시락 반찬이기도 했다. 어른들에게는 비싼 안주감이기도 하다. 우리에게는 한 종류 밖에 없지만 중동지역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 모양이다. 이 메뚜기가 어떻게 재앙이 될까?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아는 대로 이야기해보자. 요엘 1장의 네 종류 팻종이, 메뚜기, 누, 황충은 전부 메뚜기 종류이다.

불보다 무서운 재앙은 물이다. 불은 지나가도 남는 것이 있지만 물이 지나가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물이 지나가면서 남긴 것이 있다면 메뚜기가 지나가면 그것마저도 없다. 식물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잡아버린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메뚜기 재앙이 결코 실감이 나지 않는다. 영화 '십계'에 메뚜기 재앙이 실감나게 그려져 있고 펄벅 여사의 '대지'에도 메뚜기와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집에 구멍을 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구멍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모조리 잡아버리기 때문에 집이 사라진다고 하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여기 메뚜기의 묘사는 요엘서의 재앙에 대한 업그레이드판이다.

8. 여기 메뚜기는 진짜 메뚜기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보자.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을 해하지 않는다(4): 메뚜기의 피해 대상이 사람이라는 것은 이 황충이 영적인 존재임을 가리킨다. 이제까지 있었던 재앙과는 달리 인간에게 직접 고통을 준다.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화라고 하는 모양이다(12).

9. 전갈이 쓰는 아픔이 어느 정도일까? 쓰인 적이 없어서 모른다고? 본문에서 짐작케 하는 말은?

죽기를 구할 정도(6): 이것도 꺾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렵겠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고통을 겪은 사람에게 설명을 구할 수밖에... 벌이나 말벌도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 치명적일 수도 있다. 전갈이야 말할 것도 없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이 없는 사회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인간의 고통은 경감되지 않았다. 어쩌면 먹고 살기 어려워서 고통 하던 때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오늘일지도 모른다. 영혼이 당하는 괴롭고 절망이 더 큰 아픔인 것 같다. 자살하는 사람이 옛날에 현재보다 더 많았을까? 컴퓨터가 발달함에 따라 사람들의 일거리가 줄어들었을까? 고대에는 성경 전체를 외운 사람들이 많았다. 지금도 TV, 컴퓨터, 휴대폰이 다 없어진다면 그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란다. 문명의 발달을 반드시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닐 것 같다.

10. 온갖 재앙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황충이 해롭게 한 자는 이마에 인 맞지 않은 자만(4): 빈대나 모기에게 물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은 모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도 시원하게 잘 자는 사람이 있다. 기분이 참 좋단다. 말세에 사탄의 온갖 꾀계가 판을 쳐도 믿는 성도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출애굽 때 애굽 전역에 재앙이 닥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던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재앙 때부터? 혹시 메뚜기 재앙(8번째)일까? 파리 재앙(4번째) 때부터다(출 8:22). 피개이파가, 종우메혹장!

11. 황충이 어느 정도의 권세를 가졌는가?

제한적인 권세이다: 대상(인 맞지 않은 사람), 기간(다섯 달) 정도(죽지 않게)에 있어서 제한적이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사람일지라도 크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다. 불신자들의 사는 모습을 언뜻 보면 굉장히 자유로워 보인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것 같으나 자세히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더 많은 것에 구속당하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하나님 없는 자유란 '자유를 찾아서 어항을 뛰쳐나간 붕어의 자유'일 뿐이다. 마음껏 살아보고 싶어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누리는 자유이다. 점쟁이 한 마디에 사랑도 버려야 하고 특히 관혼상제 때에는 자신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미신적인 사고에 잡혀있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다. 불신 친구들이 믿는 우리를 보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할 때 진정한 재미가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12. 죽고 싶은데 죽음이 피해가는 현상이 언제 또 닥칠지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지: 황충의 세력이 일정한 범위와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만 활동하면서 죽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20, 21). 종말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큰 소리 칠 게 아니라 빨리 회개해야 한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바로 이런 날이 닥치기 때문이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죽고 싶어도 죽지 않은 채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한다. 이것을 영벌이라고 한다.

13.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줄지어 선 말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 실감이 나지 않아서 그런지 그렇게 무서워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말 대신 그만큼 크기의 메뚜기들이 줄지어 서 있다면? 이 메뚜기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 같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말보다 훨씬 더 무섭고 끔찍할 것 같다: 말 같다는 것은 속력과 힘을(가령, 엔진의 힘을 표시하는 단위로 마력을 쓴다), 금관은 왕의 위엄, 사람의 얼굴은 지혜, 여자의 머리털은 아름다움(예쁜 살인자), 사자의 이빨은 공격력, 호심경은 수비력, 소리는 두려움(적의 탱크 소리), 전갈의 꼬리는 공격력을 상징한다면 정말 무서울 것이다. 실제로 이런 메뚜기(을 2:4)와 맞닥뜨리면 엄청나게 무서울 것 같다. 세상을 휘젓고 있는 악한 영의 실체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다. 성도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지만 이들의 능력을 알고는 있어야 한다.

14. 아바돈(히)을 헬라어로 하면 왜 아볼루온(헬)이 될까? 발음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뜻을 살렸기 때문이다: 히브리어 말로 '아바돈'과 헬라어 '아볼루온'은 둘 다 파괴자라는 뜻이다. 사탄의 속성은 파괴하는 것이다. 인성을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우리가 속한 곳에서 우리는 세우는 사람인가, 파괴하는 사람인가? 인관관계를 부드럽게 하는가, 찬물을 끼얹는가?

15. 첫째 화는 다섯째 천사가 부는 나팔을 의미한다. 아직 둘이 남았단다(12). 여섯째 나팔은 13절에서 불려진다. 그러면 일곱째 나팔은 어디서 불려지는가?

11:15와 16:1: 두 개의 나팔에 대한 얘기는 잠깐이고 그 사이에 다른 얘기가 길게 삽입되어 있다. 성도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그 사이에 끼여 있는 얘기다.

16.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한다. 엄청난 재앙을 부르는 음성의 발원지가 왜 하필이면 금단 네 뿔일까? 8:3-4절을 참고해서 설명해보자.

이 금단은 성도들의 기도가 드러지는 곳이다. 그러므로 이 재앙은 성도들의 기도와 관련이 있다.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억울함을 신원하는 의미의 재앙이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재앙을 당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강조점은 박해를 당하고 있는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앞으로 이런 심판의 날이 핍박자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위로하시는 데에 있다.

일제의 박해 앞에서 일제의 멸망을 담대히 선포한 것이 결코 잘못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셨던 기도는 회개의 기회를 달라는 것이지 최후의 심판마저 면케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다. 우리 개인의 원수를 용서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원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17. 처음 네 천사의 나팔 재앙(8장)은 자연계에 대한 재앙이었다면 다섯, 여섯째의 재앙은 무엇에 대한 재앙인가?

사람: 모든 재앙의 최종목표는 사람이다. 사람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다(20-21). 자연계에 대한 재앙도 결국은 사람의 회개를 촉구하는 전단계일뿐이다. 사람이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온갖 재앙이 이 땅을 휩쓰는 것이다. 재앙의 근원지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 말이다. 자연계에 대한 재앙도 사람에게 대한 간접 재앙이라고 할 수도 있다.

18. 다섯 째 나팔의 재앙과 여섯 째 나팔 재앙의 다른 점은?

여섯 째 나팔 재앙에서는 사람이 죽는다는 점이다: 점점 강도가 세어지고 있다. 계속되는 재앙의 최종 목표가 사람에게 있다. 자연계에 재앙이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19. 여섯 째 나팔 재앙이 실제의 어느 전쟁을 가리킨다고 해석하기에 곤란한 점이 있다면?

마병대의 수(2억)가 너무 많다: 우리나라 군대가 한창 때 80만 정도였으며 지금은 60만 정도일까? 6000만 인구에 군인이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수치다. 60억 인구에 6000만 군사라면 굉장히 많은 군인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2차 세계대전에 동원된 군인들 전체가 7천만 정도였다고 한다.

말 탄 자의 역할보다 말의 역할이 더 중요함(18): 말이 사람을 해하는 일이나, 입에서 불이 나온다가 나 꼬리의 머리로 사람을 해한다는 것이 사실이라기보다는 상징으로 보게 한다. (오래 동안 그렇게 이해되었으나 오늘날 걸프전이나 아프가니스탄 공습을 보면 말 탄 자보다 말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사실처럼 보인다. 유프라테스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고대 문명의 발생지였고 세상의 중심이었지만 헬라, 로마시대가 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계시록이 기록된 이후 최근의 전쟁 양상을 목격하기 전까지 거의 2000년 동안은 단순한 상징으로 보는 것이 유력했지만 최근에 벌어지는 전쟁을 목격한 우리에게는 단순한 상징 이상의 의미가 있어 보인다)

20. 전쟁을 위해서 훈련된 말이 그렇게 두렵지 않은 것은 말 자체는 공격성이 그리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섯 번째 재앙에 등장하는 말은 어떤 점에서 공격적인가?

머리는 사자, 입은 화염방사기(17), 꼬리는 뱀(19): 말의 기동성에다가 가공할 무기마저 지녔으니... 말 탄 자보다 말이 더 무섭다.

21. 단 10장에는 천사들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전쟁을 하면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끼리 전쟁을 하는 것이다. 바로 그 천사들이 유브라데에 감금되어 있었다. 그 천사들이 놓여난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것인데 실제로 중동지역은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사람들은 게으르고, 땅은 황폐해질 대로 황폐되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랬던 중동지역이 다시금 역사의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하는 것은 어쩌면 감금되었던 천사들이 놓여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중동지역이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20세기 중반부터인데 그 때 이 지역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석유의 발견: '쿠웨이트란 나라가 있거나 있었나 싶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추구를 한다길래 웃긴다 싶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도대체 만만하게 볼 수 없는 나라더라.' 이것은 70년대에 이들 나라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이었다.

그 이전에는 석유를 약이나, 방수제로 사용했고, 휘발유는 오히려 폐기처리 했단다. 1930년 경에 중동에서 석유가 대량으로 발견되기 시작했고,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연료용으로 사용되면서 막강한 힘을 가지기 시작했다. 석유가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석유를 무기화까지 했다. 유브라데에 감금되었던 천사가 놓여난다는 표현이 20세기 이전에는 거의 무의미한 말이었으나 오늘 우리에게는 의미심장한 표현임에 틀림없다.

22.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라 부분적인 심판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무저갱에서 나온 악령들을 동원한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왜 있어야 할까?

우상숭배와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하는 자들(20-21)을 회개케 하기 위한 경고: 이 경고들 중에 가장 심각한 경고는 아마도 우상숭배와 음행일 것이다. 우상숭배는 항상 음란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대인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음행이라고 보아야 한다. 성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 에이즈가 이렇게 극성을 부리는 것도 이런 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독교가 이렇게 널리 퍼진 것 같아도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은 전체 인구에 비하면 너무나 작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은 아직도 너무나 많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벧전 3:8-9, 5:13).

요한계시록 10 장

1. 정상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면 지금은 무슨 일이 일어날 때인가?

일곱 째 나팔: 그러니까 10장은 막간에 들어온 막간극이나 에피소드에 해당하는 셈이다.

2. 힘센 천사의 모습을 상상해 보자. 구름을 입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은 천사가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았으니 바다는 태평양이고 땅은 중국이라고 상상해 보면 좋겠다. 여러 가지 묘사 중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있다면?

떠 놓인 작은 책: 하나님의 말씀은 보잘 것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온 천지를 호령하는 천사의 손에 있어야 어울릴 만큼 능력있는 것이다. 터지면 산이 날아가는 핵폭탄이나, 원기옥(드라곤 불에서)이 그 손에 있어야 어울리는데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다만 떠 놓인 책이어야 한다. 일주일에 한번 먼지 털고 들고 오는 성경은 그런 위력이 없다. 오늘부터 꼭 펴놓아야지?

3. 왜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가(4)? 요한이 무엇을 기록하려고 했을까?

왜 기록하지 않은 것에 호기심을 가지는가? 하나님께서 말씀 않으신 것에 과도한 의문을 가지는 것은 좋지 못하다. 재림의 때를 안다고 떠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는가?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서는 데에 서는 삶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알 수는 없다. 아니,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 충분하게 기록되었다고 믿는다.

4.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이라 하는가(6)?

1) 세세토록 살아 계신 자, 2) 창조자

5. 계시록에는 많은 천사가 등장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엄있고 거대한 이 천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76) 요한에게 사명을 주는 것(11) 사실은 이 일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엄숙하고 중요한 일이다.

6. 일곱 째 나팔이 불면 모든 것이 끝나는 판인데(7) 어디 가서 무얼 하라고 하시는가(11)?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해야함: 종말이 속히 임할 것이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확신해야 하고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팽개치고 심판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 종말이나 최후심판이 있다고 하는 목적은 인간에게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다. 참고로 7번째 나팔은 11장에 불려지지만 실제 내용은 16장에 가야 나온다.

7. 종말이 언제 올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많았지만 지금도 많다. 성경대로 살자.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나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지체하지 않는다(6c, 합 2:2-3):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을 기다리며 애타게 부르짖는 성도(계 6:10, 합 2:1)에게 주는 대답은 이것이다. 우리 눈에 너무 지체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대답은 여전히 이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자. 우리 생애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것은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으며 강도가 들이닥치듯이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바로 오늘이 종말인 것과 같은 자세로 살라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과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다. 성경은 그런 삶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8. 7절의 비밀과 복음은 다른 것인가?

복음이 사실은 비밀이다(고전 2:7 secret가 아니라 mystery):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비밀스럽고 크고 놀라운 일이 바로 우리에게 계시된 복음이다. 창조주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신다는 것만큼 어마어마하고도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벧전 1:12).

9. 참으로 묘한 책이다. 원래 책이란 꽃아놓고 장식하거나 읽어서 마음을 살찌우는 것인데 먹는 책이 있어?

완전하게 속달하라는 뜻: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책인가? 교회 갈 때 품만 잡는 책인가? 아니면 내 몸의 양약인가?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것은 완전하게 속달하라는 것이다. 먹는다는 것은 내 몸의 일부가 되어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안 먹는 것도 문제지만,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다. 먹기는 열심히 먹는데 소화가 되지 못한 채 빠지는 것(설사, 우유 분해 불가능)도 문제지만 몸의 일부가 되지 못한 채 빠지는 것은 더 큰 병이다(당뇨병, 칼슘 부족). 수 많은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전해준 's 말씀을 먹지도 않고, 대충 씹어 넘겨서 소화를 시키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심각한 영적 장애를 안고 있는 셈이다. 루터가 이단으로 몰리면서도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했는데...

10. 제대로 된 약은 입에 쓰고 몸에 좋은 법인데 입에는 달고 배에 쓴 것은 설탕이나 담배, 마약처럼 대체로 나쁜 것이다. 복음이 왜 이렇지? 단순하게 구원의 소식은 달고 심판의 소식은 쓰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참고 겔 2:8-3:3 겔 3:10-11)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부딪혀 오는 아픔이 있다. 핍박을 말하는 것일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딪혀 오는 핍박이나 생활의 어려움이 정말 아픈인가? 아플지라도 기쁨과 함께 오는 것이다. '날마다'라는 복음송 끝 구절에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이란 부분이 있다. 복음에는 아픔과 수고가 함께 오지만 진정한 아픔은 내가 아는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다. 복음을 받고 나면 이런 아픔이 있어야 한다.

11. 계시를 받고나면 요한은 점쟁이가 되는가? 예언하라니까!

성경의 예언은 점쟁이가 장래 일을 말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다.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고, 무슨 장사를 하면 성공할 것이고.....'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예언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것이었지만 성경이 완성된 이후의 예언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전하는 것이다(암 3:8, 벧후 1:20). 설교나 성경공부도 예언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다. 사업을 할 사람이 목사님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점쟁이 찾아가듯이 목사님께서 짚어주는 사업이면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옳바르지 못하다.

요한계시록 11 장

1. 정경을 캐논(*canon*)이라고 한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갈대를 뜻하는 히브리 글자에서 왔다는 설도 유력하다. 그러면 정경을 왜 '갈대'라고 불렀을까?

갈대가 자(척량의 도구)를 뜻하기 때문이다(1): 고대에 갈대는 척량하는 도구 즉 '자(*ruler*)'로 사용되었다. 성경이 우리 삶의 척도라는 뜻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성경이어야 한다. 내 기분, 자존심, 이기심도 말씀 앞에서 수그러져야 한다. 내 자존심이 말씀보다 세어서는 안 된다. 내 생각에 말씀을 꺾어 맞추지 말고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자.

2. 척량? 측량 아닌가?

자로 길이를 재는 것은 척량(尺量)이고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길이, 부피, 무게 등을 재는 범위가 좀 넓은 것을 측량(測量)이라고 한다. 척량보다 측량은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이다. 단어의 의미도 알아야 하지만 경상도 사람들의 발음 연습을 위해서...

3. 재야 할 것(마당)은 재지 않고 잴 수 없는 것(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재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경우에 척량하는가? 본문의 척량은 어떤 의미인가?

척량의 목적: 건축, 수리, 보호(겔 40-48장, 속 2:1-5), 파괴(왕하 21:13, 사 34:11, 애 2:8).

본문의 척량: 보호하기 위함이다. 내 백성, 내 성전은 내가 돌본다는 선언이다. 척량하지 않은 부분을 이방인에게 짓밟히도록 내어준다는 것은 역으로 척량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아보신다는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척량 지역 내에 있다는 사실은 아무런 고통도 환난도 없다는 뜻이 아니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삶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떠한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이다.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필요에 따라 이적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별다른 이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4.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멸망당하고 파괴되었다. 요한이 이 글을 쓴 때는 A.D. 95년 경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성전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

교회(성도들):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졌고 의미상으로도 예수님과 성도들로 대체되었다(요 2:19-22, 고전 3:16, 6:16). 그러니까 성전의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기도 하지만 핵심 부분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뜻이다. 예수님도 뱀에게 발꿈치는 물렸다. 발꿈치는 우리 몸의 핵심부분은 아닌 셈이다.

5. 증인, 감람나무, 촛대가 왜 들썩일까?

유효한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신 19:15). 감람나무나 촛대도 결국은 교회가 세상을 향한 증인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6. 두 증인이 무엇을 혹은 누구를 상징하느냐에 대한 견해는 아주 다양하다. 말세에 나타날 에녹과 엘리야, 혹은 모세와 엘리야,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 심지어 신약과 구약, 율법과 복음, 등등. 그러나 이 글은 환난을 눈앞에 둔 성도들과 교회를 격려하기 위하여 쓴 글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구나 척량의 의미와 연결해 볼 때 교회에 대한 상징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그렇다면 두 증인과 관계된 다음 각각의 경우가 의미하는 바를 교회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자.

1) 굵은 베옷을 입고(3): 슬픔을 상징하는 옷이다. 자신들의 역할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하는가? 비단 옷을 입고 회개를 선포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사명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잔치집 손님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이 말이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렇게 엄숙하게 애통하기만 하라는 말은 아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래야 한다. 그러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

2) 예언한다(3):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점쟁이나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설교, 전도, 성경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다. 어차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니 예언이 맞다.

3) 이 땅의 주 앞에 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4):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라고도 하고 기름을 채취하기 때문에 기름나무라고도 불려졌다. 감람나무가 촛대 옆에 서 있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다(속 4장 참고). 누가 감람나무인가? 바로 우리의 자화상이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나로 인해서 내 형제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 감람나무 말이다. 한국에도 자칭 동방의 의인이요 감람나무라는 자가 있었다.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울리고 웃기기도 하다가 갔지만.

4) 이들을 해하려 하면 자신이 해를 당하게 된다(5):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다. 내가, 혹은 교회가 진실한 신앙을 가질 때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다. 왕하 1장 사건에서 엘

리야는 왕의 노여움이 두려웠지만 그를 잡으러 오는 군사들은 엘리야가 더욱 두려웠다.

5) 증거할 동안에는 재앙으로 땅을 칠 권세를 받았다(6, 3)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의 위력을 말하는 것이다. 세상의 뒤엎어버릴 수 있는 위력이 성경말씀에는 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생각해 보라. 내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야 한다.

6) 무저갱의 짐승과 전쟁을 한다(7) 크리스찬의 삶은 더구나 교회는 사탄과 영적인 전투를 하는 곳이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탄과 대적하는 삶이어야 한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다. 언제 싸우게 되는가?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이다(7절).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은 결코 중간에서 중단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온 과정을 돌아보자. 세상 끝까지 전해질 것이다.

7) 때가 되면 죽임을 당한다(7) 역설적으로 때가 되기 전에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일시적인 무력감에 잡히거나 죽음을 당하기도 했다. 길거리마다 죽은 교회의 모습이 즐비한 곳이 지금도 있다. 그러나 복음은 여전히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

8)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서 죽음(8)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른 것이어서 죽어야 했다는 말이다. 이기적인 욕심이나 범죄함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곧 죄인들의 거하는 곳, 이 땅이다.

9) 사흘 반 동안 조롱을 당한다(9) 온 세상에서 문자 그대로 교회는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날이 길지 않다. 증인의 날은 1260일인데 그들이 즐거워하는 날은 사흘 반이다.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해서 비난받는 경우는 여기서 제외해야 한다. 칭찬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조롱과 핍박의 대상이 된 적이 더 많았을까?

10) 땅에 거하는 자를 괴롭게 했다(10) 신실한 신자는 땅에 거하는 자를 괴롭게 하는 자이다. 인간성이 나빠서 괴로움을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범죄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때문이다. 그가 전하는 복음이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인간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나로 인해 아무도 거리끼지 않는다? 내가 가진 복음이 아무도 괴롭히지 않는다? 반성할 일이다.

11) 저희의 죽음을 사람들이 기뻐한다(10)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기도 하다. 세상은 믿는 신자가 넘어지거나 교회가 넘어지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나 증인이 3년 반 동안 증거한 것에 비하면 겨우 3일 반뿐이다. 365배이다.

12) 다시 부활한다(11) 죽은 교회가 벌떡 일어나 생명력을 발휘한 사건은 어떤 것이 있는가? 로마의 박해를 딛고 일어난 로마교회, 중세의 암흑에서 일어난 종교개혁, 영국의 청교도, 현재 중국과 북한의 지하교회가 좋은 예이다. 교회는 때로는 죽은 듯 싶어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 결국은 세상을 심판한다. 그날에는 지진으로 죽고 성이 깨어져나가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영광 즐림) 떨 것이다.

13) 하늘로 올라간다(12) 교회가 힘을 잃고 쓰러질 때마다 이런 모습을 그리면서 교회는 힘을 얻었다.

이상의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삶과 아주 흡사하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이나 교회는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다.

7. 두 증인이 두 사람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교회)를 의미하는 증거가 있다면 무엇일까?

- 1) 개별적인 행동이 아니라 모든 행동을 한 사람처럼 행한다. 함께 증거하고, 함께 이적을 행하고, 함께 죽임을 당하고.....
- 2) 짐승이 이들과 전쟁을 한다: 두 사람만을 의미한다면 전쟁이 아니라 싸움이라고 표현해야 옳다.
- 3) 그들의 죽음을 온 땅의 사람들이 모두 보고 즐거워했다. 즉 온 땅에 퍼져있다는 말이다.
- 4) 촛대라고 표현한 것: 1장에서 교회를 촛대라고 말했다.

8. 본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 어떤 선지자가 보이는가?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자는 누구의 모습인가? 3년 반 동안의 가뭄(=마흔 두 달, 1260일, 왕상 17:1), 무적의 용사(왕상 18장), 불이 나와서 사르는 일(왕하 1장)은?

모세와 엘리야: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전투적인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특히 막강한 권력과 맞서 싸워야 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9. 성전이 있는 성을 가리켜 거룩한 성(2)이라 하더니 영적으로는 소돔, 애굽이요,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란(8)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이 세상: 하나님의 관심이 쏠린 곳이란 점에서 거룩한 곳이고, 일시적이라 해도 사탄의 권세가 날뛰는 곳이니 소돔, 애굽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거역하던 곳이다. 소돔은 천사의 말을, 애굽은 모세의 말을, 예루살렘은 예수의 말을 거역했다. 이곳에서 주께서 못 박히셨다.

우리가 속한 세상은 거룩한 곳이며 동시에 소돔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령,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괴롭과 죄만 있는 곳 나 어이 여기 살리까'(새찬송가에서) 이런 식의 자세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 '괴롭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찬송가)와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선명하다.

10. 2절의 42라는 숫자를 (7-1)×7, 3×14, 7×12×1/2등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많았다. 7은 완전수, 6은 부족한 수, 14는 다윗의 수(마태복음의 족보에서)라는 식으로. 144,000처럼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 무슨 기간을 나타내는 것일까?

교회의 기간: 이방인이 자기들의 영역에서 마음껏 짓밟는 기간,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를 나타내는 기간이다.

11. 핍박받는 성도들에게는 어느 구절이 가장 위로가 되었을까?

12-13절(18절도 가능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해도, 그것이 비웃음거리가 되더라도 조만간에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이다.

12. 14절은 본문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9:12과 16:1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10-11장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화가 임하는 막간에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역할이다.

13. 다섯째 나팔이 불 때에 첫째 화가 임했고(9:1, 사람에게 직접 화가 미치기 시작함) 여섯째 나팔이 불 때에 둘째 화가 임했다. 일곱째 나팔이 불면 셋째 화가 임할 것이다. 속히 이른다던 세 번째 화의 내용은 무엇인가?

심판과 찬양이 동시에 임할 테지만 화보다 더 큰 감격에 묻혀버렸다. 10:7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비밀이 드디어 이루어진다.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감격이고 불신자들에게는 마지막 화가 될텐데 시선이 그만 찬양 쪽으로 돌아서 버렸다. 이 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셋째 화인 셈인데 16장에 가서야 구체적으로 나온다.

<참고> 6장에 7인 재앙, 7장에서 재앙에 관한 내용은 건너뛰고(성도를 보호하는 내용) 8-9장에서 7나팔 재앙 중 여섯 번째 나팔까지 나오고, 10장에 7번째 나팔이 나와야 하는데 5장이나 건너뛰어 16장에 가서 7번째 나팔(=7 대접 재앙)이 시작된다. 이렇게 재앙에 관한 내용이 계속 되지 않고 건너뛰는 것은 재앙보다는 다른 데에 더 관심이 있다는 증거다. 11:15절에서 언급한 내용이 16:1절에서 계속된다.

약장수가 약을 팔면서 원가를 보여준다고, 공짜로 좋은 길 준다고 하면서 계속 영똥한 선전만 한다. 맨 마지막에 내놓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시간을 끌면서 하는 얘기가 진짜다.

14. 24장로들이 부르는 찬양은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 그런데 가사가 약간 달라진 것 같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왜 그럴까?

(1:8, 4:8절과 비교)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장차 오실 자라는 표현이 필요 없다. 이제 모든 일이 끝났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 외에 달리 할 일이 없다.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되었던 길고 길었던 구원의 여정이 이제야 끝났다. 하늘의 큰 음성이 외치는 대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16) 계시록은 18절에서 끝나야 하는 것이다. 이 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18)과 그리스도의 통치(15, 17)에 관한 것이다.

15. 24장로들이 부르는 찬양은 최후 심판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가?

심판과 상 주심: 심판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상 주심만 우리의 것이다. 그 상이 무엇일지에 큰 관심을 둘 필요는 없다. 상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기대감을 가져야 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반면에, 죽는다고 끝이 아니다. 영벌을 위한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16.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언약궤는 무엇의 상징인가?

약속(언약)의 상징이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 두 돌판,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는 것이었다.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파괴된 것 같다. 이런 저런 다른 설이 있기는 하지만 행방을 알 수 없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 언약궤는 없지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땅에서 잃어버린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보여준다. 19절은 12장에 포함시키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시는 약속의 내용이 다음 장에 나오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2 장

1. 당시의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었음을 암시하는지 본문의 표현을 이용해서 말해보자.

용에게 쫓긴다. 용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다(13, 16, 17):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도우시고 계신다(16). 이 용은 결국은 내어 쫓긴다.

2. 11장 후반부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일곱째 나팔이 불려졌으니(11:15) 재앙이 내려야 할 때이지만 여전히 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본문에서 성도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디일까?

6절의 예비하신 곳, 8절 용의 패배, 혹은 16절의 땅이 입을 벌려 돕는 것: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렇게 도우신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심판이 핵심이 아니다.

3. 해를 입은 여자? '해가 태양인가? 아니면 상처인가? 나원 참, 이렇게 헛갈리게 번역을 해서야! 한글 성경만으로 생각해 보자.

태양을 입었다: 발아래 달이 있고 별로 된 면류관을 썼으니(2) 해를 입었으니 얼마나 뜨거울까(2)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신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와 같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한 것은 부끄럽지 않게 할 만한 옷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 어쩌면 그것이 만물을 다스릴 만한 권위에 버금가는 '빛'이 아닐까? 빛나는 예수님 앞에서 거꾸러진 베드로처럼 어떤 짐승도 감히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권위가 처음에는 주어졌을 것이다. 해, 달, 별과 이 여인 중에 누가 중요한가? 해, 달, 별은 장식품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천지는 장식품일 뿐이다. 하나님께 소중한 것은 인간, 자기 백성, 교회다.

4. 머리에 열두 별로 된 면류관과 발로 달을 밟고 선 것만으로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울부짖는다?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분위기를 이렇게 파악하지 못해서야! 도대체 이렇게 분위기도 안 맞고, 앞뒤도 맞지 않는 것이 이 땅에 또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인 점, 온 천하를 창조하신 분이시면서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신 것, 열두 영도 더 되는 천사를 호령하실 권세를 가지고도 군인들에게 조롱과 침 뱉음을 받으신 것이 바로 그것이다. 새 생명을 탄생시키려는 점에 있어서 이 여인과 공통점이 있다. 우아하고 도도한 여인은 해산 때에 어떻게 할까?

교회: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이면서 동시에 온갖 박해와 비난을 동시에 받기도 했다.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서는 별로 힘이 있거나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성경구절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습 3:17)

5. 이 용이 여인에게 어떤 아픔을 주었는가?

팡야로 도망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여인이 아파서 울부짖은 것은 해산 때문이었지 용이 주는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진정한 고통은 악한 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해산의 고통과 같은 것이다.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일시적이며, 열매가 있는 고통이다.

6. 용의 머리가 일곱인데 뿔이 10개면 완전히 괴물이네! 이 용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능력이 있음: 하늘의 별 1/3을 끌어다 땅에 던질만큼 위력이 있는 자란 뜻이다. 머리가 7개, 면류관이 7개라는 것보다 이 점이 더 중요하다. 머리가 일곱이면 지식적으로 뛰어난다는 의미일테고, 뿔이 10개면 파괴력이 뛰어나다는 뜻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세세한 부분이 아니다. 실제로 사탄은 이 땅에서 그렇게 위력적인 존재이다. 돈, 도박, 미신 등은 언제든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는 일 = 아이를 집어삼키는 일: 머리 나쁜 용이다. 낳기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여자를 삼키면 될텐데... 아이를 삼키려는 사탄의 노력은 끊임없이 시도되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아벨, 출애굽 전, 이세벨의 딸 아달랴, 하만, 헤롯이 그렇다. 여자를 삼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아내를 빼앗길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7.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5절)' 이란 표현은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쇠뿔들이로 다스리나? 궁예가 그랬던데?

시 2:9, 계 2:27: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림이여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철장은 쇠뿔들이다. 만국을 다스릴 분이 하필이면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는가? 심판의 의미를 지닌 표현이다. 그러면

이 아이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이 아이야말로 여인의 후손이다(창 3:15). 이런 성경구절을 찾아보기 위해서 관주나 성구사전을 활용해야 한다.

8. 아이를 낳고 광야로 도망간 여자는 누구를 상징할까? 아이는 틀림없이 예수님 같은데? 그러면 마리아인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것이 타당해 보이는지 생각해 보자.

마리아	그리스도	유대교	기독교	교회	그리스도와 그 지체
-----	------	-----	-----	----	------------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표현은 논리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수를 낳았다는 표현(롬 9:5)처럼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표현도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면 될 것이다. 비슷한 표현에 '시대의 산물'이란 말도 있다. 상징적인 표현이란 다소간의 비약에도 전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를 중시하는 표현양식이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별이 어떻게 절을 해?' 하고 따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꿈이지! 꿈이나 환상은 으레 그런 비약이 따르는 것이 묘미이다. 그리스도와 그 지체는 결국 하나가 되어 교회를 이룬다. 이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나셨으니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보아도 된다. 여인의 남은 자손이란 표현도 교회임을 나타내는 셈이다(17).

9. 7-13절은 위치를 조금 바꿀 수도 있다. 어디로 옮기면 자연스러울까?

5절 다음으로: 용이 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하늘로 옮겨버린 아이 때문이다. 그러나 게임이 필만한 게임을 해야지! 그래서 여인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이 6절인 셈이다. 6절에서 일단 대충 이야기를 마감하고 다시 확대해서 되풀이하는 것이 7-13절이기 때문에 14절에서 6절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이다.

10.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등장하는데 자세한 설명이 없는 것은 처음 독자들에게는 친숙한 천사이기 때문이다. 단 12:1에 보면 민족의 수호천사로 나타나있다. 이 미가엘이 용과 싸워 물리쳤다. 뒤이어 들리는 큰 음성은 승리한 미가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러 형제가 어린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이겼다고 말한다. 천사장 미가엘의 승리는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의 승리임을 상징한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승리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다(10). 이 땅에서 죽음으로 하늘에서 승리를 거두는 모한 전쟁이다. 사단과의 싸움은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다. 매사에 이기려고 하지 말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십자가의 고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요 12:31-32)

11. 이 용은 옛 뱀이라고 하는데 용과 뱀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미꾸라지가 변하여 용이 되는 것 아닌가?

생물학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용은 상상의 동물일 뿐이다. 상징적인 의미로 뱀이 많이 자란 모습으로 사용할 뿐이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 이렇게 능력을 가진 모습으로 자라서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것을 묘사하는 표현이다. 이무기? 용이 되려다만 거대한 뱀을 가리키는 말이다.

12.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고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12). 우리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인가?

몸은 이 땅에 있어도 실제 신분은 하늘에 속한 자인 모한 상태라고 해야겠다. 이중국적자네! 이 땅의 고통도 있고 하늘의 기쁨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상태이다.

13. 다음 구절을 보면 생각나는 다른 성경 구절은?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 내어 너희에게 내려갓음이라 하더라' (126)

벧전 5:8-9: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니라.

14. 용이 여자를 핍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자 아이를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4-6)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13)

성도들을 참소하지 못하기 때문(10)

지상교회가 받는 핍박이 용의 화풀이 때문이라는 것을 알면 성도가 받는 어려움도 너그러이 이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좀 더 너그러워지자. 그렇게 악발이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 본인들이 어리석거나 욕심 때문에 당하는 것은 핍박이 아니다. 그럴 때는 죽을 죄를 지은 줄 알고 빌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찌고 저찌고 해서는 안 된다.

15. 한 때 두 때 반 때는 또 무슨 말인가?

1260일과 3년 반과 같은 표현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3년 반이라면 쉽게 기억하는 사건이 있다. 엘리야 시절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고생했던 기간이며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돌아보셨던 기간이다. 엘리야를 기적적으로 돌보셨듯이 교회와 성도를 돌아보실 것을 쉽게 연상할 수 있다.

16. 사단이 패배하고 쫓겨났다고 말하지만 당시 교회의 현실은 오히려 더욱 고통스러워지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사단의 마지막 몸부림: 머리는 깨어져도 몸통은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는 현상이다. 시간이 문제일 뿐이다. 그러나 그 몸부림이 성도들에게는 육신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는 어린양이 죽고 성도들이 죽기도 하였다(11).

17. 여인이 피하여 양육받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은 어디인가?

광야: 세례요한이 처음에 거주하였던 곳, 이스라엘이 40년간 방황하였던 곳,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던 곳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친 광야가 필요한 곳이다. 하나님의 도움없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이다.

교회가 국가의 비호아래 성장할 때 부패하기 시작했고 박해가운데서 성장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자. 북한 선교하는 분들이 가끔 하시는 이야기 중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북에 있다'는 것이다. 남한의 교회가 북한의 교회를 재건하겠다는 말을 들으면서 귀방진 얘기라는 것이다. 물질적으로 풍성하다고 함부로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험한 광야에서 양육되는 것이다.

우리의 직장, 가정이 진실로 광야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도움없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란 뜻이다. 내 뜻대로 잘 살고 있으면 그 곳은 광야가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야곱의 전 생애, 다윗의 쫓김,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 등도 마찬가지. 바울에게 아라비아는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아라비아에 3년 동안 가 있었다는 생각은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갈 1:17-18).

18. 다음 구절은 본문의 어느 내용과 연관이 있는가?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예우시리이다 (시 32:6-7)

15-16: 땅이 물을 삼키는 장면처럼,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계시록을 쓴 목적이 바로 이런 점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19. 사단이 선 곳은? 왜 거기에 섰을까?

바다 모래 위: 사단이 노리는 사람은 바다(불안정한 세상, 불신)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육지(안정된 세상, 믿음)에 있는 사람도 아니다. 그 중간의 어정쩡한 곳(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이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사 57:20). 바다가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계 21:1). 14장에서 어린양이 선 곳과 비교해 보자.

20. 박해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본문을 읽으며 어떤 위로를 받았을까?

새 생명을 해산하는 그 여인의 고통이 바로 자신들의 것: 닥쳐오는 고난들이 바로 산통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아픔으로 여겼을 것이다.

여인에게 피할 곳이 있더라: 사단은 이 여인을 결코 해할 수 없다. 비록 도망가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닭 쫓던 개가 될 것이다.

용이 아들을 해하려하나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더라: 자기들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서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사단은 결국 패배하고 말 것이다.

땅이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물을 삼킴(16)

악한 의도로 혹세무민하는 무리들이 계시록을 마치 자신들만 풀이할 수 있는 무슨 암호책인 것처럼 말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믿는 성도들에게 자신감을 주며 격려하려는 것이 계시록의 목적이다.

요한계시록 13 장

1.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용과 짐승들)가 하나님의 모습이나 방법을 그대로 흉내내는 행위를 있는 대로 찾아보자.

용과 두 짐승(삼위일체), 열뿔과 일곱 머리(1, 11 전지전능), 신성모독하는 이름(거룩한 이름),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줌(2, 4, 7 마 28:18), 치명적 상처의 완쾌(3, 13 예수님의 부활),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예수님의 사랑의 말),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함(예수님을 경배하게 함), 하늘에서 불(13 엘리야 때의 일),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음(15 인간창조), 짐승의 표(하나님의 인), 하나님 대신 우상, 면류관, 각종 이적을 행함(13 예수님의 이적), 생김새(어린양, 새끼양),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음(7) 마 11:27, 요 16:14. 용이 교방지게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것이다. 결국 짝퉁 하나님인 셈이다.

2.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다. 어디선가 본적이 있는 표현인데(단 7, 계 12) 어떤 괴물인가를 상상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옳다. 이런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더라?

지식과 파괴력을 지닌 존재라는 뜻: 12장에 나온 표현이다. 머리 일곱은 지식적으로 뛰어나다는 의미고, 뿔 10개는 파괴력이 뛰어나다는 뜻이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에게 대적하는 세력이 무식하거나 무능한 자가 아니다. 더 능력이 있는 자들이 더 치밀한 논리로 대적해 온다. 표범의 교묘함, 곰의 완력, 사자의 사나움을 함께 갖추고 다가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없이 이길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런 짐승들(돈, 명예, 자식, 여자...)을 만만히 보지마라.

3. 뿔에 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능력을 발휘하여 세상에 드러날만한 업적을 남겼다는 말인데 바로 거기에 참람된 이름이 있는 실례를 든다면?

우리 가까린: 최초의 우주 비행사(소련)인데 그가 지구궤도를 돌고 내려와서 한 말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었다. 최근에 인간 지능을 완성했다고 '신의 영역' 운운하는 것이나 인간복제로 생명창조의 길을 열었다고 난리를 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노력은 결국은 참람으로 끝나게 마련이다.

4. 괴물같이 생긴 용이 자기의 권세를, 모양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을 닮고, 입은 사자를 닮은 짐승에게 주는 것을 보면 무슨 느낌이 드는가? 아니면 이럴 때 어울리는 속담이라도?

끼리끼리 노는 법이다: 하나님은 인자같은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반해서 괴물같은 용은 괴물같은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를 넘겨주는 것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속담대로다.

5. 많은 사람이 이 짐승을 따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적을 행함(3): 죽을 것 같더니 살아남, 이적은 하나님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도 행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큰 말과 참람된 말을 함(5): 솔직한 말로 정치에서 이기는 방법은 없을까? 모하게도 사람에게 인기 얻는 방법은 말이 거칠어야 한다. 적어도 선거에서 표를 얻으려면 말이 부드러워서는 안 된다. 부드럽고 온화하면 칭찬은 들지만 다수 득표는 어렵다. 심지어 학교에서 학생회장을 뽑아도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특히 학생부장 선생님께 존경을 표시하는 태도로는 표를 얻기 어렵다. 신발을 집어 던지며 고향을 지르는 후보가 표를 얻는다.

6. 이 짐승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된단다. 이런 비극이 있나!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나? (7절과 8절을 이용해서) '그러나'로 연결된 짧은 두 문장으로 대답하십시오.

싸움에 진다(7), 그러나 경배하지는 않는다(8절의 역)

7. 성도들이 짐승에게 이기지도 못하면서 인내하고 믿은들(10) 무슨 소용이 있는가?

짐승이 성도들에게 (일시적, 표면적으로) 이기긴 하지만 결국은 자신이 행한대로 보응을 받기 때문이다(10): 짐승의 승리는 일시적이라는 믿음과 그 이후의 일 즉 내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당면한 핍박에 굴하지 않게 된다. 8절에 따르면 생명책에 녹명된 자들은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다.

8. 황제숭배를 강요당하던 때에 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황제는 누구인가? 이 본문에서 적절한 대답을 찾는다면?

짐승: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46). 오늘날 우리에게 이 짐승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가? 돈이면 최고? 과학이라면 무조건 옳은 것인가? 만능시대라고 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 짐승일 뿐이다. 황제숭배를 거역하다가 귀양간 요한이 이런 글을 쓰고 있음을 알게

된다면 어떤 벌을 받을까? 글썽, 박해자들이 이런 의미를 알아차리거나 할까?

9. 이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5)은 교회의 기간(11:3)과 일치한다(11:2) 즉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세상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

10벌 7머리의 한 짐승: 여러 왕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합된 세상, 즉 겉으로 보기에 여러 나라이지만 영적으로는 거대한 사탄의 왕국이다. 굳이 EU라고 우길 필요가 없다. 이 짐승의 정체를 도미티안 황제니, 네로니, 심지어 히틀러나 스탈린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어느 특정인을 겨냥할 필요없이 그 시대마다 나타났던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10. 짐승의 권세는 세계적인 것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을 자신의 세상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어려운 세상이 될 것인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낙으로 사는가?

생명책에 녹명된 것(8),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10):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결코 이 세상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11. 웬 짐승이 또 나오나? 사탄의 쫓개도 전공분야가 있는 모양이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인가?

새끼양(개정판에는 어린양) 같다: 어린양을 닮은 모양으로 나타나서 이전 짐승보다 더 악한 짓을 저지르는 것이 기독교의 말을 쓴 채 교회를 허무는 사이비를 가리키는 것 같다(원어상으로는 새끼양이나 어린양이 차이가 없음) 사실은 정치적인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최근의 통일교, 심지어 종교의 대상으로 승화 되다시피한 기철학, 음악, 유교, 과학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고 본다.

12. 사기꾼일수록 생김새는 신사처럼 생겼고 간첩도 간첩이라고 표시를 내지 않는다. 이적도 행하고 생김새도 양을 닮은 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용의 말을 함: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이 용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별할 능력은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성경의 원리대로 산다기보다는 조상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따라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며 사이비들이 번창하는 것도 이런 구별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 뿔을 가짐: 짐승이 가진 뿔은 공격용 무기이다. 거짓 선지자는 겸손하게 성도와 그리스도를 섬기기보다는 힘과 권위를 가지고 휘두르게 마련이다.

13. 사이비 종교단체에 농락당하는 사람들의 행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은 희생적인 모습으로 다가와서 나중에는 말도 되지 않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땅에서 나온 둘째 짐승의 하는 짓에서 그와 같은 점을 찾아보자.

단계적인 술책을 부리고 있다: 처음에는 두 뿔을 가진 어린양의 모습으로 이적을 행하지만 어느 날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게 만든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통일교 합동결혼식은 무료결혼이 아니다. 필리핀, 태국 처녀들을 1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주고 데려와 합동결혼식을 하는 것이다. 합동결혼식 후 7천만원 ~ 1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재산을 바쳐야 한다. 통일교 교인들이 문 교주에게 내야하는 헌금으로는 죄를 용서해준다는 총 탕감비 1200만원, 통일교 합동결혼식을 한 교인들은 문선명 교주의 참 아들딸이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참부모인 문 교주에게 재산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뜻의 총생추헌금 2100만원, 나라를 위한 구국 헌금 1000만원, 지옥 간 조상 천국 보내는 헌금 3300만원, 매월 10의3조 헌금, 8대 명절 헌금, 각종 교회 행사 헌금 등이 있다. 전 재산을 바치고도 빚더미에 올라앉는 것이 통일교인들의 처참한 생활이다. <기독교보, 2001. 4>

지금 통일교 합동결혼식을 한 모든 통일교 교인들은 첫날밤에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다. 사탄에게 정조를 빼앗겼기 때문에 40일 동안 부부 관계를 하면 안 된다. 합동결혼식을 한 모든 통일교 교인들은 성별생활을 하고 나이가 34세 이상이 되는 남자들이나 3년 전도기간을 마친 부부만이 가정생활에 들어가 부부관계를 갖는다. 초기에 문교주와 자야 하면 피가름 교리가 조금 변했으나.

14. 어느 대기업에서 면접을 볼 때 면접관에 역술가를 참여시킨다는 소문이나 헬기를 타고 가던 유명인사가 예정에 없던 곳에 갑자기 기착한 이유가 전담 점쟁이를 만나기 위한 것이었다는 얘기가 입시철이나 선거철이 되면 유명한 역술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본문의 어느 말씀이 이런 행위를 설명하고 있는가?

16절: 아무리 위대한 인간도 여전히 약한 존재일 뿐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필연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15. 666이 바코드인가? 사람에게 바코드를 새긴다는 말인가? 이 짐승의 활동 기간은 마흔 두달, 즉

교회의 기간이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나타날 것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고 현재도 활동 중이며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설치고 다니는 것이다. 이 짐승의 표는 옛날부터 존재하는 것이지 새삼스럽게 앞으로 나타날 것이 아니란 뜻이다. 그럼 뭐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무리(로마의 정치권력을 업고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나 종교)를 가리키는 말 일뿐이다: 하나님의 인(9:4)에 대한 상대어일 뿐이다. 히브리 글자에는 글자마다 숫자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666이 네로황제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심지어, 로마 황제, 교황, 나폴레옹, 루터, 칼빈, 히틀러..... 빌 게이츠). 네로를 히브리 말로는 '네론 케사르'라고 하는데 666이 되지만 라틴어로는 '네로 케사르'이기 때문에 616(n 탈락으로)이 된다. 어떤 사본에는 666이 아니라 616이 등장하는 것은 아마도 666이 네로를 가리키는 말이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셈이다.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다른 숫자는 상징이고 이 숫자만 특징인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이유도 없다. 생명책에 녹명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모든 무리를 가리키는 말이지 실제로 이마나 손에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다. 단지 완전수 7에 하나 부족한 6을 연속하여 불완전하고 항구적인 실패와 불안을 의미하는 숫자로 사용했을 뿐이다.

16. 666이 무엇이든 간에 왜 하필이면 이마나 손에 찍는가?

잘 드러나라고: 하나님의 인도 이마에 찍혔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지 사단의 모습으로 사는지 금방 드러난다. 주위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른다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모른다고? 내게 문제가 많다는 뜻이다.

17. 여러분들이 666의 표를 갖지 않음으로 매매를 못한 일이 있는가?

경제적인 손실을 말하는데 신앙으로 살려다보면 경제적인 손실을 입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각자의 경험을 서로 나누어보자. 특히 장사를 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봉급쟁이도 적잖은 출혈을 각오해야 한다.

18. 지혜가 어디 있다고?

그 이름의 수를 세어보는 데에: 온 세상 사람의 경배를 받는 그가 결국은 신이 아니라 사람일 뿐임을 알아차리는 것, 즉 하나님 행세를 하는 가짜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다.

19. 이 장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활동 내용을 세 종류로 나눈다면?

정치적 활동(2): 권세를 받음, 경배를 받음,

종교적 활동(4-8, 11-15):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과 싸움, 짐승을 경배하게 함,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함,

경제적 활동(16-17): 매매활동에 제약을 가함

20. 지금은 일곱째 나팔이 불려졌으니(11:15) 재앙이 내려야 할 때이지만 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본문에서 성도들이 주목해야 할 구절은 어디 일까?

10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8절: 역으로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자만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

18절: 짐승을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

21.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던 용(12:17)은 왜 싸우지 않을까?

하수인을 시킴: 바다에서 나온 짐승(1)과 땅에서 나온 짐승(11)이 하수인이다.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랬다.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가장 교묘한(지혜로운, noble) 뱀을 전면에 내세웠다. 우리의 싸움은 짐승과의 싸움이 아니라 용과의 싸움이란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웃집 아줌마, 앞차 운전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싸우는 중이란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면 용과 나의 싸움인가? 내 뒤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결국 결보기에는 나와 짐승(이웃이나 주변 사람)의 싸움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용의 싸움이다. 용이 이 싸움에서 일단은 패하고 그 분풀이를 하는 내용이 13장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4 장

1.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하나님의 모습이나 방법을 그대로 흉내 내는 행위를 본 적이 있는데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12:17)’는 것도 일종의 흉내이다. 무엇에 대한 흉내인지 본문에서 찾는다면?

어린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1) 바다 모래 위는 지반이 약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지대이며 낮은 곳이지만 시온 산은 견고한 곳이며 높은 곳이다. 용은 싸우려고 버리고 있지만 어린양은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신다. 용은 분노에 차 있지만 어린양은 거문고 타는 소리를 들으며 평화를 누리고 있다. 용의 쫓겨들 이마에는 짐승의 표가 찍혀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린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

2. 땅에서 구속받은 144,000이란 숫자에 모한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다. 자기들만 이 무리에 들어간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는데(지금은 그러지 않는다. 자기들만 해도 이 숫자를 넘어 섰으니) 특정한 수의 무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무리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어떤 숫자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가?

666: 그러니까 666도 구체적인 숫자나 특정한 인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상징하는 수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펜스레 바코드가 666이라느니 사람의 몸에 이런 숫자를 새겨서는 안 된다며 주민등록번호(신용카드, 베리칩 따위)를 죄악시하는 수선을 떨 필요가 없다. 어떤 특징이나 특정한 기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띤 말일 뿐이다.

3. 시온 산이 어디 있는 산인가?

예루살렘에 있는 작은 산이었는데 예루살렘을 뜻하는 의미로 쓰이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신 4:48에 시온(Sion) 산은 곧 헤르몬 산이라는 말이 있으나 원어상으로는 글자가 다르다. 본질의 시온산은 영어로 쓴다면 Zion인 셈이다. 상징적인 의미로는 하늘의 도성(히 12:22)을 뜻한다.

4.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바라보면 눈이 멀만큼 강렬한 빛이시며 들으면 귀가 터져 나갈만큼 큰 음성을 갖고 계시며..... 하늘나라의 모습을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듣는 자는 두 귀가 울리리라고 하는 것은 소리만으로도 귀를 감싸 안고 땅에 고꾸라지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이런 소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는가?

멸망 받은 자에게는 많은 물소리(거대한 폭포 소리나 골짜기로 쏟아지는 홍수)와 큰 뇌성, 즉 너무나 커서 두려움으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거문고 소리(황홀한 음악 소리)처럼 들린다. 같은 냄새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이르는 냄새이다(고후 2:16).

5. ‘거문고 타는 소리’ 같더라고 하면 되지 ‘거문고 타는 자들의 거문고 타는 것 같더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같은 말이겠지만 후자는 전문가가 타는 소리라는 느낌이 강하다. 같은 악기라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천차만별이다. 황홀할 정도로 아름답더라는 말이다.

6. 아무리 구원받지 못한다 해도 그렇지 노래도 못 부른단 말인가(3)?

똑같은 음악이 어떤 사람에게는 감동으로 다가오지만 어떤 이에게는 시끄러운 소리로 들리는 것을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될까? 개구리에게는 사랑의 노래가 어떤 사람에게는 못 살 정도로 시끄럽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연의 소리로 들린다. 개가 사람의 노래 소리에 감동을 받을까? 이 땅에 있을 동안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일단 그 날이 되면 본질적인 차이가 드러날 것이다. 성도에게는 아름답기 그지없는 새 노래지만 짐승을 경배하던 자들에게는 부르기는커녕 들으면 귀가 터질 것 같이 아픈 소음일 것이다. 개성공단에서 비틀즈 음악을 들어봤더니 북한의 노동자들이 시끄럽다고 해서 도라지 타령 같은 걸로 바꾸었더니 좋아하더라. 아무리 좋은 음악이라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소음일 뿐이다.

7. 구속받은 성도들을 가리켜 여자로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것을 보면 여자는 참으로 문제가 많은가 보다. 여자들은 반성해야 한다? 남자들은 절대로 여자에게 더럽혀지면 안 된다? 그런 뜻인가?

여기 여자는 일반적인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음행의 상대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나 교회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남녀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는 칭찬의 말이다.

8. 성도는 단순하게 정절을 지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양의 인도를 따라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 어린양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이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십자가(4절, 구속받음): 도중에 푸른 풀밭도 있겠고 잔잔한 시냇물도 있겠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십자가의 길까지 각오하고 어린양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 어린양의 인도가 우리가 보기에 만사형통은 아니다. 때로는 힘든 고통이 따를 수도 있다. 사랑하는 자녀라면 결코 재 멋대로 자라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9. 구속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한다. 다음 구절들을 참고로 해서 처음 익은 열매가 무슨 뜻인지 생각해보자? 출 23:19, 민 18:12-13, 렘 2:3, 느 10:35, 잠 3:9, 겔 44:30: 48:14.....

구별된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두 번째 열매는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는 것은 전혀 본문에서 의도하는 것이 아니다.

10. 시온 산에 선 어린양과 144,000의 놀라운 광경은 우리의 장래 모습이며 우리의 소망이다. 반면에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인내하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다(12): 복음을 위하여 힘들고 어려움을 인내하는 삶이어야 한다. 그냥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뜻이 아니다. 첫 번 천사가 가진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6) 자가 바로 성도들의 현실이다. 2000년 전에 요한이 보았던 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오는 말씀이다. 단일 민족이라고 자랑하는 것은 온 세계를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 단일민족 운운할 것이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한다. 세계 경영은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복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11. 어린양에게 속한 자들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5)고 하는데 거짓말을 한다면 성도가 아닌가?

문맥이 중요하다. 이 장면은 사람들끼리 속이고 속는 그런 장면이 아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용의 무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따라서 이 거짓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된 무리들이 하는 말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우리가 연약하여 저지르는 수 많은 죄와 거짓말은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았다. 그런 거짓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12. 세 천사가 연속으로 등장하면서 호소하기도 하고 경고하기도 한다(7-9). 종말이 임박하였음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종말이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천사를 보내어 이런 경고를 발하십니까? 천사들의 경고가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는가?

교회가 박해를 받아가면서 전한 복음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 종말을 맞으면서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임을 가르쳐준다.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선언하면서 시작되었다. 회개하라가 바로 그것이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베드로도 바로 이 선언으로 사역을 시작하였다.

13. 바벨론이 아무리 큰 성이지만 벌써 무너진지 오래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무너졌다니? 무너졌도 다라는 과거형은 '확실하게 무너진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말하자면 아직도 무너지지 않은 바벨론이 있다는 말이다. 도대체 아직도 무너지지 않은 바벨론은 무엇인가?

로마, 혹은 우리를 유혹하는 세속 문명: 바벨이라는 지역은 인류가 단체로 하나님에게 대적했던 최초의 장소이다. 그 터에 세워진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와 무리로 묘사된다. 베드로는 당시의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했다(벰전 5:13) 요한 당시에도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했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성도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없는가? 무엇보다 음란으로 대표되는 현대문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발달의 일등공신이 음란성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14. 큰 성 바벨론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무너져야 하는가?

포도주로 사람을 유혹하여 음행을 저지르게 하고 끝내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함(8): 처음부터 진노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없다. 달고 맛있는 것에 이끌려 한 걸음씩 빠져들어 가보니 결국은 진노의 잔이더라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음행은 거의 대부분 우상숭배를 뜻하는 것이다. 세상이 주는 단 맛에 조금씩 빠져들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진노에 이르게 됨을 경고하는 것이다. 세상이 무엇으로 나를 유혹하는지 면밀하게 살펴 보아야 한다.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미리 살펴두자.

15.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자(9)'라는 말을 장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의 이마나 손에 이런 표시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그들이 받게 되는 벌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10)'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자'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은 무엇일까?

바벨론이 주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 자(8): 요한의 최대 관심은 교회를 향하여 다가오는 핍박의 손길에도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을 굳게 지키게 하는 것이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세속의 유혹에 포도주에 취하듯이 빠져들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다. 스스로 안일에 빠져 넘어야 죽든지 살든지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식으로 짐승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경고이다.

16. 시 75:8에 '여호와와 그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 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께서 쏟아 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술 마시는 것에 비유한 것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며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 아닐까? 포도주에 다른 재료를 넣어서 빨리 강하게 취하게 만든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섞인 것이 없다: 물로 희석시키지 않았다는 뜻이다. 농도가 진하다는 뜻이다. 원액을 마셔보지 않는 사람은 무슨 뜻인지 실감이 나지 않겠다. 시편까지 감안한다면 하나님의 잔에는 여러 가지 독한 것들이 섞여 있음에도 전혀 희석시키지 않은 것이라는 말이다.

참고로 한국의 성도들은 시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시편과 쉽게 연결 짓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은 시편에 대해서는 환하다. 심지어 화관에서는 지금도 시편으로 찬송을 부르기 때문에 웬만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편 인용으로 답할 수 있다고 한다.

17. 유향과 불로 행하는 심판이라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생각난다. 최후 심판은 소돔 고모라의 심판보다 더 심하다. 어떤 점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단회적인 것이었지만 최후 심판은 쉼도 없고(밤낮) 끝도 없기(세세토록) 때문이다(11): 반면에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있다. 요 3:16절에는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망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고통이 따른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벌에 처하여지는 것이다.

18. 이런 끔찍한 공갈(?)로 사람을 겁주다니? 기독교는 저급한 종교가 아닌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구절은 12절, 13절이어야 한다: 요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앞의 진노가 아니라 12절 말씀이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보아도 재발 구원의 길로 나아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길을 열어 두었는데 굳이 옆길로 새면서 질이 낮으니 어쩌니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사정해도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노를 쏟지 않을 정도로 배알이 없는 하나님은 아니다. 더구나 사실이 아닌 경우라면 공갈이라고 하지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기에 때문에 공갈이 아니다. 이 글은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글이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글이 아니다.

19. 성도가 인내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아무리 바벨론이 잘 나가도 결국은 영원한 불에 밤낮 쉬임없이 타고 말 것이며 인내한 성도는 수고를 그치고 쉼 것이기 때문이다.

20. 계시록에만 해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왔다(4:1, 10:8, 11:12, 11:15, 12:10). 13절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회의법에 따르면 제청인 셈이다. 그렇다면 동의는 누가 했을까?

하늘에서 들린 음성에 대해서는 누구의 음성인지 굳이 밝히려 하지 않는다. 아니 누구의 음성이든 관계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일테니까.

21. '자금 이후로'라는 말은 지금부터라는 말이다. 그러면 이전에 순교한 사람은 어찌되는가?

요한의 관심은 바로 지금부터 닥쳐오는 핍박에 어떻게 이기도록 격려하느냐에 있다. 그래서 지금을 강조하는 것이지 이전 순교자의 공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다른 교회를 무시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다른 교회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속한 교회가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22.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13). 예수 믿는 것은 보통 부지런해서 될

일이 아니다. 우리 교회에도 40일 특별새벽기도를 마치고 입술이 터지거나 몸살을 앓은 성도들이 한 둘이 아니다. 교회 일에 조금 열심을 내려면 얼마나 바쁘지 모른다. 천국가면 쉬게 된단다. 기분이 어떤가? 여기서 미리 좀 쉬어 가면서 신앙생활하고 피곤도 없는 천국 가서 더 열심히 하면 안 될까?

꿈 깨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장사도 불가능하며 심지어 목숨을 잃어야 하는 위험을 말하는 것이지 예배나 기도로 바쁜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수고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면 기가 찰 것이다. 거꾸로 말한다면, 믿는다고 하는 많은 성도들 중에는 전혀 수고라고는 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는 우리의 업살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본다면 '호강에 받혀 요강 꾀다'는 말을 할 것이다.

23.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보면 눈이 번쩍 뜨이는 구절을 찾는다면?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13): 행한 일이 따라오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코 성도들의 수고를 잊지 않으신다는 뜻이다. 구원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상급의 문제이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마 10:42)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다.

24.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는데 진짜 그럴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면 이 땅에서도 행복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의 행복한 고백을 들어보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였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빌 1:22-24)

25. 흰 구름 위에 금 면류관을 쓴 사람의 아들같은 이가 앉았는데 천사가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고 큰 소리로 외쳤으니 이 '사람의 아들같은 이'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보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번역상의 문제이다. 헬라 원어상으로는 '낫을 휘둘러 거두십시오'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이다. 그렇게 번역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위 아래 없이 *You!* 하는 영어를 생각하면 된다.

26. 곡식을 거두는 것과 포도를 거두는 데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가?

곡식은 인자가 거두고 포도는 천사가 거두고: 그래서 곡식은 아무래도 주님께서 거두어서 천국 알곡으로 저장한다고 해석하는 주장이 강한 편이다.

곡식을 거두는 일은 간단하게 말하고 포도를 거두는 일은 설명이 좀 길다. 포도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서 거두라고 한다. 제단에서 나오는 천사는 항상 성도들의 억울함을 신원하는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다(6:9, 8:3) 포도추수는 말하자면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의미가 있다.

28.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왜 하필이면 포도 추수에 비겼을까?

우리나라에서는 포도를 원형 그대로 유통시키고 열매를 따먹지만 포도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에서는 즙을 짜는 것이 기본이다. 포도를 틀에 넣고 밟으면 밑에 즙이 고인다.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기에는 적격인 셈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는 포도를 넣고 밟으면 피가 고인다. 1스다디온은 약 197m이다. 320Km 길이에 깊이는 말의 키 정도 되는 피의 호수가 생기는 셈이다. 이스라엘의 남북의 길이가 이와 비슷할 것이다. 엄청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29. 하나님은 심판을 왜 성 밖에서 하실까? 그 장소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성도들이 고난을 받으며 죽음을 당해야 했던 곳이다. 예수께서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한다(히 13:12): 성도들의 고난을 기억하시고 신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아무런 고난도 없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잔인하게 보이거나 너무 심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죽음을 고통을 당하며 사자 밥이 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지 생각해 보자.

요한계시록 15 장

1.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봤단다. 전에는 무슨 이적을 보았는가?

해를 입은 한 여자(12:1), 붉은 용(12:3) 그 외에도 '내가 보니(13:1, 11), 또 내가 보니(14:1, 6, 14)' 라는 표현이 반복된다. 핵심은 아이를 낳는 여자와 붉은 용의 대결인 셈이다.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노력과 이것을 막으려는 용의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누가 이길까? 결말이 어떻게 날까? 뻘한 얘기다.

2.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는데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란가(= 7번째 나팔 재앙 = 7 대접 재앙) 그렇다면 이 마지막 재앙 이전에 '화'라고 불리는 두 가지 재앙은 무엇이었던가(참고 9장, 11:15-19)?

다섯째 나팔(9:1-12, 첫째 화)과 여섯째 나팔(9:13-21, 둘째 화) 아마 본격적인 재앙은 이제 등장할 일곱 번째 나팔까지 포함해서 이 세 가지인 것 같다. 이미지 상으로 볼 때 인 재앙은 계시의 성격이 강하고, 나팔 재앙은 경고의 성격이 강한 반면에 대접 재앙은 실제로 쏟아 붓는다는 의미를 띠고 있다. 재앙을 쏟아 부으면 끝이 난다.

3. 첫째 둘째 화는 9장에 있고, 셋째 화는 16장에 나온다. 그 사이에 있는 10-15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약하면 무슨 내용인가?

10장: 작은 두루마리 책

11장: 두 증인 11:15-19(일곱째 나팔이 불려지지만 준비운동뿐이다. '여섯 반' 하는 셈이다. 다시 다른 얘기로 돌아간다)

12장: 태양을 입은 여자, 하늘과 땅의 전쟁

13장: 용과 그 하수인(바다와 땅에서 나온 짐승)

14장: 십사만 사천과 세 천사와 추수

심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키시며 구원을 위한 과정을 이끌고 계신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내기를 바라신다. 10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한 것이니 만방에 전하라, 11장은 이 말씀을 전하는 두 증인의 활동이고 12장은 교회와 교회에 대적하는 용의 허무한 노력, 13장은 용과 하수인이 하나님의 홍내를 내고 있을 뿐(용은 짝퉁 하나님인 셈)이라는 말씀이다. 14장은 승리한 성도와 종말에 있을 두 종류를 보여준다.

4. 사람은 누구나 잘 해준 10가지는 잊어버리고 한번 섭섭하게 했던 일만 계속 기억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처럼, 계시록을 대할 때도 우리는 엉뚱한 것만 기억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계시록이라 하면 무언가 기괴한 무리들이 나와서 무서운 재앙을 부르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그것은 분명히 오해다. 계시록의 저자 요한이 자신의 그리스도인 독자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이런 재앙이나 심판이 아니다. 본 장에서 찾는다면 무엇일까?

승리자들이 부르는 하늘의 찬양(2-4) 닥쳐오는 환난과 핍박을 이긴 성도들의 모습을 그리며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나그네처럼 살아야 하는 성도들은 이 땅의 현실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그 너머에 있는 다른 삶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이런 원리는 아이들을 대할 때 현실의 사고몽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훗날의 훌륭한 모습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동일하다.

남편이나 부인을 대할 때도 현실 너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부부가 될지 모른다. 그냥 잔소리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만을 선택한 사람? 웃기는 이야기인가? 자기 본적, 자기 가족을 다 버리고 내게 와서 내 이름과 내 본적을 자기 이름처럼, 자기 본적으로 삼는 여자가 잔소리 좀 하면 어떻게 성질을 좀 내면 어떠랴!

5. 요한계시록이 다른 계시록과 달리 정경에 포함된 이유 중에 하나는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문은 구약의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출애굽: 유리 바다 가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홍해 바다 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노래하던 장면을 연상시킨다. 증거 장막 즉 언약궐에 관한 기사도 출애굽기의 중요한 부분이다.

6. 본문에 나오는 다음 표현과 비교, 혹은 대조할 수 있는 표현을 본문이나 혹은 출애굽기 14-15장을 참고해서 표현해 보세요.

- 1)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애굽의 군대를 집어삼킨 홍해
- 2)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너 사람들 (=애굽의 확대에서 벗어난 사람들)

3)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소고

4) 어린양의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마지막 최후의 장면을 출애굽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말을 바꾼다면 출애굽 사건이 결국은 최후 심판의 상징을 사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다. 초대 교인들이 받는 고난은 출애굽 직전의 압제와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7. 위에서 본 것처럼 두 장면은 서로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다. 그러나 모세의 노래(출 15:1-18)와 어린양의 노래(계 15:3-4)를 비교해보면 전혀 다른 점이 있다. 무엇인가?

모세의 노래는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던진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지만 어린양의 노래에서는 원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그저 하나님만을 찬송한다. 환난을 통과한 자신들의 이야기도 없다. 오직 전능하시고, 의롭고 참되시며 영화로우신 주님을 감사함으로 경배할 뿐이다. 진정한 찬양이 어떠한지 잘 보여준다.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다른 목적으로 찬양이 불리지 않아야 한다. 가령 시간을 때우기 위하여, 잠을 쫓기 위해서,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 외에 길이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8. 3-4절의 노래는 모세의 노래이면서 동시에 어린양의 노래라고 한다. 모세의 노래란 말은 '모세가 지은 노래'라고 하면 되겠는데 어린양의 노래란 무슨 뜻일까? 어린양이 지은 노래? 어린양을 찬송하는 노래?

어린양이 가능하게 한 노래: 어린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런 성도가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9.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본문의 분위기를 잘 살려서 다른 이름을 붙인다면?

영적 홍해를 건너 사람들: 이들은 승리한 성도들인데 홍해 바다 가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10. 유리바다가 뭐야? 유리로 된 바다인가? 유리처럼 투명한 바다인가? 아마 유리처럼 투명하고 맑다는 점을 표현한 것일 터이다. 그런데 왜 불이 섞여 있을까?

출애굽 사건을 염두에 둔다면 심판의 의미이다. 자신들을 핍박했던 자들을 심판하시는 불이다.

11. 레이더스라는 영화가 있었다. 굳이 우리말로 옮기면 '잃어버린 성체를 찾아서' 정도가 될 것이다.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라져버린 연약체를 찾기 위해서 곳곳을 뒤지던 사람들이 어느 날 이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감격하는가!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후에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던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금 하늘이 열리고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일까?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인가?

참된 성전은 하늘에 있다: 현실의 교회를 바라보면 안타까울 때가 참으로 많다.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노력하면서도 참된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며 하늘나라에 있음을 기억하며 위로를 받는다.

12.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대접을 지닌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말한다. 일곱 재앙이 그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일단 심판이 시작되면 아무도 말릴 수 없다: 기도도 더 이상 소용없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노아의 방주도 일단 문이 닫히면 더 이상 들어갈 자가 없었던 것처럼 기회가 있을 때 들어가지 않으면 발을 굴러도,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는 때가 온다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 마지막 심판이 그 어느 다른 심판보다 맹렬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13. 세상을 바라보면 선이 악을 지배하기보다는 악이 선을 지배하는 듯한 때가 훨씬 많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주어진 벌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쏟을 것이다.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세에 계신 하나님(?) 루터가 낙심하고 있을 때 그 부인이 상복을 입고 나타나자 누가 죽었느냐고 물었다. 부인이 '하나님께서 돌아 가셨다'고 대답하자 루터가 정신을 차렸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부인의 메시지였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세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땅에서 받는 핍박을 못 이길 이유가 없다.

14. 불이 났나? 성전에 왜 연기가 가득 할까? 어떨 때 성전에 연기(구름)가 가득 찼을까? 다음 구절을 참고하세요. 출 19:16-18, 출 40:34-35, 왕상 8:10-11, 사 6:4.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형상을 보여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하심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내신 모습이다.

15.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는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이 복장은 누구와 닮았나요?

예수님(1:13): 지금은 복장만 보고는 어른인지 아이인지 분간이 잘 되지 않는다. 어느 선생님이 잠바차림으로 등교를 했더니 뒤에서 툭 치면서 “야” 하는 학생이 많아서 할 수 없이 양복차림을 했다. 그러나 시대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복장만으로 모든 것이 다 구분되었다. 옷만 보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계급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었다.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 바로 기록하고도 위엄 있는 일이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

16. 네 생물이 오랜만에 다시 등장하였다. 4장에서 처음 등장하여 잠시 품하다가 이제 다시 등장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시종드는 특별한 존재이다. 재앙을 내리도록 명령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 네 생물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이기도 하다. 이들의 등장은 곧 하나님의 등장이고, 이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계시의 역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무리됨을 뜻한다.

요한계시록 16 장

1. 성전에서 큰 음성이 들렸다는 말씀은 이 재앙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단호하게 심판하심: 15:1에서 마지막 재앙이라고 했다. 오랫동안 지켜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납시어 끝을 보겠다는 뜻이다. 감사한가? 두려운가? 성도의 모든 억울함이 사라지는 날이다. 순항이가 '거지라도 좋다. 오기만 해다오' 하며 기다리던 서방님이 드디어 어사출두를 하는 날이다.

2. 세 가지 재앙, 즉 인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6장, 8-9장, 16장)이 임하는 그 속도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세 번째 재앙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다른 두 재앙은 하나씩 진행되는 반면에 세 번째 재앙은 일곱 천사들에게 한꺼번에 명령이 떨어지고(16:1) 폭격기가 날아들듯이 연이어 갖다 붓는 모습이다. 최후 심판 때에는 전혀 놀이킬 겨를도 없이 끝이 난다는 뜻이다.

3. 재앙을 왜 하필이면 금대접에 담아 나올까?

하나님께 향을 담아 드렸던 대접이다(5:8):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드러졌던 그 그릇에 대답을 주신 셈이다.

4. 일곱 대접 사건이 출애굽 때의 재앙과 비슷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1) 불신자에게만 악하고 독한 헌데가 생김(2): 고센 지역에는 개도 혀를 놀리지 않음(출 11:7). 개가 가장 잘 하는 것이 더운 여름날 혀를 핥아주는 건데 그것도 않고 있다니!

2) 재앙에도 불구하고 완고함(9, 11, 14, 21)

3) 기타: 독한 헌데(독종), 물(바다, 강, 물 근원이 피같이 됨, 재앙의 내용이 닮음).

5. 요한의 시대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볼 때 16장은 끔찍한 얘기인가? 통쾌한 이야기인가?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통쾌한 날이다.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왜 계시록의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는가? 자신들의 불순한 의도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6. 이런 끔찍한 재앙의 날에도 처한 입장에 따라 하는 말이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5): 천사들(5)과 제단(7)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한다. 제단은 피를 흘리는 곳이다.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성도들의 피가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던 곳이다. 그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감사할 것이다.

하나님을 훼방함(9, 11, 14, 21):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훼방하는 독종이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선물이요 감사할 뿐이다.

7. 출애굽 때 애굽의 모든 물을 피로 만들어버린 것은 애굽 사람들이 신격화하고 있었던 나일강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다. 셋째 천사가 모든 물을 피로 만들어 버리는 심판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성도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심(6): 재앙의 중요한 부분이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데 있음을 말한다. 아무리 큰 원한이라도 종말에는 다 갚아 주실 것이다.

8.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대체로 불야성같은 삶이다. 화려하고 밝고 고성방가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어두워지고, 환희의 소리는 고통의 소리로(10), 노래 소리는 훼방하는 소리로(거친 옥)

9. 다음 두 가지 현상의 차이는 무엇일까? 1) 혀를 깨물면 아프다. 2) 아프면 혀를 깨문다.

1번은 실수로 생김 일이라서 순간적으로 그만 둔다. 2번은 다른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혀를 깨무는 것이다. 혀를 깨무는 것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고통이 있다는 말이다. 해산하는 여인의 입에 재갈 비슷한 천을 물리는 것도 같은 이유가 아닐까 싶어서 물어보았더니 이빨이 상할까 싶어서 그런단다.

10. 극심한 고통을 당하여 하나님을 훼방하는 자들은 일관성이 없다. 하나님을 훼방한다는 것은 존재하심과 심판하심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평소에 우상을 섬겼으니 고통을 당해도 우상에게 원망을 해야지 믿지도 않던 하나님을 왜 원망하고 훼방하나? 반면에 어떤 점에서 일관성이 있는가?

원망하고 훼방하면서도 하나님에게로 돌아서지 않는다: 어차피 최후 심판이 시작되었다면 놀이킬 수 없다.

11. 계시록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이런 재앙을 하나씩 우리의 현실에 꿰맞추는 것도 그렇게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를 먼저 생각한 다음 우리의 현실에 같은 원리로 적용하는 것이 옳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운다' 했으니 태양이 더 뜨거워진다는 말인가? 과거보다 태양이 더 뜨거워지고 있다고 신문에 났더란다!

성도들에게 불로 고통을 주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냥 불이 아니라 태양을 동원하여 사르듯이 뜨거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12. 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로부터 지어냈다.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온 인류를 멸종시킬 아마겟돈 전쟁이 두렵지 않은가?

두렵지 않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이 전쟁과 아무 상관이 없다(15). 제 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이 될 것이며 인류는 핵겨울을 맞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그렇더라도 성도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아마겟돈이란 말은 '혈 므깃도'의 헬라식 발음이다. 므깃도가 전쟁의 요충지였다.

13. 앞에서 언급된 인 재앙과 나팔 재앙 중에서 어느 재앙이 여섯 번째 대접 재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까?

여섯 번째 나팔 재앙: 둘 다 유브라테와 전쟁으로 관련되어 있다.

14. 유브라테 강이 말라서 엄청난 재앙이 닥쳐올 것이라는 예언에 따라 실제로 유브라테 강이 옛날에 비하여 수량이 많이 줄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요한이 말하는 재앙이 정말 이런 전쟁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옷을 입고 있는 자가 복이 있을 수 있는가?

영적인 전쟁이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성도와는 상관이 없다! 대체로 강이나 높은 산맥은 국가 간의 경계가 되었다. 강이 마른다는 것은 그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것이다. 영적인 경계가 허물어지는 예는 많이 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세상과 교회, 밤과 낮, 안식일과 평일, 남자와 여자, 피조물과 창조주, 사람과 짐승, 종교, 언어, 국가, 이런 구별이 없어지면서 하나로 통합이 되는 것이 바로 왕들의 길이 예비 되는 것이다. 사단이 놀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다.

15. 개구리가 들으면 섭섭하겠다. 왜 하필이면 더러운 영들을 개구리에다 비유했을까?

와글와글거리면서 내뿜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우면 그럴까? 더구나 이들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거짓말은 의미도 뜻도 없는 개구리 소리인 셈이다. 매스 미디어, 인터넷을 통해 쏟아지는 정보도 마찬가지다. 정말 시끄러운 세상이다. 기독교 서적이나 신문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개구리 소리인 것도 많다.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수밖에 없다.

16. 예수님께서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무어라고 말씀하시는가?

되었다(17): 정말 간단하다. 진짜 위엄있는 말은 길지 않다. 수식어도 필요 없다. 그래서 앞에 '다' 자 하나도 붙이지 않았다. 수정한다면 더 줄여서 '됐다'가 더 좋겠다.

17. 16장에만 '크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올까?

11번: 이런 것을 막판 대회전이라고 하는가? 이제 끝이 이르렀으므로 피차간에 총력전을 펴는 것이다. 하나님의 편에서야 총력전이 아니지만 악한 영이 보기에는 그럴 지도 모른다. 그렇게 전력을 다 쏟고 깨끗이 패망하는 것이다. 드디어 상황 끝!

18.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도적같이 임한다(15). 흔히 최후 심판의 날이라고 부르는 이 날을 가리켜서 본문은 어떤 날이라고 하는가?

전능하신 이의 큰 날(14): 우리가 말하는 주의 날은 대부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요엘 선지자의 말처럼 '주의 날'은 심판 날이다.

19.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큰 성 바벨론을 잊지 않으셨다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면 복인가?

공짜한 일이다: 심판을 행하려고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잊어버리더라도 하거나 피곤해서 쉬더라도 하시면 좋으려만...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 것은 핏빛으로 물들인다는 뜻이다.

20. 일곱 인 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을 일곱 대접 재앙과 비교해보면 상당한 유사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가령, 같은 환경파괴에 초점을 두면서도 재앙의 범위가

다른 점이 그렇다. 세 종류의 각 재앙(6장, 8-9장, 16장) 앞에 붙은 수식어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찾아보자.

인과 나팔 재앙 앞에는 수식어가 없지만 대접 재앙 앞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 종결 편이라는 의미이다. 어떤 의미에서 인 재앙은 계시를, 나팔 재앙은 경고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반면에 대접은 재앙의 집행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지상에서 나타나는 이런 재앙의 모습들은 단지 하나님의 경고일 뿐이다. 최후의 심판은 아직도 시작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심판은 그리스도인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재앙과 관련되어 사용된 동사도 마찬가지다. 뚫는다, 분다, 쏟아내는 동사가 그런 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다. 대접은 많은 양을 담아서 빠른 속도로 쏟아붓기에 가장 적합한 도구이다.

요한계시록 17 장

1. 전장에서 폭격기처럼 퍼붓는 일곱 대접 심판에 의해서 사실상 최후심판은 끝났다. 계시록이 심판을 말하는 책이라면 여기서 끝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심판이 아니다. 승리한 성도들의 영광스런 장면이 남아 있다. 17-20장까지 부록처럼 멸망 받을 자에 대한 내용이 덧붙여져 있다. 17장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구이며 무엇을 뜻하는가?

음녀, 현대인들을 지배하는 정신세계의 우상(15), 즉 과학만능, 물질 만능, 율법주의 등이다: 음녀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했다(18). 즉 이런 임금들을 움직이는 배후의 세력인 셈이다. 용과 짐승의 또 다른 일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2. 큰 음녀가 행한 일은 무엇인가? 지금도 살아 있는가?

1) 많은 물 위에 앉음(1):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15)에게 영향력을 행사함, 땅의 임금들을 다스림(18), 말하자면 영적인 음행을 행하게 함(2).

2)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과 더불어 음행(porno: internet, 비디오 발달의 1등 공신)을 행함(2): 음란한 세대 중에서 순결하게 산다는 것이 어려울까? 모든 동료가 성관계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때 혼자서 순결을 자랑하기가 쉬울까? 가능하면 많은 여자와 잔 것이 자랑일 때 그런 경험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기가 쉬울까? 결국 병신 취급을 당당하게 받을 자세가 되어있지 않으면 이겨내기 어렵다. 왕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음녀는 지금도 당당하게 살아서 우리 주변에 있다. 자기 부인이나 남편과 사는 것이 시들한가? 남편이나 아내 외에 애인이라도 하나 두었으면 싶은가? 음녀가 바로 당신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이미 음녀를 마음에 두고 있는 자다.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바로 그 증거다.

3. 음녀가 물위에 앉았다. 가라앉지 않을까? 환상이니까 괜찮은가? 창녀라면 삐까번쩍한 의자나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있어야 제격일텐데? 이 음녀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다. 바벨론이 물 위에 앉았다면 어떤 모습일까(렘 51:13)?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발달한 도시이다. 관개시설이 잘 되어있어서 물이 풍부한 도시였다. 그 물이 곧 풍성한 수확을 보장하기도 하고 적을 막아주기도 하는 자랑스러운 것이었다. 적절하게 조절이 가능한 물은 풍요의 상징이요, 안전보장의 대명사였다. 물이 귀한 유대 사람들의 눈에는 물 위에 앉았다는 표현이 엄청난 부러움의 상징일 수도 있다. 빠져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앉아보고 싶은 느낌이 드는 표현이 아닐까?

4. 차가 없어도 별로 불편함을 모르고 살 때에 주변에서 꼬드기는 말이 '차가 있으면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른다. 이렇게 좋은 걸' 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천국가면 차도 비행기도 없을 텐데 어떡하지?

성령으로(3): 어디든 순식간에 이동하게 된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곳이다.

5. 외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과 외국어를 아는 사람 중에 누가 한국어를 더 잘 알까? 한국어가 지닌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외국어와 비교해야 가능하다.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으면 냄새가 나는지 나지 않는지 잘 알 수 없다. 거기에서 좀 떨어져야 알 수 있다. 느닷없이 왜 이런 풍만지 같은 소리를 할까?

요한을 광야로 데려갔다(3): 음녀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그 속에 파묻혀 있으면 음녀를 잘 볼 수 없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에서 떨어져 나와야 하늘의 별이 보인다. 세상 문명 속에 폭 빠져 있으면 자신이 음녀와 놀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 우리는 광야로 물러가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같이 먹고, 같이 즐기고, 같이 보는 일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6. 이 음녀의 모습은 어떠한가(36-6)? 그리스도의 신부와 대조시켜 보자.

1) 붉은 빛(사탄의 색깔) 짐승(몸에 참람된 이름과 일곱 머리와 열 뿔)을 탐(3) 예수 그리스도는 나귀새끼를 탄 신 분이다: 괴물같이 생긴 짐승과 화려하게 성장한 음녀? 마치 미녀와 야수처럼 보인다. 영화의 야수는 본 모습이 왕자이었다고 하던가? 여기 이 짐승은 사탄의 하수인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더라도 뒤에 기동서방이 있는 창녀가 아닌지 유심히 살펴볼 일이다.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은 미에 관한 기준이 너무 외모에만 있기 때문이다.

2) 자주 빛과 붉은 옷을 입음(4) = 왕의 옷 어린양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겔손, 희생, 섬김을 의미함)

3)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밈(4) 예수는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만한 것이 없다: 내면을 치장해야 한다. 세속문명은 화려함이 목표인 것 같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밤을 휘황찬란하게 꾸미는가 보라. 성탄절 치장도 백화점이 교회보다 훨씬 더 화려하다. 눈과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4) 손에 금잔(4) 예수님의 손에는 제자들을 받을 닦던 수건? 성도의 손에는 갈레나 행주가 더 어울린다.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는 사람이 볼 때 그런 것이다. 음행하는 자의 눈에는 그것이 진기한 포도주로 보였을 것이다. 인터넷, 컴퓨터, 비디오, 현대문명의 산물은 정말 화려한 모습이다. 그러나 그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할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창녀의 손에 들린 금잔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현대문명을 손에 든 창녀가 되지 않아야 한다.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지만 자신만의 쾌락을 위하여 큰 돈을 쓰는 것이나 성경 한절 읽을 시간이 없으면서 텔레비전이나 영양가 없는 신문이나 잡지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가?

5) 이마에 이름(5):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쓰여 있지만 음행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멋있어 보인다. 볼 것 없는 텔레비전 타이틀도 때로는 정말 거창한 제목을 붙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 때 우리나라에 '지존파'라는 것이 있었다. 지존은 하나님 외에 쓸 수 없는 말이다. 사람을 짐승처럼 죽이면서 자신들을 가리켜 지존파라고 불렀다. 어쩌면 그들을 숭배하는 무리들이 나올까 두렵다.

6) 예수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함(6): 초대교회 성도들이 흘린 피를 가리킨다. 그들이 마시고 취하는 포도주는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피다. 그들의 유혹에 말려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피를 마시게 된다는 말이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연약한 성도들이 피를 흘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나의 화려한 치장과 쾌락으로 인하여 형제가 실족하는 일이 없는지 주의해야 한다.

음녀에 관한 요약) 얼핏 보기에 화려하고 많은 사람의 시선을 받을 만한 매력적인 모습이다. 거칠고 찰랑된 표현이나, 가증한 것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매력적이다. 이 세상 문명의 악한 모습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에게나 악하지 즐기며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더 매력적이다. 그러나 본질은 창녀요, 짐승과 놀아나는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일 뿐이다. 우리 보기에 사치함이 그들의 보기에 아름답다. 이런 사치함이 방종과 힘의 남용으로 이어져 결국은 문명의 종말을 불러오게 된다.

7. 바벨론은 무척 억울하겠다. 멸망당해서 파괴된 지 오래인데 왜 자꾸 들먹이나? 도대체 무슨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가?

초월적인 세상 권력의 상징이다(당시의 로마): 사치, 음란, 우상, 성도들의 피흘림이 있는 곳이며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과 대조를 이룬다. 로마라면 로마라고 하지? 황제숭배를 거역하다가 유배를 당한 요한이 로마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직설법으로 썼다면 이 편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성도들은 더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듣는다.

8. 요한은 왜 기이히 여겼을까(6)?

심판당할 불쌍한 모습이 아니라 너무 화려한 모습이기 때문(6): 음녀가 받은 심판을 보여주겠다(1)고 했는데 심판받는 모습이 아니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쩐지 초라해 보이기 쉽다. 반면에 세상의 것들을 즐기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왜 기이히 여기느냐는 책망을 듣게 된다. 요즘 아이들이 텔레비전의 스타를 보고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참 기이한 일이다.

9. 이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기는 자는 땅에 거하는 자요 생명책에 이름이 녹명되지 못한 자라고 하는데(8) 요한이 기이히 여겼으니 요한은 땅의 사람인가?

사도 요한마저 기이히 여길 정도로 음녀의 정체를 아는 것이 어렵다는 뜻일 것이다. 고의로, 말하는 의도 파악은 뒷전이고 이런 식으로 말꼬리를 무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10.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1:4)이다. 그를 대적하는 짐승은 어떤자인가?

전에 있었다가 시방(부활 사건)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8): 지금 없다는 것은 초대교회에 가해지는 핍박도 사실은 별 것 아니라는 위로의 말씀이다. 비록 현실이 고통스럽더라도 장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라는 것이다.

11. 짐승의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란다(11). 로마는 일곱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였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로마를 가리킨다? 당시 사람들은 아주 쉽게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면 일곱 왕은 누구인가? 다섯은 죽은 왕이고, 하나는 현재의 왕이고, 하나는 미래의 왕

이다. 로마를 다스린 많은 황제들이 있었으니 누구는 넣고 누구는 빼고 하는 식으로 꺾어 맞추는 작업을 학자들이 많이 했다. 666, 144000, 한 때 두 때 반 때 등의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하느라고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발생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맞는 것끼리 줄긋기 식’의 해석은 이 글을 기록한 요한의 의도가 아니다. 10절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조금만 더 참고 견디자: 다섯 왕이 죽었고 현재 하나 있고, 한 왕이 남아있지만 잠깐이면 끝이 난다. 그것이 어느 왕이냐에 대한 관심은 전혀 요한의 관심사가 아니다. 실제로는 그 뒤에도 많은 황제가 등장해서 끈질기게 핍박을 했지만 그것 역시 잠깐의 통치일 뿐이라고 보는 것이다.

12. 전에 있다가 시방은(현재는) 없어진 짐승은 여덟 째 왕인데 그가 일곱 중에 속한 자(11)라는 말은 여덟째가 어떻게 일곱 속에 들어가느냐는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놈이 그 놈’이란 뜻이다. 열 뿔은 미래의 열 왕을 가리킨다. 이것은 또 어느 왕을 가리키는가? 유럽공동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왕들이 누구를 가리키느냐가 아니다. 이런 환상을 전함으로 성도들이 무엇을 기억해 주기를 요한은 바라고 있을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라) 어린양이 곧 이길 것이다. 왕들의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 권세를 일시동안 받으리라는 것이다. 계시록에는 기간을 나타내는 많은 표현이 있다. 그 중에서도 열 왕이 권세를 누리는 기간이 가장 짧은 단위로 나타난다. 잠깐(10), 멸망으로(11), 일시(12), 어린 양에게 패함(14)

13. 열이라는 수는 대체로 충만함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왕이나 권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도 우리가 없다(12). 실제로 16:14에서는 귀신의 영이 온 천하 임금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치권력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할까? 아니면 본문의 이런 해석처럼 세상의 모든 권력은 짐승의 하수인일까?

정치권력은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지 못 한다: 기독교가 힘을 지녔을 때에는 항상 교회가 타락의 길을 걸었다. 장로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멋진 세상이 될 것이라고 믿었으나 결과는 너무나 허무했다. 정치권력은 절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인정이나, 겸손이나 겸양의 미덕을 가진 생명체가 아니다.

14. 음녀의 모습은 화려하고 그가 탄 짐승도 결코 만만한 짐승이 아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지닌 나라요 임금들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 무엇인가?

어린양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과 싸워서 패함(11) 승승장구하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지하로 숨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기도 했다. 어두운 지하 카타콤에서 일평생을 지낸 성도들도 많았다. 밤에만 나와서 불야성같은 로마시를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성도들은 없었을까? 그래서 복음을 버리고 휘황찬란한 로마로 내려간 자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세상의 그 화려함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어린양에게 패할 수밖에 없는 그 날을 바라보아야 한다.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자신이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15.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열 왕들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연합하여 무엇인가를 꾸미기 때문이다: 어린양과 더불어 싸우기 위하여 짐승을 연합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복종하는 셈이다. 영적인 싸움이지 무슨 3차 세계대전을 상상치 말라.

16. 17장은 음녀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겠다는 말로 시작되었는데 음녀가 무슨 심판을 받았는가?

사랑을 나누던 자에게 배신당함(16) 사람마다 가장 큰 고통이 다르다. 목사에게 돈을 빼앗거나 인물이 못났다고 말하는 것은 별로 충격이 안 된다. ‘설교를 그렇게 밖에 못 하나?’라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충격일 수 있다. 사랑(?)을 받던 자들이 배신하다? 음녀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심판이다.

17. 음행이란 것이 참으로 묘한 것은 온 몸을 던져 사랑하는 것 같지만 결코 사랑이 아니다. 단 물이 빠진 편을 버리듯 언젠가는 버리게 된다. 열 뿔과 짐승이 왜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를까?

어차피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익에 반하면 당연히 이런 모습을 보인다. 사탄의 세계는 결국 자중지란에 빠질 것이다. 더 큰 이상의 실현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목표로 모인 무리들은 결국 산산이 부서지기 마련이다. 교회가 무슨 목표를 위하여 모이고 있는지 돌아보자. 우리의 가장 큰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나의 이익인가? 죽느니 사느니 하다가 원수가 되는 예가 있는가? 불꽃이 튀어서 일어난 남녀의 불장난같은 사랑은 대부분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육체적인 사랑이기 때문이다.

18.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열 뿔에게 어떻게 하셨는가(17)?

자기(=하나님의)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한 마음으로)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다: 즉 열 왕들이 한 마음으로 뿔왕 짐승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운 것(13-14)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이다. 사탄의 활동마저 하나님의 허락 하심 내에서 자기들 뜻대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 나뵈대로는 하나님을 상대로 싸운다고 큰 소리 쳤겠지만 하나님을 돕고 있었을 뿐이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대로 이루어져 갈 뿐이다.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사탄이 가장 마음 아픈 것이 바로 이 점일 것이다. 비록 하나님이 안 계신 뜻깊은 환란이 있어도 이런 환란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구약에서는 부활사상이 신약에서처럼 확실하게 보이지는 못하고, 언급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나, 이미 존재해 있었던 것만은 다음 성구들이 보여주고 있다.

욘 14:13-15, 19:25-29, 시 16:10, 17:15, 49:15, 73:24, 사 26:19, 단 12:2-3, 호 6:2 등.

요한계시록 18 장

1. 17장은 바벨론이 멸망당해야 할 정치적, 종교적 이유를 설명한다. 그러면 18장은 어떤 측면에서 바벨론이 멸망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는가?

상업(경제)적 측면: 18장에서는 음행과 사치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음행은 기본적인 죄이고 여기서 추가된 것은 사치이다. 사치함과 관련된 자들이 왕, 상인들, 선객들이며 이들이 사고팔았던 상품들이 다양하게 소개되는데 이것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는 꿈같은 것이다.

2. 17장은 꼭 신문의 시사만평을 닮았다. 정장을 하고 짐승을 탄 여자 그림 한 장으로 하고 싶은 말을 강렬하게 전하고 있다면 18장은 신문의 어떤 부분과 비슷한가?

신문의 사실이나 시론 같다: 단순한 사실의 묘사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와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던 구약의 선지자들을 연상시킨다.

3.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하는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며 애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1) 땅의 왕들(9-10), 상고(상인)들(11-14, 15-17), 선장과 선객과 선인들(176-19)

2) 자신들의 삶과 치부의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바벨론을 사랑하여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슬픈 것이다. 반면에 성도들의 삶의 근거는 바벨론이 아니다.

4. '땅이 환하여지더라'는 표현은 앞에서 본 누구와 닮았는가?

해(sun)를 입은 여인: 이 세상이 밝은 것은 태양 때문이 아니다. 창조시에 태양은 사 일째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세상을 밝히는 빛도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태양조차 원본이 아니라는 말이다. 천사도 이렇게 밝은 존재인가? 다른 천사는? 이 천사로 말미암아 땅이 환해지는 것은 그가 특별한 임무를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땅을 밝히는 성도가 되자. 반면에 그 화려한 바벨론은 칙칙하고 음산한 곳이 되고 말았다.

5.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기록은 14:8에 이미 있었다. 그런데 또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말한다. 다른 바벨론인가? 같은 바벨론인가?

같은 바벨론이다. 계시록이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같은 사건을 두고 반복하면서 점점 더 세밀하게 기록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14장에서는 단순히 무너졌다고 말했지만 여기서는 무너져야 하는 이유와 방식과 결과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바벨론은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고 그의 몰락을 슬퍼하는 무리들(왕, 상고, 선객들)은 사단의 추종자들이다.

6. 옛날 얘기지만 서울 갔다 오면 엄청난 자랑거리가 되던 시절이 있었다.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서울 이야기를 한다. 솔깃해서 부러워하기도 했다. 사실은 한 며칠 서울 갔다 온 아이가 서울에 대해서 봤으면 얼마를 보았을까? 한 때 외국 다녀온 이야기가 유행하더니 이제 그것도 시들해졌다. 가본들 본 게 얼마나 된다고? 요한의 독자들에게 바벨론 즉 로마는 이런 환상의 도시이다. 지금 우리가 서울, 뉴욕을 상상하며 감격하는 정도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동경의 도시이다. 성도들의 눈에도 그런가?

무너져 더러운 귀신의 처소가 될 것(2): 음행과 사치, 땅의 상고들의 치부한 모습을 바라보노라면 솔직히 부러울 때가 있다. 아예 부럽지 않은 성도들도 있겠지만 그것을 조금만이라도 함께 누리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다. 눈과 귀의 즐거움보다 영의 즐거움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아는 자의 행복이 얼마나 더 큰지 모른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 로마를 떠나 카타콤에 숨어서 짐승처럼 지내는 성도들의 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로마는 더러운 귀신과 부정한 짐승들의 처소일 뿐이었다.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오히려 더러운 곳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 가장 더러운 것을 가장 아름답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치와 돈에 대한 관심보다는 절제와 이웃을 섬기는 데에 더 관심이 있어야 한다.

7. 바벨론이 무너진 것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때문이다. 음행의 포도주면 음행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면 진노의 포도주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표현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마치 한 장의 필름에 두 장의 장면이 찍힌 것 같다. 설명해보자.

음행의 포도주는 멸망의 원인이고, 진노의 포도주는 멸망의 실행 혹은 방법인 썩이다: 즐기던 것이 바로 심판의 도구가 된다. 음란하던 자에게는 사랑의 배신을 당하게 하고 포도주 잔을 마시던 자에게는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신다. 그렇게 좋아하던 것이 심판으로 변할 것이다. 바벨론이 부어라 마

서라 하던 장면과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는 장면은 어떤 의미에서 모양을 같고 내용은 전혀 다른 현상이다. 영화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언어에도 오버랩이 있나?

8. 왕들의 음행은 무엇이며, 상고들도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3)는 것은 무슨 뜻인가?

왕들의 음행: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다스리지 않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며 권력으로 부정을 행하기 때문이다. 더러는 선한 왕이 있기도 하지만 정치권력의 속성이 그렇게 의로운 것이 아닌 모양이다.

상고들도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함: 바벨론의 방탕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뒤치다꺼리 하던 상고들이 이들을 이용하여 치부하였다. 사치하는 자 옆에는 그들의 비위를 맞추며 자신의 이익을 노리는 자들이 있게 마련이다.

9.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4)'고 하신다. 거기란 당연히 그들의 죄와 그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지적한다면 성도들이 참여치 말고 나와야 할 곳(것) 세 가지는 무엇인가?

음행과 사치(3) 그리고 재앙(4) 음행은 죄 같지만 사치도 죄인가? 음행이나 사치는 자신만 알고,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거기서 나와야 재앙에서도 나오게 되는 것이다. 나와서 어디로 가는가?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뜻이다. 기존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결단이었는가! 그런 결단이 날마다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 억지로 결단을 강요받으면서 끌려 나간 롯의 모습도 그려보자.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보다는 나은가?

10.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은 다르게 보인다. 우리에게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면서 심판받은 세 종류의 인간들에게만 나타나는 끔찍한 하나님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

불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5) =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은 결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왜 여기서는 불의를 기억하신다고 하는가?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말씀이다. 믿는 성도의 죄는 결코 기억하지 않으신다. '도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확실하게 용서하셨음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죄의식에 눌러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정말 악다발은 그리스도인이다. 반면에 믿는 않는 자의 불의는 결코 잊으시지 않는다. 컴퓨터가 지워버리려면 얼마나 많은 자료를 순식간에 날려버리는지 기억하려면 오랫동안 정확하게 기억하는가? 옛날의 성도들은 이런 사실을 이해하기 쉽지가 않았겠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이해하기 쉽다.

11.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어떤 원칙으로 심판하실까? 그 원칙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박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던 예수님의 사랑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

1) 행한 대로(그대로), 2) 갑절로: 심판의 원칙은 두 가지다. 6, 7절에 '그대로, 그만큼, 행위대로 준다'는 것은 반드시 갚는다는 뜻이고 '갑절로 갚는다'는 것은 꼭 두 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고 정확하게 처벌을 한다는 히브리적 표현이다. 모습은 그대로 질은 두 배로!

우리 보고는 용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설마 꼭 그대로 심판하실까? 심판하실 때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실 때는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 내 원수를 그대로 갚아야 하는 것 아닌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갚지 않아야 한다.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행위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직도 심판의 때가 되지 않았을 때에 유효하다. 심판이 시작되면 더 이상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

6절의 '섞은 잔'(시 75:8, 잠 9:2, 23:30, 아 7:2, 사 65:11)이란 표현은 독하고 빨리 취하는 술을 만들기 위해서 약재를 추가한 것을 말한다. 그것도 그대로 갚아주라는 말이다.

12. 바벨론의 겉모습은 황제이지만 실상은 무엇인가(7)?

과부: 음녀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요염한 모습이다. 마치 여자황제 같은 모습이라는 말이다. 실상은 가장 불쌍한 과부라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과부와는 전혀 다른 말이다. 남자없이 여자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과부가 불쌍하다는 것이다. 다른 비슷한 예를 더 들어보자.

13. 차라리 '순식간에', 혹은 '한순간에' 라고 말씀하시면 쉬울 텐데?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표현을 두 가지 찾으시오.

하루 동안에(8), 일시 간에(10, 17, 19)

14.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6)께서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는 재앙을 주신다는 것은 그들이 어

떻게 살았기 때문일까? 죽는 판에 흉년이 무슨 소용이 있다고?

사망: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았기 때문이다.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

애통: 음행을 즐기며 즐겁게 살았기 때문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땅에서 애통하며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즐거운 인생을 살려고 하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가?

흉년: 너무나 사치하고 풍족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로마의 사치와 오늘 한국 사람들의 사치는 누가 더 심할까? 여기에 나오는 장사꾼들의 품목을 보라.

15. 8절까지가 바벨론, 즉 사단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다. 이제 그 추종자(왕, 상고, 선객)들의 비명을 들어보자.

1) **땅의 왕들(9-10):** 병사가 하나도 없는 장군이 무슨 장군인가? 도성이 다 타버렸으니 이제 어디서 왕 노릇을 하겠는가! 상인들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사라진 셈이다.

2) **상고(상인)들(11-14, 15-17):** 소비자가 없으면 상인이 무슨 소용인가! 손님이 많아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쳐도 손님이 없는 상점주인보다는 낫다. 파리날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고! 더구나 상품이 다 타버렸다.

3) **선장과 선객과 선인들(176-19):** 소비자(왕)도 없고 공급자(상인)도 없으니 운수업자는 말해 뭘 하겠나? 유통업자가 큰 소리를 치는 일은 정말 최근의 일이다. 상인이 큰 소리를 치다가 어느 새 소비자가 왕이라고 하더니 지금은 유통업자가 제일 힘이 센 모양이다. 심판의 대상자를 이렇게 분류한 것이 참으로 흥미로워서 해보는 말이다.

16. 백화점 전단지 보고 약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처럼 여기 나온 품목들도 그런 것 아닐까? 맛있는 것, 빛난 것(14), 화려하게 꾸미는 것(16)들이다. 여기 나온 품목이 백화점의 전단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찾아보자. 가령, 평소에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이 부정한 돈 봉투 하나 받은 것이 드러나면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한 모든 것이 돈 때문이었다는 말을 듣게 된다. 단 1%의 과오가 99%의 순수함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바로 이 1% 때문에 자신의 모든 행위가 비난 받는 상고들의 이 1%가 무엇인가? 이것만 없었다면 상인들의 행위를 합부로 비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사람의 영혼들(13): 사람의 영혼을 사고팔았다는 것에서 이들의 장사하는 행위가 선한 것이 아니었음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동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물품들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어서 고통을 겪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자신들의 아픔을 신원하신다는 의미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지루한 글이었지만 초대 교회의 독자들에게는 하나하나가 다 시원한 느낌을 주었을 것이다. 한 때 속으로 부러워하면서 동경했던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17.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움에 잡히거나 사람을 두렵게 하려고 계시록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동기가 불순해 보인다. 여러분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기억하고 남에게 들려주고 싶은 구절을 이 장에서 찾는다면?

내 백성이 즐거워하라(20): 성도들은 이 재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아니 이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를 신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책이다.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책이다. 고통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로하기 위한 책이 계시록이다. 계시록만 그런 것이 아니다. 구약의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할 수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두렵기만 한 성도는 아직도 제대로 된 성도가 아니다.

18.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탈 때 아무도 도망 나올 수 없었다. 롯의 가족들도 성을 빠져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살아 나온 것이다. 최후 심판은 그것보다 더 빠르게 끝날 것이다.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는 것보다 더 빠르고 피할 수 없는 방법이 또 있는가?

멧들을 바다에 던지는 것: 큰 배는 선실이 있어서 가라앉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멧들은 바로 가라앉는다. 그냥 물기둥이 한번 치솟고, 동심원처럼 파도가 한번 퍼져나가고 나면 끝나는 일이다. 마지막 심판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끝이 날 것이다.

19.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함께 사라지는 것들은 연주자들의 음악 소리(22), 세공업자, 멧들소리, 등불 빛, 신랑 신부의 소리들이다. 이것들이 무슨 죄가 있는데 함께 사라져야 하는 것인가?

당시 독자들에게 부러움을 안겨주는 것들이었다. 아니,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었다.

20. 바벨론의 멸망 원인은 음행과 사치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내용이겠지만 1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특히 상고들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고들과 관련된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 '1) 상고들이 왕족임, 2) 만국을 미혹함, 3)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죽임'이 된다. 이것이 어떻게 죄가 되는지 설명해보자.

1) 돈이 말하는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 상고들이 땅의 왕족(23)이라는 말은 돈을 가진 사람이 돈으로 왕족처럼 권세를 누렸다는 말이다. 지금도 돈이 말하는 세상이다. 유전무죄? 권력을 가진 정치가들의 가장 큰 밑천은 돈이다. 과거에 유명한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길은 두 가지다. 공부 잘해서 들어가는 방법과 돈으로 들어가는 방법인데 학교를 빚내는 것은 어느 쪽이었을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윗감을 고를 때 일반적으로 말해서 착하고 공부 잘 한다는 사람을 선호하지 않는다. 늘꾼수가 없다는 것이다. 말하는 것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리 답답할 것이 없다. 통이 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돈의 위력으로 만국을 미혹하였기 때문(23): 과도한 부의 축적이나 사용에는 대체로 온갖 복술, 속임수가 동원되는 법이다. 정상적으로 노력하고 알뜰하게 저축하여 재산을 모은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몸으로 돈을 벌기보다는 머리를 잘 써야(굴려야) 돈이 된다. 돈이 돈을 번다고 이런 방법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기에 꼭 알맞다. 돈을 많이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아는 대로 이야기 해보라. 할 말이 별로 없으면 세상물정에 어두운 사람인가? 순진한 사람인가?

3) 돈이 결국은 사람의 생명까지 가볍게 보게 만들기 때문(24): 돈 없는 사람은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는 것이다. 심지어 '너 죽이고 돈 얼마 물면 그만이야'는 공갈까지 나돌았으니! 그런 눈으로 보았을 때 선지자나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처럼 보였겠는가? 그런 오만함이 수 많은 성도들을 죽이기 까지 했다.

요한계시록 19 장

. 19장은 여러 면에서 18장과 대조를 이룬다. 18장의 다음 내용과 대조적인 내용을 19장에서 찾아 보자(1-5 번)

1. 음녀를 사랑한 자들에 대한 심판(18장)

심판자에 대한 찬양(2)

2. 통곡 소리(18장)

찬양: 이 찬양의 특징은 할렐루야 찬양이라고 할 수 있다(4번 혹은 5번: 1, 3, 4, 6 + 5 할렐루야가 '여호와를 찬송하라'이므로). 이 단어는 우리에게 대단히 익숙한 단어이지만 여기와 시편 외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아니다. 우리 귀에는 하늘의 찬양이 들리는가? 아니면 이 땅의 즐거운 소리가 들리는가? 이 땅에서 나는 즐거운 소리는 곧 슬픈 노래로 바뀔 것을 확신하는가?

3. 3번의 곡소리: 땅의 왕들(18:9-10), 상고들(18:16-17), 선ք과 선인들(18:19)

3번의 찬양: 5번 일 수도 있는데 두 번(3, 4)은 찬양이라기보다는 추임새 일수도!

4. 따로 따로 나는 곡소리(18장)

함께 하는 합창(교창, 혹은 화답)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24장로, 네 생물, 보좌에서 난 소리: 찬양대가 찬양을 단독으로 아름답게 드리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온 성도들과 서로 화답하는 찬양도 멋진 것 같다. 천국의 찬양은 이렇게 서로 화답하는 찬양이기도 하다.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니까 보좌에서 난 소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고 다시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또 화답한다. 서로 같은 내용으로 화답하고 있다.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다.

5. 성도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18장의 무엇과 대조적인가?

음녀의 자주 빛과 붉은 옷,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손에 가중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금잔: 수수하고 착한 사람보다는 화려하고 적당히 비비는 재주도 있는 사람이 더 빛나는 세상 아닌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도 실상은 심판의 대상이다.

6.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거기서 주로 무엇을 할까? 계속 그것만 해도 재미있을까?

찬송: 본문에는 세 개의 찬송이 있고 찬송을 부르는 허다한 무리(4,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와 찬송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뇌성 같다는 표현이 있다. 이것이 천국의 주된 모습일 것이다. 설교도, 기도도 없이 찬송만 올려 퍼지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있지만, 싫어도 찬송하고, 피곤해서 그만 했으면 하면서 억지로 찬송을 하기도 한다. 하늘나라에서는 '이대로 영원히 잠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때의 바로 그런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므로 그 기쁨의 표현이 영원한 찬송으로 나타나는 곳이다. 천국에서는 찬송이 의무가 아니라 결과일 뿐이다. 끊임없이 우리 입에서 찬송이 울려나올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를 생각해 보라. 노래에 전혀 소질도 실력도 없는 음치가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는 상태를 짐작해보자.

7. 찬양의 핵심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2) 전능하신 이의 통치(6), 어린양의 혼인 잔치(7).

8. 세세토록 올라가는 연기(3)의 의미를 그 앞에 있는 찬송과 연결해서 찾는다면?

끝없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일회적인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다. 3절을 '할렐루야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구나' 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요 3:16절처럼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다. 어차피 죽음이란 원래 없었다. 벌 받으며 사느냐 행복하게 사느냐만 있을 뿐이다.

9. 하늘의 찬송 소리는 아주 우렁차다. 세 가지 표현을 찾아보자.

허다한 무리의 음성, 많은 물소리, 큰 雷聲: 어떤 느낌인가? 떨어져서 들으면 소름이 끼치도록 두려울 것이고 이 소리 속에 들어가 있으면 엄청난 희열이 넘칠 것이다. 모노로 들다가 스테레오나 서라운드 음향으로 듣는 것처럼 느낌이 전혀 다를 것이다. 나아가 피부로 울림을 느끼는 기분이면 어떨까? 더구나 잘 하는 사람 옆에서 함께 찬양을 하고 있으면 자신도 저절로 잘 하게 된다.

10. 아무리 땅을 더럽게 한 음녀에 대한 심판이지만 사람들이 심판받는 때에 이렇게 감격하면서 찬양을 해도 되나?

음녀가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며 몸부림쳐보지 못한 사람이나 그런 소리를 할 것이다.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을 버려야 했던 성도들에게 물어보라: 교회가 허물어져 가는 아픔, 믿는 성도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울부짖던 자들에게 물어보라.

교회 일이 너무 많다고 불평하는 성도들은 교회에서 할 일이 없고, 일하고 싶지도 않는 아픔을 겪어보지 못한 성도들이다. 교회가 염려스러워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하던 성도는 제대로 된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해보는 것이 소원이기도 하다.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학대하다니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고 몸부림을 쳐보지 않았던 사람이나 이런 소리를 하는 법이다. 이제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동감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2).

11.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나타나는 표현 중에(8) 앞뒤가 잘 맞지 않거나 어색한 부분은?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신부가 준비되었네’ 라는 복음송이 있지만 본문은 신부가 예비하였다고 한다. 무엇을 예비하였을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스스로 예비하였다고 한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허락하사 입게 하셨으니: 성도들 자신이 옳은 행실을 행함으로 세마포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입을 수 있음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완전한 조권이 아님을 말한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그러나 준비는 해야 한다.

12. 진정으로 복된 자는 어떤 자인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9): 수수하지만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다. 이 땅에서도 진정한 행복은 배터지게 먹고 누워서 씹씹거리는 게 아니고 적당한 양을 즐기며 먹고 땀 흘려 일하는 것이다. 다음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다.

13.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는 무슨 자격인가? 신부? 들러리? 하객? 손님?

어떤 관계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함을 받았고 참가하게 되었으면 감사한 일이다. 성경은 우리를 신부라고 하기도 하고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친구, 형제, 청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아마 천국에 들어가서는 그런 특정한 관계로 매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서로 안에서 하나가 되어 모든 관계가 다 성립하는 특수한 관계일 것이다.

14. 하나님의 일꾼(교사, 선지자, 목사, 선배)으로서 가장 주의하여야 할 일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경배나 영광을 가로채는 일(10): 요한이 없드려 경배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말린 천사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열심히 애쓰면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으면서도 지켜야 할 태도이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한다. 그렇다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 사람들(제자나 이웃들)의 시선을 끌어모을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모아서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그런 능력은 있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능력 없는 것이 결코 자랑이 아니다.

15.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애매한 곳은 반드시 문맥을 따라서 생각해야 한다. 대부분의 영역은 ‘the testimony of Jesus is the spirit of prophecy’이다. 쉬운 말로 풀이해 보자.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선지자의 마음이어야 한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예수를 증거해야 한다. 존중받아야 할 이는 예수시다. 혹은, 예수께서 증거하신 것이 바로 선지자의 마음이어야(=선지자의 마음에 있어야) 한다. 선지자는 예수께서 증거하신 것을 증거해야 한다. 양쪽으로 다 가능해 보인다. 소유격(of)이 ‘목적’의 의미나 ‘주격’의 의미로 다 사용되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는 성도의 마음이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나 ‘예수께서 증거하신 것’에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더 쉬운 말로 하면 복음의 핵심은 예수이어야 한다. 경배의 대상도 그 분이요, 예언의 내용도 그 분이여야 한다.

16. 음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몸에 참람된 이름과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었다고 했다(17장). 본문의 심판자는 어떻게 음녀와 대조를 이루는가(11-13)?

붉은 빛 짐승 백마

참람된 이름 충신과 진실, 자기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12), 하나님의 말씀(13), 만왕의 왕 만주의 주(16):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

일곱 머리와 열 뿔 많은 면류관

자주 빛과 붉은 빛 옷 피 뿌린 옷

17. 백마 탄 자의 옷이 왜 피 뿌린 옷인가? 십자가상의 피인가? 원수의 피인가?

심판할 때 물은 원수들의 피(포도주를 판련): 백마 탄 자의 역할이 심판하는 것이다. 반면에 십자가

상의 피는 묻으면 희게 된다.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사 63:2) 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 심판자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요 1:1): 만왕의 왕, 만주의 주(16)

19. 심판의 세 모습은?

입에서 나오는 이한 검(1:16), 철장으로 다스림,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음(15)

20. 본문에는 두 개의 잔치가 그려지고 있다.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공통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

차이점: 성도가 즐기는 잔치 새가 즐기는 잔치

21. 용의 하수인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가 왜 전쟁을 일으키는가(19)?

말 탄 자를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거역하는 것이다. 죽을라고! 특히 그 앞잡이 노릇을 하던 놈, 거짓 선지자를 반드시 징벌하실 것이다. 성도들을 박해하던 주범이었으니!

22. 계시록은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책이 아니다. 잘못 읽으면 많은 짐승들이나 이적을 일으키는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두렵게 한다. 그러나 그들의 하는 짓을 보면서 성도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왜?

결국은 사로잡혀 산 채로 유황 불못에 던지울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 짐승들은 새의 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결말을 미리 알고서 이들의 등장이나 하는 짓을 보아야 한다.

요한계시록 20 장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에 의한 20장 비교)

항목	전천년설의 견해	무천년설의 견해	관련성구
무저갱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주께 패배한 사단이 지상의 천년왕국 기간 동안 갇혀 있을 임시 처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사단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아 그 활동이 제한된 것.	1, 3
일천년 동안	문자적인 천년이나 일정 기간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이 지상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 기간	상징적으로 이해하여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 때까지의 전 기간을 가리킨다.	2, 4, 6
만국을 미혹치 못하게	사단이 재림하신 그리스도께 패하여 무저갱에 갇혔기 때문에 천년왕국 기간 동안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게 된 것.	교회의 전 역사 기간 동안 비록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할지라도 사단의 세력은 결정적으로 패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하고 말 것.	3
왕노릇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서 이 땅 위에 천년왕국을 건설하실 때 성도들이 주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될 것.	믿는 성도들이 죽은 후 그리스도의 재림 시까지 하늘나라에서 주와 함께 왕 노릇하는 것과, 땅 위에서 성도들이 복음의 권세로 세상을 심판하고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	4, 6
첫째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신실한 성도들만이 먼저 육체적으로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되는 것.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죽어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	5, 6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와	천년왕국이 끝나고 흰 보좌에 의한 최후 심판이 있기 전에 곡과 마곡에서의 마지막 싸움을 위해 사단이 일시적으로 놓여 나는 것.	교회의 전 역사 기간 동안 사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거의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점차로 그 힘을 회복하여 성도들을 핍박하고 세상 권세를 잡게 되는 것.	3, 7, 8
곡과 마곡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아마겟돈 전쟁과는 다른 것으로 천년왕국이 지난 후 최후 심판 직전에 사단과 그 추종세력이 최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	아마겟돈 전쟁의 또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게 될 이미 판가름 난 사단과 하나님의 최후 결전.	8-10
둘째 사망	첫째 부활 때 일어나지 못한 불신자들이 천년왕국 후에 육체적으로 부활하여 최후 심판을 거쳐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재림 때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여 백보좌 심판에서 영생과 형벌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	11-14

1. 옛 뱀이 많이 자랐다. 어느 정도로?

용: 낙원에서 하와를 유혹하던 바로 그 뱀이 실제로 마귀요 사단이다. 앞에서 심판받은 음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하수인이다. 이제 그 우두머리를 심판하신다. 이제 유황 불 못에서 잘 놀아봐라 (10).

2.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는데(창 3:15) 천사가 옛 뱀을 잡아 가두어버렸으니 여자의 후손은 할 일이 없는 것 아닌가?

겉으로 보기에는 천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책임자, 힘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천사가 마지막 잔일을 처리하는 것일 뿐이다. 용은 결박할 수 있다치더라도 마귀나 사단은 쇠사슬로 결박이 잘 될까? 결국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3.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시간대별로 정리해보자. 가령, 용 결박, 순교, 천년왕국, 첫

째 부활, 둘째 사망, 잠긴 농임, 미혹, 전쟁과 불사름, (둘째 부활?) 흰보좌 심판, 등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해놓고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머나먼 훗날의 얘기가 되고 만다. 먼 훗날의 얘기가이기도 하지만 일부는 당시의 성도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일 것이라고 보면 천년왕국도 상징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무천년설).

4. 사단을 결박해 두었는데 일천년 후에 잠긴 농임 것이라니까 ‘언제부터 일천년이 시작되고 언제 끝나며 사단이 잠시 놓이는 때는 언제일까?’ 하는 식으로 계시록을 살피는 것은 계시록의 원래 독자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필박 중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고통이 바로 결박된 사단의 마지막 발악, 혹은 잠긴 농임 사단의 마지막 몸부림일 뿐이라고 생각했을 것: ‘천년이 지나야 사단이 잠긴 농임이라고 했는데 아직은 천년이 되려면 까마득하다. 진짜 고통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 고난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식으로 가르칠 수 없다. 자신들에게 닥쳐오는 죽음의 고통이 바로 사단이 잠긴 농여난 것이므로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단은 결박된 것처럼 힘을 잃어버렸지만 일부 남은 힘으로 최후 발악을 하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5. 일천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 심판하기 전까지 일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기간이라는 주장도 있다(전천년설). 그러나 계시록에 사용된 모든 숫자가 특정한 숫자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숫자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무천년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일천년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필박자들이 당할 고난의 크기: 현실적으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그것은 겨우 열흘이다(2:10-11). 반면에 용은 천년동안 결박을 당할 것이다. 옛 뱀이 결박을 당하여 더 이상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힘차게 뻗어나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천년이란 교회의 시대를 가리키는 기간으로 본다. 천년에 대한 다양한 해석 때문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등이 있으므로 관심이 있는 분은 여러 학자의 견해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학자들에게는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었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단순한 메시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그들이 이해한대로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6.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데 어떻게 믿는 성도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가?’라는 것이었을 것이다. 요한은 무엇이라고 답하는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서 세상을 심판하고 있다. 천년동안 왕 노릇 하고 있다.

7. 첫째 부활이 있으니 둘째 부활도 있는 모양이다. 첫째 부활의 대상자가 누구인가? 그렇다면 둘째 부활의 대상자는?

첫째 부활의 대상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4): 그리스도인들이 왕 노릇 하기 위한 부활이다. 언제 부활하는 거야? 내가 죽어서 부활하기까지 기다려주어야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시간문제에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 이 부활이 언제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믿거나 하라.

둘째 부활의 대상자: 5절의 그 나머지 죽은 자들, 혹은 13절에서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내놓은 자들 일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한 부활이다.

8. 본문은 어떤 죽음을 귀한 죽음이라고 하는가? 사고나 병들어 죽는 것은 복이 아니지만 늙어서 죽는 자연사는 복이 아닌가? 천수를 다 하였다고도 하고, 호상이라고도 하는데...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죽음(4): 여기서의 관심은 늙어서 죽느냐 사고로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삶을 살았느냐와 동일한 질문이다. 꼭 죽어야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믿으며 평생을 헌신하였다면 마찬가지로 복이 있다. 반드시 목 베임을 당해야 귀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귀한 것이 아니다. 강조점은 어떤 죽음을 당하고 어떤 일을 하지 않았느냐가 아니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에 있다.

9.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고 거룩한 이유를 네 가지 지적한다면?

1) **살아서(4)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6):** 비록 죽임을 당하였지만 영원한 죽음이 아니다. 오히려 잠시 죽음을 당하였지만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되리라.

2) **그리스도로 더불어(4)=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여행이 즐거우려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 살아도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하다. 원수 덩어리와 천년을 함께 산다? 이보다 끔찍

한 일은 없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삶이 있을 것이다.

3) 천 년 동안(4) 환난의 기간이 아무리 길다 해도 그것은 열흘일 뿐이다(계 2:10). 그에 비해서 왕 노릇은 천년이다. 끝이 없는 무한히 긴 기간을 말한다.

4) 왕 노릇 하니(4) = 심판하는 권세: 고난을 받을 때는 세상의 구경거리요, 만물보다 못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무엇이 부러우랴?

10. 왕 노릇 하는데 백성은 누구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도 살아서 백성이 돼야 왕 노릇 하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영광스런 임재 앞에서 날 괴롭히던 자들을 상대로 짜잔한 일을 하고 있을 거를이 없다. 하나님 앞에 아무 거리낌 없이 나아가서 찬양하며 함께 교제하는 것이 왕 노릇보다 못할까? 아니 그것을 왕 노릇이라고 표현하면 무리인가? 왕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장차 임할 행복한 그 모습을 왕 노릇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5장의 18번을 찾아보세요)

11. 원래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분리를 뜻하는데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분리가 첫째 죽음이다. 이것은 죽음의 근본 원인이다.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은 것이다. 결과로 사람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둘째 죽음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바로 이 둘째 죽음을 말한다. 예수의 재림 때 심판에 의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원한 분리가 셋째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이요 진짜 죽음이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6)은 무엇인가?

위에서 말한 셋째 죽음과 같은 의미이다: 핍박받는 성도들에게는 어쩌면 육신의 죽음(첫째 사망)이 가장 큰 관심사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 사망보다 더 심각한 죽음이 있는데 그 사망에서 놓여난다는 것이다. 반면에 자신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핍박자들은 그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없다(14). 그러니까 연습 경기에서 지고 본 경기에서 이긴 셈이다.

12.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하는 것과 제사장이 되는 것은 어느 것이 더 좋을까?

같은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을 하면 하나님보다 더 높나?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표현하는 말이다. 제사장인들 더 이상 제사도 필요없는 곳에서 무슨 할 일이 있으랴! 아무래도 왕이 좋아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정리를 조금 더 해야 한다. 제사장이 되어 왕 노릇 하리라(6절)'는 표현에 유의해야 한다. 제사장이 되어 왜 왕 노릇 하나? 동일하기 때문이다.

13. 곡과 마곡에 대한 기록은 겔 38, 39장에 나온다. 무슨 짓을 한 사람들인가? 여기서는 어떤 자들을 가리키는가?

이스라엘에 무서운 심판을 가져왔던 이민족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여기서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무리들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땅의 사방 백성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바다 모래와 같은 많은 무리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을 대항하지만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해 버렸다.

14. 말세에 곡과 마곡의 군대가 바다 모래 같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침공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전운이 감도는 것을 예의주시하기도 하고 3차 세계대전은 중동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한다. 무슨 근거로 예루살렘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할까?

사랑하시는 성(9)이 예루살렘을 가리킨다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은 유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믿는 성도들을 가리킨다. 계시록의 고유명사나 숫자를 구체적인 것으로 해석하려는 데서 오는 무리수이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른다고 했다.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은 일정한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란 뜻이다. 우리의 싸움은 사방에서 우겨 싸울 당한 싸움이다. 물론 영적인 싸움이며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도 아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불신의 세력은 무엇인가?

15. 이유 없이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으로 미워하는 사람도 많다(이유가 있어서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해야 할 여지가 많이 있다) 왜 그러지?

사단의 술책에 말린 탓이다(8) 사단이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하여 싸움을 불이키기 때문이다. 이유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드러난다.

16. 두 종류의 못이 있나보다. 유황 불못(10)과 불 못(15)인데 무슨 차이가 있는가?

차이라기보다는 같은 것이다: 굳이 차이라면 유황이 들어가면 불이 더 세어지니까 사단은 유황 못이 어울리고 조무래기들은 불 못에 어울린다? 더 중요하게 기억할 점은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닌

영원히 계속되는 죽음이란 점이다.

17.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 데 없다? 무슨 느낌인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계를 잡고 있으니(소위 백보좌 심판) 그 앞에 어느 피조물이 제대로 서겠는가? 땅과 하늘도 피하여 가는 판에 그 땅과 하늘 한쪽 귀퉁이에 등지를 틀고 사는 우리야 말해 무엇 하겠는가? 엄위하신 하나님의 모습 앞에 이제 누가 감히...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무한한 위로의 말씀 아닌가? 우리도 이 땅에서 너무 좁쌀처럼 살지 말자.

18.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 데 없는데 사람은 어떻게 서 있어? 무얼 밟고?

창조의 중심은 사람이다. 심판도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존재들은 물러나고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든지 상을 받는 것이다. 무얼 밟고 서느냐고? 그 앞에 여전히 이런 부실한 육체를 가진 채 설 것으로 생각하는가?

19. 부활을 염두에 둔 사람들은 시체가 흩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가급적 화장을 하지 않으려 했다. 오래 전 일이지만 일본의 어느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시체를 화장하라고 유언을 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난하거든 공개하라고 편지를 남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라면 무엇이라고 답변을 남길 것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시체가 불에 타서 없어진다고 나를 다시 부활시킬 수 없는 하나님이란 말인가? 라고 적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죽든지, 고기밥이 되든지 사자 밥이 되든지 심지어 불에 타서 공기 중에 사라지더라도 자연만물이 우리를 다시 내놓을 것이다(13).

20. 심판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그들의 행위를 일일이 책에 기록하였다면 책의 분량이 얼마나 될까? 심판(재판) 기간도 엄청나게 길지 않을까?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는 사고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시간에 크게 구속받지 않는 현상은 컴퓨터를 보라. 엄청난 자료가 쌓여있어도 필요한 자료를 바로 빼낼 수 있다. 시,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런 걱정 말고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것이나 걱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몇 종류의 책이 있을까? 책들과 생명책 두 종류인데? 행위록?

21.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인간들이 무슨 짓을 했을까?

안 믿었다: 이것이 그들의 행위다. 안 믿는 것이 가장 악한 짓이다.

22.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 못에 던지우더라' 이 말씀은 공갈 아닌가?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받던 성도들에게는 은혜로운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공갈로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가 문제 있다. 이유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방법이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불 못에 던지우지 않는다. 그 사실에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21 장

1. 계시록이 사단이나,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의 기록이라면 계시록은 몇 장에서 끝이 나와 자연스러운가?

20장: 이제 더 이상 악한 자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16장에서 절정을 이루고 17-20장에서 사단의 세력마저 완전히 제거해 버렸다. 21장에 가볍게 언급하긴 하지만 더 이상 계시록은 악한 자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단이나, 악한 자가 심판에 던져지고 난 후에도 21, 22장이 있다는 것은 계시록이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이 주된 내용이 아니라 믿는 성도가 고통을 통과한 다음 거할 세상이 어떠한 것인지에 더 관심이 있다는 뜻이다. 세상의 심판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건설'로 끝나는 이야기다. 기괴한 짐승들이 설치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름다운 신천지에 관한 이야기다.

2. 슈퍼맨이 빛의 속도로 날 수 있다면 그가 입는 옷도 특수한 옷이라야 한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려도 타지 않고 날아지지도 않아야 한다. 주인의 성격이 달라지면 부속품도 그에 걸맞게 달라지는 법이다. 지금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한 몸과 다르다. 그 날이 되면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새롭게 되듯이 우리 몸도 달라질 것이고 따라서 우주 만물도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다. 어느 표현이 그것을 말하는가?

바다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1)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2) 여기서 성도들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살았다. 사단과 원수들이 득실거리던 곳이기도 하다. 빈대 벼룩이 들끓던 낡은 집을 버리고 깨끗하고 멋진 새집으로 이사를 가는 느낌이다. 이가 기어다니고 땀에 절은 내의를 벗어 던지고 새 것으로 갈아입은 느낌 같다. 그런데 왜 바다가 없지? 스킨스쿠버나 바다 낚시가 취미인 사람은 어떡하지? 요한은 밤모 섬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다. 보이는 것은 사방이 바다 뿐! 바다 건너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 이 바다 때문에 성도들을 만날 수가 없다. '바다가 육지라면' 하는 가요가 딱 적격이다. 새 날이 왔다는 표현의 '새'는 이전의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하지만 새(카이노스) 하늘은 성질이 전혀 다른 것이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4c)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5b)

이루었도다(6) '다' 라는 말이 없다. 권위 그 자체다. 선악과를 만드심으로 고난을 자초하셨던 그 분이 그 과정을 다 거치고 이제 창조사역을 이루었다는 만족감의 표시일 것이다. 처음 에덴동산은 더 완전한 곳을 향하는 1차적인 창조이었다면 이제 완전한 창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이 이제야 완성된다.

3.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2). 남편을 위한 단장이라면 신부화장인 모양인데, 특징은 무엇인가?

가장 아름답게, 남이 다 싶을 정도로, 돈을 많이 들여서, 온 정성을 다하여.

4. 신부가 단장하는 데 드는 비용은 누가 내는가? 새 예루살렘의 용도는 무엇이고 재료는 무엇일까? 계 3:12, 11:2절도 참고하세요.

결혼식 비용이라면 서로 협의하에 지출하니마 함께 지불한다고 보아도 좋겠다: 우리가 신부가 될 수 있는 비용은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지만 신부도 체면이 있지 어떻게 공짜로 가나? 비용이랄 것도 없지만 성도다운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부가 지불할 수 있는 비용 아닐까? 성도들이 정결하고 성실한 삶을 사는 것이 신랑 맞을 단장을 하는 셈이다. 성도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 신부화장 하는 마음이 어떨까? 어떤 신랑인지, 어떻게 결혼하는지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다.

새 예루살렘의 용도: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는 곳(3).

재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성전의 재료는 아마 성도들일 걸. 목숨 바쳐가며 하나님을 사랑한 성도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계실 집을 지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심(요 14:20)을 표현하는 수단이지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거하실 집이 된다(엡 2:22)고 이 땅에 있는 건물처럼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5. 회복된 낙원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과 함께 거함(3, 4, 7) 인간의 모든 비극은 하나님과 멀어진데서 생긴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눈물을 씻기는 것은 사소한 일이다. 천국 가서 무슨 상을 받을 것에 관심이 더 있는 사람은 아직 어리다. 선물이나 상보다 그 사람이 좋아야 한다. 루터는 말이 좀 거칠고 선동적인 경향이 있었다. '예수가 지옥에 있다면 나는 지옥으로 가겠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 이 말은 자체로 틀린 말이다. 그러나 명쾌한 주장이 담겨있다. 즉, 예수와 함께 하는 그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뜻이다.

6.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 그 결과는 어떤가?

모든 눈물을 씻기심

사망, 애통하는 것, 고통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는 없다: 엄마 품의 아가처럼.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구절이 가장 은혜롭지 않았을까? 우리도 그런가? 이런 아픔이 전혀 없으면 이게 별로 감동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이 제일 은혜로운 것인데....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76)

7.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과 '처음과 나중'이란 무슨 뜻인가?

같은 뜻이다. 모든 것 되시며,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며, 주관자이시다: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나? 하나님만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을까? 수학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은 필요충분조건이다.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필요는 없다. 다만, 최소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으로 내 기쁨을 채우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자.

8.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실 때의 생수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다(요 8:39)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생수도 거의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1)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에게도 같은 생수(생명수 샘물)가 필요한가? 2)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과 관련지어 생각해보면 이 생명수 샘물은 그들의 어떤 점과 대조되는가?

틀림없이 그렇다(6). 삼위일체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바로 그것이다.

음녀의 잔을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보상의 성격,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 자들의 갈함과 대조가 된다.

9.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자들의 여러 가지 모습이 그려져 있다(8). 그 중에서 가장 자격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은 누구일까?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한다는 것만으로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은 억울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박해자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수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다. 거짓말하는 자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없다. 안심하고 인생을 즐겨라? 즐기에는 멋있어 보이지만 엄청난 거짓말이다. 끔찍한 세상이 될 뿐이다. 8가지 항목은 결과적으로 다 같은 것이다.

10. 대상을 정확하게 대조시키는 방법도 중요한 수사학 기술이다. 9-11절의 내용과 정확하게 대조되는 구절이 계 17:1-3에 있는데 찾아서 대조해 보자.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상은 음녀 진짜 아름다운 어린양의 신부: 더 세밀하게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대상에서 멀어지는 것 반면에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10)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에 가까이 가는 것이다.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한 붉은 빛 짐승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밝더라(11)

11.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보여 주리라고 했는데(9) 보여 주었는가?

곧 이어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 어린양의 아내이다: 어린양의 신부인 교회의 모습이며 동시에 장차 우리의 모습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말이다.

12. 무슨 보석의 종류가 이렇게 많아? 보석을 찾아 헤맨 사람들이 보면 눈이 번쩍 뜨이지 않을까? 다음 중에서 아는 보석이 몇 가지인가? 또, 12기초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두개 가려내어 보자. <답항옥, 홍보석, 정금, 황옥, 비취옥, 녹보석, 남보석, 청옥, 진주, 옥수, 자정, 벽옥, 홍마노, 녹옥>

정금(성, 길), 진주(대문): 영어로 보면 그래도 좀 낫다. 좀 낫아 익은 것은 벽옥을 *jasper* 남보석은 *sapphire* 녹보석은 *emerald* 답항옥은 *topaz*란다. 색깔도 상상해 보자. 이렇게 보석이 한꺼번에 많이 나오는 본문이 다른 성경에 또 있을까? 출 28:17-20에 있다: 제사장의 흉배에 장식되었던 것이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한다. 세 개씩 네 줄로 12보석이 달려 있었다. 홍보석(*ruby*), 황옥(*topaz*), 녹주옥(*emerald*), 둘째 줄은 석류석(*turquoise*), 남보석(*sapphire*), 홍마노(*diamond*), 호박(*jacinth*), 백마노(*agate*), 자수정(*amethyst*), 녹보석(*beryl*) 호마노(*an onyx*) 벽옥(*jasper*)으로 금테에 물린 것이다.

13. 새 예루살렘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자.

전체의 윤곽(11): 벽옥과 온갖 보석으로 된 맑은 유리같은 정금으로 된 성(11)이다. 수정궁전? 천국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인간의 말로 표현하겠는가? 답답해서 보석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천국은 그 이상의 것이다.

전체의 모양(16): 정육면체이다. 지성소와 같다. 우리가 속해있는 3차원적 공간과는 개념이 전혀 다른 건물이란 뜻이다. 일 년에 단 한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던 그곳에 모든 성도가 거하게 되리라는 말씀이다.

성곽, 성문, 기초(14): 크고 높은 성곽과 12대문(12지파의 이름), 기초석(12사도의 이름),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여야 하는데 12사도인가? 12사도의 기초는 예수시니 마찬가지다. 교회의 기초가 사도신경에 있다는 것은 12사도가 교회의 기초라는 뜻이다. 물론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쓴 것은 아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한 신앙고백이란 뜻이다.

크기(16): 장광도가 12,000스다디온 (=1500마일, 2,200km, 1스다디온=183m). 굳이 크기를 따질 필요는 없다. 상상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무한대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굳이 일만이천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그렇다.

조명(23): 햇빛이나 달빛이 없다.(영원한 빛이 있다)

설계, 시공, 감리(10): 하나님이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상향을 건설해보려는 노력은 아마 실패로 끝날 것이다. 과학의 힘으로?

성벽의 높이(17): 144규빗 (약 70m, 전체 높이에 비하면 0.000032배) 보통은 방어용이므로 건물이 성벽보다 낮거나 비슷하지만 높이에 비하면 별 소용도 없어 보인다.

14. 새 예루살렘의 성문은 미닫이인가? 여닫이인가?

둘 다 아니다(21): 무덤문을 굴러서 열듯이 진주를 굴러서 열고 닫는 형태이므로 여닫이에 가깝지만 여닫이도 아니다. 문마다 한 진주로 되어 있으니(21) 거대한 진주를 굴리는 문이다. 워낙 거대한 진주라서 진주가 얼마나 비싼 보석인지 알아도 실감나지 않겠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이해하자. 개털모자 얘기나 전도 많이 하면 평수가 넓다는 얘기는 비집고 들어올 틈도 없는 곳이다.

15. 새 예루살렘이 너무 화려하게 묘사된 것 아닌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화려한 문명 세계에서 밀려나 어두운 토굴에서, 혹은 직장에서 쫓겨나서 힘들게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니 복음 때문에 망망대해의 섬에 유배된 채 갈매기를 벗 삼아 외로운 날을 보내던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다. 빨리 천국 가서 이런 보석을 한 개라도 얻어야 할 텐데? 설마 이런 사람 없겠지! 어떤 수사학자들은 로마나 아테네를 장엄하게 묘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주를 총동원하기도 했다. 그런 글들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진정한 성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16. 모세가 만든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만들었다(출 25:9, 40). 그런데 왜 성 안에 성전이 없나(22)?

성막은 상징이었다. 이제는 실체되시는 하나님과 어린양이 계시므로(22) 더 이상 모형이 하늘나라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17.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계 21:24)? 땅의 왕이? 그것도 자기 영광을 가지고? (사 60:11을 참고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을 점령하고 다스리는 나라의 수도와 비슷할 것이라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땅의 왕들에게 공물을 받을 이유가 없다. 비유적으로 그렇다는 말이다. 모든 왕의 왕이 거하시는 성이란 뜻이다. 누가 감히 그 성을 치겠으며 감히 맨손으로 온단 말인가? 땅의 왕들이 아무리 위엄을 갖추어 들어온다 해도 공물을 바치러 온 몸이요, 일시적인 방문자일 뿐이다.

18.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에는 없는 것이 가지다(한 가지는 22장에). 찾아보자.

바다, 고통, 성전, 해와 달, 밤, 속되거나 거짓말하는 자(27), 저주(22:3): 표현이 조금 차이가 나는 계 7:15-16은 비유적 표현으로 하나님 존전에서 영원히 행복하리라는 의미이다.

19. 요한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준 이유를 한 마디로 말한다면?

끝까지 참고 견뎌라.

20. 요한이 본 이 광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기쁨과 위로를 주었을 것이다. 동시에 이 놀라운 선물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 하나만 고르세요.

7절: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는 선언, 이것보다 더 감격적이고 더 큰 선물은 없다. 아니, 이 선물만 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2 장

1. 21장 전반부에서 요한이 본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후반부에는 '어린 양의 아내, 곧 새 예루살렘'이다. 그러면 22:1-5에서 요한이 본 것은 무엇인가?

새 에덴: 에덴 동산과 여러모로 대조적이다. 에덴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준다. 생명이 풍성하게 회복된 반면에 저주가 사라졌다. 이제는 밭도 없다.

2. 드디어 계시록이 끝난다. 책 뒤에 '후기'라든가, 편지 끝에 '추신'처럼 덧붙인 부분을 제외한다면 어디서 완성되었는가?

5절: 6:7절도 모든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천사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표현에 해당한다. 그러나 계시록이 끝난다는 표현은 너무 약하다. 길고 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이제야 끝났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창 1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사역(창조의 핵심이 사람이므로)이 드디어 완성되었다 (21:6)! 가장 좋은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 되었다.

3. 강의 근원을 찾아보면 작은 샘이나 작은 개울인 경우가 많다. 아니, 억지로 그렇게 인정하는 법이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흐르는 생명수는 어디서 발원되는 것인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과 어린양이란 뜻이다. 인생의 근원도 여러 곳에서 뿌리를 발견할 수 있으나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의 뿌리는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다.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다.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저 암울할 뿐이다. 겔 47장에서 비슷한 장면을 볼 수 있다.

4. 처음의 에덴 동산과 비교해서 차이점이 있다면?

선악과는 보이지 않고 생명나무가 풍성하다: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과는 보이지 않는다. 그 때에는 필요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필요 없기 때문이다. 대신에 생명나무가 강을 따라서 늘어 서 있으며 달마다 다른 과실을 맺었다. 한 때는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그룹들이 지키던 나무다. 한 나무에 12가지 종류가 맺혔을까? 나무의 종류가 12가지일까? 어차피 우리처럼 계절에 따라 열매 맺는 시스템이 아니다.

그렇게 많았던 저주가 없다: 여자에게, 남자에게, 뱀에게, 땅에게 내렸던 저주가 없다. 마치 아이들 동화에서처럼 두꺼비가 왕자가 되듯이 모든 저주가 풀렸다.

밭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다: 그렇다면 처음에 밭과 낮을 구분하신 이유와 두 큰 광명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 때 구상하셨던 에덴동산보다 나중에 회복된 곳이 더 아름다운 곳임을 암시한다. 생명수에서 보듯이 회복된 낙원은 처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곳이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 러하고...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는 죽는다고 했는데 이제는 대면해서 본다. 왕의 얼굴을 쳐다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죽을라고? 실제로 성경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을까? 모세, 아브라함, 에스겔? 하나님의 본체는 보지 못하고 언저리나 느낌만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동산 가운데 있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가까운 모습.

종이 왕 노릇 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현상이다. 종노릇이나 왕 노릇이나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되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사람, 내려오기 싫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다.

5. 길고 긴 하나님의 이야기는 결국 에덴동산의 회복기(記)이다. 1-5절을 창세기와 비교해보자. 에덴에서 잃어버린 것 중에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가?

생명(생명수의 강, 생명나무, 만국의 소성)과 교제: 원래 에덴 동산에서 관심의 대상이어야 했던 것은 생명나무였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더 관심을 끈 바람에 진작에 이루어져야 할 사랑이 멀고 먼 길을 돌아온 것이다. 더 이상 선악과는 아담의 관심 대상이 아니다. 언급도 없다. 있어도 안 먹는다.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다. 생명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된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 세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다. 1) 범죄(하나님을 떠나는 것)할 수 없는 인간을 창조하신 것보다, 2) 범죄할 수 있음에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면 더 나았을 것이다. 3) 범죄하였음에도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시 낙원을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아름다운 것이다.

6. 생명수의 강물이 길을 따라 흘러가는데 출발지인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가운데 있다면 한 방향은 아닌 것 같고, 사방으로 길이 났을까?

우리 머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상상할 수밖에 없다. 새 예루살렘이 정육면체로 묘사된 것을 기억하자. 사방팔방을 넘어서 아래 위로 무한한 곳이란 뜻이다. 즉 시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다면 결국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제공되는 것이란 뜻이다. 가운데 보좌가 있으면 하나님과 어린양이 어느 방향으로 앉아 계시까? 회전하는 의자일까? 길 가운데에 강이 있으면 길이야 강이야? 이런 질문을 가리켜 '쓸데없는 소리'라고 한다.

7.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2)에서 만국을 소성하기란 말은 만국 백성들을 치료하기'라고 번역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치료받아야 할 만국 백성이란 어느 나라의 어떤 백성인가?

만국 백성이란 믿는 성도들을 가리킨다.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한 때 저주를 받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치료받아야 할 존재였음을 감안한 말이다. 영원히 살 존재가 100년 살다가 죽는다는 것은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병이 힘을 쓸 수 없음을 말한다. 생명나무가 달마다 과실을 맺고 생명수가 흘러가고 치료용 약재가 풍성하다는 것은 죽음과 질병이 깨끗이 없어졌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8. 누가 왕 노릇 하는가? 그럼 누가 백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4)이 왕 노릇도 하고 백성도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왕 노릇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왕 노릇하는 것보다 더 신나는 일이다. 황제로부터 수없는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 놓아야 하는 성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진정한 왕이 되려면 종노릇을 해야 한다. 부부가 서로 왕 노릇하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서로 종노릇하다보면 서로가 왕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서도 왕 노릇하려면 성도를 섬겨야 한다. 성도를 섬기지 않는 목사, 장로가 있는 교회는 문제가 많다. 교회는 서로 섬기는 종이 모여 종노릇함으로 서로 왕 노릇하는 정말 묘한 곳이다.

9.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는 것과(3) 그의 얼굴을 보는 것(4)과 그의 이름이 저희 이마에 있는 것(4)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는 것(5)은 다 같은 내용이다. 설명해 보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왕 노릇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임금님 앞에서 임금님의 얼굴을 본다고 생각해 보라. 이게 보통 사이인가? 애인이 '넌 내 것'이라 해도 기분이 좋거늘.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분의 소유권 말이다. 짐승에게 낙인을 찍듯이 고대에 종에게는 이런 식의 낙인을 찍었다.

10. 성경 말씀을 듣는 자도 복이 있고 읽는 자도 복이 있다(1:3). 정기적으로 QT하는 사람은 더욱 복이 있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은 더욱 더 복이 있다. 그러나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맛을 모르고 구경만 하거나 껍데기만 핥는 사람이다. 일단 맛을 아는 사람은 구경만 해도 맛이 살아난다(닭시, 바둑, 스포츠 TV를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게 그런 예다).

11. 예수님도 속히 온다고 하시고(7),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도 속히 되어질 일이라(6).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 속히 되는 일이 아닌데?

속히 될 일이라고 믿고 인내하라는 것이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의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12. 6절의 주어 '그'는 21:9, 22:1에 등장하여 어린 양의 신부와 새 에덴을 보여준 천사이다. 그 천사에게 경배하려한 것(8)은 요한의 잘못인가?

요한으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너무나 놀라운 광경에 압도당하여 그것을 보여준 천사에게 엎드린 것은 자연스럽다. 다만, 천사가 하나님께 풀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지 않은 점은 더욱 잘한 일이다. 말씀을 잘 전하는 자를 존경하고 따르려는 자세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잘못이다. 세례요한은 자신을 한없이 낮춰버렸지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칭찬하셨다.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경배 대상은 하나님 뿐이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3.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단 & 26)'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는 그냥 '간수하라'고 하셨다. 이유는 당대의 일이 아니라 후대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본문 10절에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도이며 왜 그런가?

전하라, 당대의 일이기 때문이다: 계시록은 당시 사람들에게 전해진 메시지다. 속히 되어질 메시지다. 2000년이 지났는데? 당시의 사람들에게와 우리에게 동시에 전해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말씀이다. 당시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와 희망을 가지고 주를 섬겼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한다.

14. 멸망으로 가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다급한 마음으로 전도하라고 하던데 왜 예수님은 그대로 두라고 하시는가(11)?

가만히 두라는 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12절의 말씀에 강조점이 있다. ‘상’이라고 번역된 말은 난외주에 보면 ‘샷’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행한 대로 갚을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라는 것이다. ‘놀고 싶거든 실컷 놀아라. 시험치고 보자.’ 이 말은 결코 놀아라는 말이 아니다. 결국 경제적인 양극화(6:6)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다. 세상이 문란해지면 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깨끗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반면에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는 것(10)은 전하라는 말이다. 많은 사람이 듣게 해야 한다(1:3).

15.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13)은 다 같은 말이다. 세 번이나 반복함으로 강조하고 있다. 무엇을 강조하는 말인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로서 반드시 갚아주리라는 것이다. 상벌이 확실하게 있을 것임을 확인하는 표현이다. ‘이 말은 진짜다’ 라면서 강조하는 격이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아는 사람에게 이렇게 묻는 의도와 같다. 뿌리와 자손(16)도 의미는 같다.

16.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 ‘순례자’ ‘나그네’ ‘귀 뚫은 자’ 라고 한다. 본문에서 찾아 하나 더 추가시키자.

두루마기 빼는 자(14):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함이라고 한다. 우리는 어떻게 두루마기를 빨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7:14).

17. 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에 어떻게 가지? 개는 데리고 가지 못하는 모양인데(15)?

여기서 말하는 개는 개같은 사람, 즉 악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개는 정말 억울하다. 하필이면 개냐? 개가 왜 나쁜데? 개는 새끼가 자라면 어미와 교미를 한다. 개가 욕에 잘 쓰이는 이유란다.

18. 16절에 느닷없이 ‘나 예수는’ 하시면서 예수님이 등장하셨다. 사실은 7절, 10절에서 이미 등장하셨다. 여기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은 어디서 중단된 말씀과 연결되는 것일까?

계시록 3장 끝: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요한은 천사의 손에 이끌려 열린 하늘 문으로 들어가서 이 모든 환상을 보았다. 이제 다시 주일날 예수의 음성을 들었던 장면으로 돌아온 것이다.

19. 다윗의 뿌리면 뿌리고 열매면 열매지 뿌리이면서 자손(=열매)이라니?

처음과 나중이시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다윗을 택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뿌리이면서 동시에 자손도 되신다. 광명한 새벽 별이란 표현도 영광스러운 아침을 상징하는 것이니 곧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로 같은 의미이다(2:28).

20. 생명수는 공짜다! 공짜는 물건이 별로 좋지 않거나 미끼이거나 소량인데?

대신 지불해서 내게 공짜가 된 것은 그렇지 않다. 복음은 결코 값싼 공짜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드러 대속한 것이다. 사 55:1과 비교할 필요 있음(아마도 더 구체적일 것)

21.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해셔도 안 되고(18) 빼셔도 안 된다(19). 1) 내용상 이 말씀과 거의 동일한 뜻으로 사용된 성경의 표현이 있다면 무엇인가? 2) 왜 표현이 그렇게 다를까? 3) 옛날에는 이렇게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사람이 많았는가?

1) 율법의 일점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 5:18).

2) 대상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다. 율법을 기록한 히브리어는 점 하나 획 하나가 다르면 뜻이 크게 달라진다. 반면에 계시록을 기록한 헬라어는 점이나 획이 없다. 요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라는 말씀이다. 슬프게도 말씀을 자기 뜻대로, 멋대로 풀어대는 엉터리 목자가 많다. 우리가 금과 옥조로 여길 말은 ‘성경은 성경으로 풀다’ 이다. 창세기나 에스겔에 나오는 그룹(히, 케루빔)을 group로 이해한 사람도 있더라! 사 34:16-17도 오해!

3) 인쇄된 책은 이런 가능성이 없지만 옛날에는 필사본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부주의해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단히 주의깊게 작업을 해야 했다. 고의였건 부주의였건 이런 불합격품 성경이 간혹 발생했다고 한다. 후대에 이르러 강압이나 선입견에 따라 성경의 내용을 더하거나 빼는 일이 실제로 많이 발생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더하는 사람들이란 성경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무리들이고, 빼는 사람들은 대체로 성경을 인간의 책으로 보는 신학자들이다. 우리 맘에 드는 구절만 애용하는 것은 어떨까?

22. 계시록을 끝맺으면서 당부하는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세요.

1) 꼭 지키라(7, 14: 빨아라, 17: 오라), 2) 인봉하지 말라(10), 3) 가감하지 말라(18-19)

23. 계시록은 교회를 위하여 기록되었다. 핍박받는 교회를 위해서 '심판이 있다' '천국이 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하셨다. 한 문장으로 핵심을 요약한다면 무엇일까?

성도들이여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라.

24.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와 비슷한 표현이 고전 16:22에도 있는데(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 부분만 아람어로 '마라나 타'라는 표현이 그대로 사용되었다. 헬라어 본문에 외래어가 끼여든 것인데 그만큼 흔하게 사용된 말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이 말은 어떤 용도로 그렇게 흔하게 쓰였을까?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정한 용도로 많이 사용한 말이다.

인사말: 진지 드셨습니까? 밥새 안녕하십니까? 보다 좋은 인사가 아닌가?

25. 성경의 첫말과 끝말은?

대언: 어떤 분이 이렇게 상호를 만들었더라!